

제42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6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6)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5)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7)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23. 우주기본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2)
2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2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4)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9)
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1)
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1)
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1)
32.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6)
3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3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1)
35.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36.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3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3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4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9)
4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1)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1)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0)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5)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2)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1)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8)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22)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0)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3)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4)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5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8)
5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6)
5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4)
59.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6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0)
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5)
6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9)
6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2)
6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6)
6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6)
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3)
6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5)
6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3)
6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7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7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1)
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0)

7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7)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4)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6)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8)
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4)
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8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2)
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2)
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5)
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9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2)
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9)
9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1)
9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8)
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8)
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6)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1)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0)
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0)

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03)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28)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4)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2)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68)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4)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06)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77)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04)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09)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52)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1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1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04)
1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7)
1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0)
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8)
1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9)
136.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2)
137.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138.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39.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140.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14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14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4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 1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 13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6) ..... 1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 13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 13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 13
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 13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 13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 13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 13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 13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5) ..... 13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 13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 13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 13
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 13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7) ..... 14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 14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 14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 14
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 14
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 14
23. 우주기본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2) ..... 14
2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 14
2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4) ..... 14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 14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9) .....	14
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1) .....	14
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	14
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11) .....	14
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61) .....	14
32.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	14
3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	14
3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1) .....	14
35.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	14
36.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	14
3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	14
3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	14
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	14
4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9) .....	14
4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1) .....	14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	14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1) .....	14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0) .....	15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5) .....	15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2) .....	15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1) ..	15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98) .....	15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22) .....	15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90) .....	15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	15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	15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4) .....	15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	15
5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	15
5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8) ...	15
5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6) .....	15
5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4) .....	15
59.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	15
6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0) .....	15
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5) .....	15
6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9) .....	15
6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2) .....	15
6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6) .....	15
6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6) .....	15
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3) .....	15
6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5) .....	15
6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3) .....	15
6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	16
7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	16
7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1) ...	16
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0) .....	16
7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7) .....	16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4) .....	16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	16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6) .....	16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8) .....	16
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	16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	16
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	16
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	16
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	16
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	16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	16
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4) .....	16
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	16
8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2) .....	16
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	16
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2) .....	16
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5) .....	16
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	16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	16
9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2) .....	16
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99) .....	16
9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91) .....	16
96.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8) .....	16
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	16
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46) .....	16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	17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 .....	17
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60) .....	17
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03) .....	17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	17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28) .....	17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4) .....	17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2) .....	17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	17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68) .....	17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	17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	17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4) .....	17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	17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	17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06) .....	17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77) .....	17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04) .....	17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09) .....	17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	18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	18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	18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52) .....	18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	18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	18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	18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	18
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	18
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	18
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	18
1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	18
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	18
1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04) .....	18
1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7) ....	18
1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0) ....	18
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8) ....	18
1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9) ...	18
136.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32) .....	18
137.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	18
138.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	18
139.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	19
140.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	19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0
14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0
14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	47
14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	47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인 의결을 10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고인 요청 안 하셨나요?

○최형두 위원 아니, 참고인 왜, 무슨 참고인을……

○위원장 최민희 다시요, 10시 45분에 참고인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참고인 요청하십시오.

○김현 위원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최형두 위원 무슨 참고인을 합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 두 분 간사……

○김현 위원 얘기했대요.

○위원장 최민희 얘기했습니다, 저희 위원장실에서.

이것 앞으로는 빠지 말고 해 주시고요, 간사님. 그리고 조금 이따가 협의하십시오.

- 
1.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6)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5)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7)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23. 우주기본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2)
2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2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4)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9)
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1)
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1)
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1)
32.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6)
3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3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1)
35.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36.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3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3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4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9)
4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1)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1)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0)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5)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2)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1)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8)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2)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0)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3)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4)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5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8)
5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6)
5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4)
59.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6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0)
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5)
6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9)
6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2)
6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6)
6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6)
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3)
6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5)
6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03)

6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7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7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1)
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0)
7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7)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4)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6)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8)
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4)
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8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2)
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2)
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5)
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9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2)
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9)
9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1)
96.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8)
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8)
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46)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

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60)

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03)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28)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4)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2)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68)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4)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06)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77)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04)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09)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52)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1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1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04)
1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7)
1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0)
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8)
1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9)
136.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2)
137.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138.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39.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140.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10시05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35항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6항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40항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5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 의원입니다.

국회 과기정방통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성과를 국가적 영예로 간주하여 그에 마땅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을 예우하여 연구자들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해외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과학기술인에게 외교관·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연구자들의 국제 활동을 공항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연구장려금으로 현재 국한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국내 석학들의 미국, 중국행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공계 인재 유출의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연구예산 삭감 등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이 붕괴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수 과학자 패스트트랙 출국 지원제를 도입한다면 그들의 명예와 활동 편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법률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를 황정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과 안전성 등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은 SMR 패권 경쟁에서의 한국 역할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국이야말로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SMR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SMR의 저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용 SMR 원자로 개발에 나섰고 이 원자로는 2012년 SMR 중 세계 최초로 글로벌 규제기관 표준설계 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SMR 시장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등 점차 외국 기업들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SMR 기술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설립하여 SMR과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기술 SMR에 대한 개발 촉진 및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과 천하람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신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모두 SMR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SMR의 국가적 가치와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SMR 기술 발전에 뜻을 모으고 정부 또한 세계시장에서 SMR 강자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회는 지체 없는 입법으로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조금 전에 황정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서도 한미 간의 SMR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되고 최근에 방한한 빌게이츠 회장도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SMR은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비슷한 내용이 대표발의되어 있는데 함께 논의해서 신속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말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조 3000억 원, 종사자는 4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했습니다.

잘 살펴 주셔서 이 법안이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KBS·MBC 같은 이런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아니라, 이미 다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중소기업들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송의 새로운 채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벨트법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기조에 따라 과다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5년 내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로 두 차례 이상 발사 시 일괄하여 허가하고 국가안보상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허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발사 허가제도가 간소화됨으로써 민간의 발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에 온라인광고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과 미디어법령의 본래 취지, 방송·인터넷·모바일 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과 의사일정 제45항, 오세희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소상공인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서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홈쇼핑 업계와 종합유선방송 업계 간 합의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오세희 의원안 중에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지역채널 커머스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저해하고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케이블TV협회와 위성방송사업자,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9항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법률안은 방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누어진 방송 또는 시청각미디어 분야 소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또는 통합, 위원회 위원 수 등 여러 사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와 신기술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연금 등 급여 지급권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압류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조항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보완적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동일 취지로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유예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및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규제 관련 조문의 시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같은 부수되는 조문의 시행일도 함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인재육성지원위원회 및 인재육성센터 설치,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 설치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인재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최근 인공지능 글로벌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향후에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사업의 규모 및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인공지능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범위를 제정안에 인용하는 방안과 별도로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박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특정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안티스티어링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여 입법취지에 있어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외부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긴급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약관과 달리 제공한 서비스는 금지행위 예외로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침해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통지 시 안내 필요사항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부처의 이용자 보호 조치와 금지행위 예외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중단되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단서 조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러 번의 숙의를 통해서 규정된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7항 박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전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관련한 법안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나요? 의사일정 136부터 140까지도 포함되나요?

○전문위원 임명현 청원 사항은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 전문위원님 담당인데 생략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전문위원 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은 경상남도과 부산지역을 통합하는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영남권에 추가로 과기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경남·부산 지역의 대학 지원자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R&D 예산이 총지출 대비 5% 이상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R&D 예산 심의가 내실화되고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5항, 26항, 33항 등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은 4대 과기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기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우대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D 보안과제 분류체계에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등 R&D 관련 보안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요 연구자산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136항부터 140항까지 이게 청원 법안인데요, 이거 청원 요청사항인데 특히 136번 같은 경우는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방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도 허위·조작 정보를 막아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게 2소위 소관이지요, 간사님?

○김장겸 위원 아닙니다. 청원심사에서……

○위원장 최민희 아, 청원소위지요?

○김장겸 위원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청원소위를 열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138번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폐방 요청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138항 포함하여 논의하십시오, 간사님. 논의는 하고 이후에 무리한 것은 무리한 대로 또……

○김현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최민희 각 2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아니요. 내용이 보고가……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보고받아야 돼요. 오늘 올라온……

○김현 위원 왜 이것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 잠깐만요.

136번부터 140번까지 이번 청원은 의미 있는 청원입니다. 그게 정파적 입장에 따라 반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무리한 것은 걸러 내 주십시오.

그래서 2분 드리고요,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다 단말기에서 보라고 그래야지 어느 것은 단말기에 있고 어느 것은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김장겸 위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저인데요. 아직까지 청원심사소위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

는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최형두 간사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날짜를 정확하게 픽스는 안 했는데 아마 9월 10일 날 11시쯤 소위를 열어서 그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되고, 혹시 청원심사소위를 한 번도 안 열어서 누가 위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조인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 위원이고 이준석 위원님도 청원심사소위입니다.

그래서 그날, 9월 10일 오전 11시에 하려고 하니까, 마침 잘됐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9월 10일 날 하신다고 하셨지요?

○김장겸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도 2분 드리십시오.

○김현 위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로 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소위의 안건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청원소위도 저희 4개의 소위 중의 하나고요,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 관련한 청원이 민간인 누군가가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들어온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통상 들어온 제목이 그대로 다 반영돼서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아무리 청원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에도 MBC 빼고 여기에 다른 방송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유의 얘기가 여과 없이 나가는 것은, 무슨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은 138항이 무리하다는 건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MBC 자리에는 TV조선이 올 수도 있고요 MBN이 올 수도 있고 KBS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 간사님의 말씀 내용에 대하여 그걸 부정할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청원심사소위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만 이것을 언론플레이에 누군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법안과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없으세요?

황정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제가 발의한 SMR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려고 하는데요.

배경훈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창업자에게 또 다른 직함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테라파워 창립자입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주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말이 있는데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빌 게이츠 창업주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방한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SMR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을 숨기지도 않았습니까.

최태원 SK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이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SMR을 강조하고 SK와 HD현대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에 투자하며 동맹까지 체결했던 회사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빌 게이츠와의 만남에서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도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SMR이 왜 중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SMR은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산업 등의 첨단전략산업 등을 뒷받침할 차세대 핵심 에너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없으면 AI도, 반도체도 없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우리가 가진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SMR을 개발하고 석유도 나지 않는 에너지 약소국 대한민국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해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스웨덴은 50년 만에 짓는 원전을 차세대 SMR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세계 주요국은 SMR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정책 그리고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지금 SMR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

령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SMR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중요한 것은 결국 속도인데 지금 과기부, 산업부 등 SMR 관련 부처 간에 역할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은 과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산업 육성, 수출 지원에 관련한 사안은 산업부가 맡아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SMR 기술 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MR 특별법을 발의하신 다른 의원님들과, 혹시 산업부 등과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SMR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부, 원안위와 여러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아 위원 협의가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협의 중입니다.

○황정아 위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라도 중재에 나설 것임을 인식을 하시고 전격적인 속도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MR 기술 발전과 특별법 제정 그리고 혹시 과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여러 법안들이, 지금 4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법안 간에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각 의원실별로 저희가 긴밀히 논의하고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마존웹서비스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간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시그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과의 협약 때문에 벌써부터 SMR이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0년 로열티도 큰 충격인데 그보다 더 큰 우려 사안은 SMR 기술을 향후에 개발하게 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낙관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전망마저 기술적 차이를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인정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다음 시대를 좌우할 SMR, 에너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전 정권의 치적 쌓기에 대한민국이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 마련하시고 협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경수형 SMR에 저희의 차별적 요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나리오별 영향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정아 위원** 대응책 마련되시면 저희 의원실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 황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배경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 우선 첫째는 SMR이 상용화되어서 쓰이는 데 우리나라 기술로 얼마 걸릴까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경수형 SMR이 203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2030년? 그때 상용화되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2030년대에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고 비경수형 SMR은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계 회사들의 진척 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무래도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2030년 초반에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미국도? 그러면 우리가 늦은 게 아니네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그러니까 경수로형 SMR에 있어서는 같이 오랫동안 협력을 해 왔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적인 요소를 잘 만들어 간다면 저희도 저희 나름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황정아 위원님 토론이 매우 중요한 토론 같거든요. 그러니까 황정아 위원님도 잘 챙겨 주시고 과기부도…… 우리가 지금은 과거의 행정적 관행에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좀 잘 의논하시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15개 과제 플러스 확장된 30개 과제 발표한 거 아시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성장 전략이 ‘ABCDE’ 전략이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A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AI.
- 위원장 최민희** AI고, B가 뭡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바이오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 바이오가 15대 혁신 성장 전략에서 빠진 거 아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15대 AI 성장 전략에서 빠져 있지만 나머지 경제……
- 위원장 최민희** 30대에 들어가 있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30대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K-바이오로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15대와 30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5대가 우선 추진이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15대에 넣었겠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15대에 AI 중심 과제들이 세팅돼 있지만 30대에 들

어간 것도 K-바이오가 전반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적어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혁신 경제 성장의 핵심이 ABCDE면 A·B, AI 물론 들어가야 되고 B, 바이오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조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아무리 이게 순서가 없다 그래도 ABCDE, 5 중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그게 15대 과제에서 빠집니까?

게다가 거기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가전이 들어 있더라고요. 가전이 거기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그냥 제조업 분야에서 AI 탑재하는 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게 30대로 들어가도 가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차원이 달라서, 저희가 계속 암 진단 패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방사광가속기랑 연계되면 우리도 타미플루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우수한 한국의 바이오 인력과 산업을 이재명 정부 혁신 성장 전략에, 저는 그게 순서로 따지면 AI 안에서도 거의 첫 번째 내지 두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빠져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도 경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짚었고요. 그리고 이게 산자위나 기재위 위원들이 챙기기로 했으니 그냥 발표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하지만 이게 수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고정은 아니잖아요.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선택과 투자, 선택과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9월 5일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족됩니다. 그때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80개 과제가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대하여 제가 지난 라인업, 장관님 라인업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라인 4세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훌륭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와 연관해서 방사광가속기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한 영역에서 핵심 동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이거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35건의 법안과 5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 의제가 KBS와 EBS 결산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잠시만요. 간사님들, 과기부장관님 이하 직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지요? 이석해도 되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일단 저희가 다음 참고인 의결하기 전에 과기부장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특히 SMR 강조 주셨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지금 이석하시기 전에 과기부장관께 질문할 게 있는 위원님들 계실까요?

최형두 간사님, 5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오늘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장관은 가셨는데 과기부장관이 이번에 수행단에 포함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산업부도 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번에 방문할 때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물론 SMR 같은 경우는 산자부가 지금 주 장관으로 되어 있고 한수원이 그쪽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장관님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다 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정상회담 결과…… 공식적인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원전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우리가 보스턴 코리아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이오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얼마 전에 1차관님이 재미한인과학자 총회에도 다녀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상회담 계기라는 게 국가적 의제가 집중되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 전체의 새로운 협력 의지를 과시하는 기회인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치 여기에 큰 관여가 없는 것처럼 뒷전으로 조금 물러나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제든 그제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과학기술협의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빨리 그 정상회담 계기에 그걸 의제로 해서 양국간에 그걸 좀 정례화하든가, 지금 벌써 안 열린 지 꽤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과학기술 협력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 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런 요청에, 우리가 응했다면 우리 역시도 과학기술 협력 해서 우리 쪽의 주요 의제를 당기고 파이프라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핵물질 재처리 문제 그동안 답보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조금 논의가 되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구체적인 논의 결과 사항은 아마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표는 안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자력 분야 협력 논의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SMR에 있어서 핵연료의 확보라든지 구체적인 건설, 설계 이런 데 있어서의 협력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한미 간의 협력이라는 게 과학기술 간의 협력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분이 지금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 중에, 우리 당 위원님 중에. 지금 팬데믹이 새롭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의제가, 지금 오늘은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이런 의제를, 우리가 예상했던 의제와는 달리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새로 돌출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의제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주고 또 미국 정부로 하여금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의제 조율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 DOE 부장관이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최형두 위원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또 가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감국가 이슈라든지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상세하게 할 생각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봐 왔지만 과기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참 힘듭니다. 과기부의 발언권이 정부 내에서 좀 약해요. 이번에 예산안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관님과 또 고위공직자들께서 이걸 어떻게 국가적 의제로 해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넣고…… 또 장관님이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지. 지금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려고 최민희 위원장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전체 상임위가 하는데 그게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할 테니까, 한미 간의 의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이런 문제에도 미국 의회의 힘은 또 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한미 간, 정부 간에 좀 막히면 과학자 출신 황정아 위원님도 계시고 이번에 새롭게 예결소위를 맡은 조인철 위원님 의지도 막중하시고 또 최수진 위원님, 여기 또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님 또 무엇보다도 과학 분야의 우리 국회의 자랑인 이준석 위원님도 계시고 다들 관심 많으신데 이분들이 좀 투입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이 모자

라면 우리가 전방위로 뛰어서 좀 도와주겠다는데 정부의 의지가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상회담에 다음에는 꼭 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역할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어떤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황정아 위원님이 발원 신청을 해 주셨습시다만 한번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드리고 이 해민 위원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 번이나 말씀하시라 그래도 안 하시 더니……

5분이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방금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비슷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R&D 예산 최대치 확보 기사가 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겠지요.

아마 혁신본부장님 너무 연구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연구과제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평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난해에 국감에서 짚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리고 이번 새로운 과기정통부장관님하에서는 연구과제 평가가 제대로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1차관님께서 또 미국 가서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 또한 이번에 미국 가서 재미 한인 과학자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스턴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대부분 연구평가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풀이 너무 적다, 한국에. 그래서 본인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대변혁을 이번에 국감 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5분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과기부가 부처 중에 존재감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발의한 중요한 법안이 있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발의된 R&D 예산의 신속 회복과 과학기술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R&D 예산의 차질 없는 투자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의 가장 큰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R&D 예산 폭거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연히 R&D 예산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해당 법에 담긴 국정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안정적이면서 또 지속가능한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R&D 예산심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R&D 예산심의권이 말로만 과기부에 부여되어 있었고 실상은 기재부가 상왕처럼 휘둘렀던 측면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재부가 R&D 예산으로 갑질을 한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욱 큰 문제는 기재부가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심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해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어떤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황정아 위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 중심의 R&D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과기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요식행위처럼 만들려고 하면 이걸 과기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게 과기계를 지키고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R&D, 일반 R&D 나누어서 심의하는 국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지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통합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R&D 예산심의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과기자문회의의 R&D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맞습니다.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합 심의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 윤석열식 말장난이 아니라 강력하게 R&D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끊이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책임지는 교두보가 이 법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또한 35.3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그리고 현장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10배,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기부에서 R&D 시스템 대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의

진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이 되고 진짜 과학기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I 발전 그리고 정말 각국이 말 그대로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AI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있는 IITP에는 오히려 족쇄가 달려 있습니다. R&D 전문기관 중에서 IITP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IITP만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그로 인해 역량까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전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IITP 사찰·감사 건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가 벌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ITP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건은 정부 차원에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법안으로 조금 가닥을 타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IITP 독립법인화 법안은 제가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한미정상회담 후속 관련해서 말씀을 최형두 간사님이 하셔서, 사실 이번이 공식 실무 방문이고요. 그래서 과기부장관이 수행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이게 마치 과기부가 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길래 기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7월 14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고 과기부장관이 업무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거지요. 그래서 국가전략AI위원회가 곧 출범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형두 간사님이 하셨던 얘기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AI 관련한 중대한 시기에 실기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2소위에서도 많은 법을 다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할 일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일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간의 한계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과도하게 지적되는 것을 좀 우려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배경훈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준비한 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거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게 보니까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 7월 30일 날 제3차 비상경제 TF에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시하니까 5개 부처의 6개 법률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 국제과학벨트의 핵심 공간인 기초연구 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승인 없이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만 형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 있고 또 하나는 국제과학벨트 내에 외국인 전용 약국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전용 약국이라는 사실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 의무제, 그 위반을 굉장히 경미한 행위로 봐서 제재 수위를 과태료 부과로 완화 이런 게 주요 내용인데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 엉성해요. 7월 30일 날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만 들어서 제출했는데, 다음 PPT 9번.

이게 보면 이 똑같은 조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역시 있어요, ‘외국인 전용 약국의 표시를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양 법률에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한쪽 법만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검토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그 법은, 그거는 뭐 별거 아니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 코미디 같은 건데 이게 보여 주기식 입법이라고 하는 게, 11번 한번 보시지요. 이게 그냥 아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전용 약국에서 미승인 변경 사례와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또 법률 과태료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 웃기는 거는 외국인 전용 약국 같은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개설된 사례조차 없어요. 약국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데 이 법률……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아시겠습니까만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 보고 미리 어떤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법체계상 그렇다면 제대로 아까 경제자유구역 그것까지 다 고쳐야지요. 한쪽만 해 가지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요.

다음, 정부입법을 통해서 제출되는 이런 개정법률안은 일단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배 장관님도 부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률안은 보니까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그냥 대통령 지시 하나로 급하게 속도를, 보여 주기식으로 성과 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그래서 법체계의 일관성, 통일성, 단일 법령의 법조항 간 상호작용, 실시할 정책의 실익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걸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우리 기업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주려 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동물농장’ 소설을 떠올리게 하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 1분 더 주시니까 말씀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온 게 보면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됐어요? 지금 8월도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거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조하고 난 뒤에 그 뒤로 한번 보십시오.

배경훈 장관님, 기업에서 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런 법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난 25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어요.

또 현대제철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도 네이버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런 이중적인 행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려도……

○김장겸 위원 아니, 이건 기업인 출신인 장관님한테 물어본 거지 차관이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없으면 그만, 나중에 다시 질의응답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뭘 곤란해하세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하고 그리고 기업 측의 불합리한 규제도 푸는 것은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다음번에는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미리 사사를 받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혹시 위원장님,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김장겸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자구역법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관련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지난 5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는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법제처가 주관이 돼서 5개 부처 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 다리 아래라도 기졌다고 하신 분이예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 정상회담할 때는 안 지켰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인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공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펼치고 구현하려고 하는 실용적 정책이 때로 과거 진보 정부의 시각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자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 답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진심이 뭐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하 직원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이하 직원들, 우주항공청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성범 위원 오늘 웃이……

○위원장 최민희 그런 얘기 하시면 성희롱입니다.

○신성범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원안위원장이 질의가 하나도 없었던가요?

오히려 웨스팅하우스 건은 저희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알아 두셔야 돼요.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4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하는 추가 참고인은 김현 간사님 요청 분이구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참고인 요청을 하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인에 대해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장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민의힘 쪽의 참고인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의결할 건데요.

○김장겸 위원 아니, 지금 추가로 의결해도 이견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오후 2시 이후기 때문이에요.

○김장겸 위원 아니, 오후 2시라고 그래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십니까?

○최형두 위원 해야지요.

○김장겸 위원 간사님 오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의 있으십니까?’ 해서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표결하려는 순간 상황 발생해서요.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KBS 결산에 참고인 요청이, 물론 참고인이라는 게 통상 회의 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호 균형이 맞아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은 참고인을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참고인에 대해서는 상호, 참고인도 상호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 위원 증인이지요, 증인.

○최형두 위원 증인만 협의하고 참고인은 협의를 안 해서……

○김현 위원 참고인은 각자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에게.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들을……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KBS, 방송법도 바뀌고 또 부칙 조항에 따라서 새롭게 사장이나 경영진의 교체 가능성도 있고 그런 와중인데 벌써 KBS 내부에서는 노조에서 현 집행부를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성명이라든가 노조의 캠페인이 시작된 모양인데, 지금 방송법 때도 늘상 나오던 박상현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참고인으로 나와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지만 균형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충실히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라는 걸 하루 정도 여유를 두는 거하고 갑자기 지금 와서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거하고 상황이 달라서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동의 안 하시는 이유가 협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시간은 충분했는데요.

○최형두 위원 아니,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뒤늦게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도 부족하고 표결 수도 부족한데 이런 기회의 평등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미리 다 준비된 참고인이 저기는 대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불러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위원장 최민희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참고인 협의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일방적인 회의가 오후에 될 것처럼 보이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한 참고인은 PD협회장, 방송기술인협회장, KBS 기자협회장, 이견 결산을 함에 있어서 지난 2024년도 결산의 중요한, KBS의 재원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그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참고인이라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건데요.

사실 참고인을 요청하겠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서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함에 있어서 누가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회의에 필요하느냐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안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안 한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KBS 문제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영방송을 형해화 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정말 방송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을 문제 삼았던 이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결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PD협회장이나 방송기술인협회장 그다음에 기자협회장은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은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는 하등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명 MB노조라고 불리는 분을 참고인으로 부르시면 되지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동의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정말 하다하다 너무한다. 사실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싶지만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증인·참고인 일방적으로 부르고 의결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최소한 시간을 줘서 우리 간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참고인을 부를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부를 사람이 있으면 부르고 하는 그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표결하면 다 되겠지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침에 와서 들은 바 없다고 그러는데 김현 간사님은 웃으면서 그냥 ‘아, 그래요? 협의 안 했나?’ 이렇게 한마디 통치고……

○김현 위원 확인한 걸로 됐잖아요.

○김장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를 테니까 오후 2시…… 오후 2시면 지금 몇 시입니까?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오후 2시까지 해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 불러라 이 건……

예를 들어서 봅시다. 김의철 전 사장 나오는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다른 그 밑의 직원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접촉한 분들이……

김의철한테 해고당하고 피해당한 KBS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일방적인 목소리만 나가게 되고, 김의철의 목소리만 나가게 되고 비슷한 유의 목소리가 나갈 텐데 이런 걸 일부러 의도해서 오늘의 이런…… 아침에 이렇게 명단 우리한테 보여 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간사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해도 해도 너무한지 안 한지 제가 지금 다 전화번호, 전화 건 시간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김현 간사실에서 최형두 간사실에 연락했냐, 이 사실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전화한 시간까지. 없으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걸 이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노종면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당별로 또 위원별로 오늘 이 자리가 예정돼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 모르는 정당 없지요. 다 각자 준비하지요. 그래서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잖아요. 참고인이 필요하면 각 당에서는 간사를 통해서 참고인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 채택하자고 의견 내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누가 못 하게 했나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참고인을 불러 달라고 해서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요구해서 그게 통과되면 부르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이걸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귀 당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걸 꼭 물어야 되는 건가요?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는 정말 없는 건가요? 그냥 각자 준비해서 요구가, 필요 있는 분들은 부르는 거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정당 간에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지요? 위원들이 필요하면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의결이 되면 부르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진형 보좌관님,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박진형 보좌관, 최민희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8월 22일 오후 4시 이기정 보좌관이 국민의힘 보좌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랬고 8월 25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기정 보좌관이 국힘 간사 위원실에 가서 김의철을 추가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협회장들을 채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최형두 위원 이게 뭐……

○위원장 최민희 아니, 최형두 간사님 잠깐만 계세요.

여기에 거짓이 있습니까?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한 거 있습니까?

(○박재성 출입문 앞에서 — 보좌관이 저랑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가 아니라 첫 번째……)

○김현 위원 그렇지요. 통상 전달하지요, 전달.

(○박재성 출입문 앞에서 — 얘기만 나눴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얘기했지요.

(○박재성 출입문 앞에서 — 김의철이란 명칭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협회장들 채택하고 김의철 사장 추가하려고 한다……

○최형두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게 무슨……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이럴 일이 아닌데……

○최형두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보좌관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을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보좌관들이 저에게 거짓 보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끝까지 사실 확인을 늘 해요, 우리 보좌관이라도, 다른 경로로라도. 그래서 이게 팩트지요? 팩트로 보이고.

저도 사실은 김의철 사장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좋겠다, KBS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문하면 좋겠다고 참고인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데요. 그리고 어제 명단을 다시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러는 건 이걸 뭐 표결까지 할 일이나, 그냥 오후에…… 오후 2시 이후에 참고인 출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도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그 접촉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마저 하고요.

앞으로 양당 간사님들도요 누구의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간사님들은 말하겠단 그러면 무조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지역방송이 줄어서 평온합니다.

○김현 위원 ‘지역방송’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역방송이요.

○김현 위원 그것도 옳지 않은 표현……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김현 위원 아니, ‘지역방송’ 폄훼 발언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하여튼 사적인 대화를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마이크 켜고 간사님은 특별히 배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요.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두 분이 계속……

그래서 제 생각은 민주당이 추천한 참고인들을 지금 의결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분이. 그러니까 그분……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연락을 해 봤는데 안 된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줘.

그래서 국민의힘도 접촉을 해 보시고, 오후 2시 이후니까요. 저희 오늘 차수 변경하는 게 민주당 측 요청이니까 시간 될 때 나오시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의결 없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릴게요. 앞으로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정리할 때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간사 간 협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보좌진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 부덕이라고 한다면 제 부덕의 소치인데 다만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이 생기고 사실은 아마 김현 간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회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간사 간 협의 결과를 간단하게 문자로라도 또 문서로 해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는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쪽은 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귀로 흘러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그것도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참고인 부를 수 있지요. 다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부랴부랴 몇 사람 접촉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며칠 사이에 여유를 두고서 올 사람들 섭외하는 것하고 지금 한두 시간 앞두고 나올 수 있느냐고 독촉하듯이 물어보는 것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양쪽에서 균형 잡힌 이야기들, 평가들, 분석들이 서로 나오려고 한다면, 그래서 참고인을 부른다고 한다면 저희 당도 여기에 충분한 사전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협의 과정이 여러 가지, 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우리 쪽은 다른 안 때문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문서로라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문제로 차이가 없도록 하겠고.

지금 계속 김장겸 위원이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사람, 1노조, 3노조랑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노조 위원장은 병원에 있고 3노조는 다른 지역 일정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결국 참고인에 대한 질의 토론이 저희 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부른 참고인 의견과 달리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참고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상황은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참고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타까워서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냥 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그리고 우리도 되는 대로 할 텐데 오늘 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표결할게요.

○김현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통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먼저 의견을 공유하고요. 이견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했을 때 간사가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형두 간사님, 오늘 저 9시에 만나셨잖아요. 만났을 때 이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거나.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왜 나오냐’라는 그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아니, 참고인 생각지도 않았지.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연히 만나서도 중요한 의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신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나오냐’ 그 얘기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오늘 차수 변경한다고 해서 ‘차수 변경 왜 합니까?’ 내가 이랬잖아요.

○김현 위원 예,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수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증인·참고인이 있고 그래서 논의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좌관이 얘기를 했으면 최형두 간사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주당에. 오늘 만났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입니다.

○최형두 위원 이의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아차’ 이랬지요.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김장겸 위원이……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현 위원 민주당에 대해서 심한 표현을 쓰셨는데, 막말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나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나중에 복기하셔서요, 간사에 대해서 험하게 하는 부분은…… 최형두 간사님이나 저나 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참고인·증인을 포함한, 그 외에도 의견 조율하는 것은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별짓’은 취소하고 사과하게 해 주세요. ‘별짓’ 그건 오해가 풀리면 해 주셔야지요.

○최형두 위원 충분히 이야기 됐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위원장 최민희 자,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속기록 뽑아 오시고요. 그 워딩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동영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정동영 장관님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조인철 위원 아, 참석을?

○노종면 위원 아니, 참고인 의결.

○위원장 최민희 제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워서……

지금 참고인과 관련하여 표결을 할 것까지 없겠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동영 장관님이 출석한 이 순간에 일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정동영 장관님 여전히 과방위원이세요. 오신 김에 한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죄송합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참고인이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오후 10시에 나오셔도 됩니다. 계속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14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1시34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4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와 EBS 결산개요 보고를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KBS와 EBS 결산개요 보고를 나와서 하셔야 되겠지요. 우선 박장범 사장님 나오셔서 KBS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KBS 사장 박장범입니다.

먼저 KBS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KBS 경영실적과 방송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KBS의 총수입은 1조 3317억 원, 총비용은 1조 405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가 33% 증가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수신료 분리 고지의 영향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기 대비 335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위탁징수비 등 수신료 관련 징수비용은 179억 원이 증가해서 분리징수로 인해 손실에 끼친 영향은 5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고수입은 경기 부진과 지상파 광고시장 위축 등으로 전기 대비 290억 원이 줄었고 콘텐츠 판매수입은 제작비 축소에 따른 권리 유출로 전기 대비 30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경쟁력 하락에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겹치면서 KBS는 창사 이래 유례없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KBS는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해서 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재난감시 CCTV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화면을 판별해 내는 AI 기술을

도입했고 재난안전지도에 3차원 건물 정보를 추가하는 등 재난방송 기반도 확충했습니다.

또 부족한 예산과 제작 여건 속에서도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고품격·공익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는 공론장 역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2024년 저출생위기대응단을 출범시켰고 저출생 극복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했습니다.

KBS는 또 전례 없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한 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반납,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연차 전면 소진,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실시 등 자구노력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과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등 대형 이벤트 행사 등이 있었는데 제작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고 자원을 핵심사업에 재배치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저는 지난해 12월 10일 KBS 사장으로 취임해서 위기 극복과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수신료 통합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수신료 통합 징수가 어렵게 복원되기는 했지만 KBS의 구조적인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KBS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전사적인 긴축경영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혁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제작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AI 정책 사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방송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수신료가 올바르게 쓰이고 그 가치가 분명히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 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경영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결산 보고받으시겠습니까, 문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대체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사장님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EBS 2024회계연도 경영실적과 결산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 공영방송사의 책임자로서 한 해의 성과와 과제를 엄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2024년 급변하는 미디어와 교육 환경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지식과 교육 콘텐츠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과 교육을 양 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방송 영역에서 EBS는 교육다큐멘터리의 대전환과 AI 퍼스트 전략을 축으로 공영성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다큐프라임의 제작 프로세스 혁신과 교육혁신, 저출생 극복, 독서 증진 등 사회 의제에 대한 대기획 편성은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본령을 견지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넉넉지 않은 제작비에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전력을 다한 결과 초저출생 인구위기 TF팀이 한국PD대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특집 다큐멘터리 ‘탈탄소의 시대가 온다’, 노벨문학상 특집 ‘한강전-그녀의 일곱 인생’, ‘다큐멘터리 K-우리는 선생님입니다’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국내외 수상을 기록하며 콘텐츠의 품질과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EBS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라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디지털 전환으로 학습 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인 AI 단추플러스를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 말하기 학습 지원 AI 팽톡을 통해 영어 학습 문턱을 낮추고 가정·학교 연계 학습의 실질을 높였습니다. 중학생 대상 EBS 중학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여 학생 1인당 연간 71만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교육격차 해소와 자기주도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하도록 EBS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EBS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3084억 원, 총비용 3068억 원으로 EBS는 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199억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자 경영은 공사 전 구성원이 2022년도부터 3개년간 비상경영 체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 집중하고 전사적인 비용 절감과 AI 교육서비스 및 구독 등 신수종 디지털 수익 창출의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EBS는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EBS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식을 열었고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노동의 질 향상과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시대 교육방송의 책무를 다하고자 여러 실천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AI 교육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 2분기 예산 실적을 점점한 결과 올해도 흑자 경영이 이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EBS는 지속적인 원가 및 경비 건축 등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고 AI를 전면 도입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관행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전사 AI 퍼스트 전략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EBS법의 후속 이행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BS가 더 큰 공영성과 공공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최기화 EBS 감사입니다.

김성동 부사장입니다.

남선숙 방송제작본부장입니다.

유규오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입니다.

박창홍 융합기술본부장입니다.

서동원 사업센터장입니다.

홍정배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김광호 편성센터장입니다.

곽태규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정진성 영상아트센터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을 시간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장겸 위원님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하다하다 너무한다. 사실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싶지만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증인·참고인 일방적으로 부르고 의결하는 것 다 좋습니다’, 김장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셔야 되는데요.

‘정말 하다하다 너무한다’부터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게요’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간사실 간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별짓 다 한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별짓도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김현 간사님에 대해서……

○최형두 위원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점잖으시고요. 김현 간사님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정말 여러 분이 나서서 김현 간사님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아 온 거고, 솔직히 민주당 위원님께도 마음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맞겠다,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게 낮겠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오늘 벌어진 이 참고인 문제는 김현 간사실의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간사실 협의 절차 다 밟았는데 사실 여기 ‘별짓 다 한다’ 이게 전부 보면 유일하게 언급된 분이 김현 간사님이기 때문에 김현 간사님을 비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너무 우리 편, 네 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곤란하니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김현 간사님께서 사과받고 싶어 하시니까……

○**김현 위원** 아니, 속기록 삭제해요.

○**위원장 최민희**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사과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요청드렸는데 국회법상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실로부터. 그래서 사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요.

○**김현 위원** 재발 방지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제가 마무리하고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김현 간사님이 요구하신 사과는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팩트가 아닌 것으로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2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간사고 또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물론 또 그런 일이 유사하게 생기면 제가 대응을 하겠지만 심하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저를 공격하는 수위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께 각별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간사 간의 협의가 좀 미흡한 것은 미흡한 대로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 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도를 넘어선 발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주의 조치와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간사 간의 협의를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다음에 김장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맥락을 살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김장겸 위원이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현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

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방송법까지 다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의결되고 한 마당에, 저희들의 필리버스터들도 다 무력화되었고 이런 마당에 참고인조차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느끼지만 시간상 우리가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하느니 간사로서 제가 앞으로 여당 간사와의 협의에서 빈틈이 없도록,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본질 흐리기하고 방송법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단순 명쾌한 사안이에요. 김현 위원님 간사실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아까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제가 공개를 못 해 드렸는데요.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민주당과 김현 위원을 모욕했으면 그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법은 별개고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 방송법 처리 못 할 거라고. 못 한다 하더라, 용산에서 반대한다 하더라. 박정훈 위원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혼자, 뭐 어쨌든 민주노총 운운하면서 비난했잖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받으시고 나니까 왜 말을 바꾸십니까? 대통령이 절대 안 받을 거라고 신성범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신성범 위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신성범 위원 누가?

○위원장 최민희 방송 3법 운운.

○최형두 위원 아니,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요 잘못된 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요 김현 간사님, 오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및 방송광고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735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적자 폭도 커지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재무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 검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별적 검토사항으로 수신료수입,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735억 원 발생하여 2024회계연도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본잠식 등 존립 위기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의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수입의 경우에 2025년 10월부터 수신료 통합고지가 재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대비하여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지 방식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최근 OTT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의 콘텐츠판매수입은 산업 전반의 성장세와는 달리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제작비 감축과 권리 확보 한계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대응 전략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콘텐츠수익 기반 회복을 위해서 제작비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대손상각비 급증으로 인해서 증가하였는데 대손충당금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수 관리와 매출 채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는 긴축경영 기조에 따라 자본예산을 감축하고 집행실적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장기적 성장동력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향후 자본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 법정 의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24회계연도 흑자 전환 등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는 교육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기인한 것으로 방송광고 및 수신료 수입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서 구조적 수익성 확대와 내실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개별 검토사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생산성 지표, 안정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 개선의 상당 부분이 교육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수익성 확대와 내실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손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흑자 전환과 손익 개선 등 일시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수입과 수신료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익구조에 대한 장기적 개선 방

안 마련이나 조직 체질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향후 방송광고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출판, 디지털구독, AI·에듀테크 등 교육 콘텐츠와 연계된 부가수입원과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사업 등 비영리 중심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하는 등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단기적으로 국가보조금 예산의 집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체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출판사업에서 폐기비용 감축 및 재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정책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수요예측 및 제작관리 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의 요청에 따라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박장범 사장님, 몇 가지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공기업이나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동의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이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동의합니다.

○**이준석 위원** 과거에 MBC의 안형준 사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같은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취임 몇 개월이 지났는데 KBS 사장으로서 성과를 낸 부분이 무엇이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12월에 취임한 이후에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서 도저히 수신료수입 감소를 감당해 낼 수가 없었는데 김현 의원님께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지난 4월 찬성 212명으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제가 제일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방송 혁신 관련해서는 AI 방송 원년을 선포하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현실적으로 KBS 사장을 하시다 보면, 방송 일을 계속하셨으니까 방송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강조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제도개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인지, 말 그대로 사람을 바꾼다고 KBS의 경영실적이 확 증가할 것인지, 해 보니까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무래도 수신료 관련은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준석 위원** 사장 취임을 계엄 이후에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제가 12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사장으로서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지난 취임 기간 동안에 KBS 보도의 편향성이 문제된 적이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별히 크게 문제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업에서 일하는 기자, PD 그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최근에 KBS에서 제작했던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 준 좋은 사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사회에 시의적절한 문제를 던지는 이런 취재나 보도를 추가로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7월에 방송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KBS가 공영방송으로 어젠다 세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기획 프로그램 ‘트랜스휴먼’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나갑니다. AI 시대에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가라는 걸 조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까지 제가 과방위원 하면서 결국 KBS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제작비용은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인력을 급히 줄일 수도 없고 결국 이런 삼중고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서 AI를 제작환경에 많이 도입하는 것이다. 아까 사장께서도 AI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KB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사극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AI 제작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저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하사극 ‘문무’를 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대하사극에도 AI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제작비를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이준석 위원** 이걸 제가 김유열 사장님께도 공통으로 이따가 드릴 질문인데요. 우선 KBS 쪽에다가,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술이 있는 기업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외주제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맡길 테고 할 텐데 그러면 KBS 내에서 이런 AI 제작기술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방송 전문가들은 많은데 사실 AI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AI 기술혁신 자문위원을 선임했고요. 구체적으로 더 제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중요한 거지만 방금 사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의 성격이 완전 다른 인력들을 KBS에 편입시켜야 되는 것일 텐

데 그러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확장적인 채용 정책, 예를 들어 AI에 밝은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국회에 제안하고 그리고 국회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젊은 세대 중심의 AI 특화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4년 만에 올해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고요. AI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이준석 위원** ‘AI 관리 인력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으로 미디어기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촬영 아니면 PD 이런 역할 외에도 사실 이게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직군으로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AI 인력도’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약간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준석 위원** 김유열 사장님께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EBS가 이런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전담조직은 지난 1월에 조직을 해서 100% AI 기술로만 제작하는 제작팀이 융합본부 내에 신설이 됐고 지난달부터 AI 기술로만 사용된 방송편성을 ‘AI 단편극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AI 하면 방송 부분이 있고 학교교육 부분이 있는데 학교교육 부분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도 하고 있고 과거에 몇 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정 여건상 사실은 AI 전문인력을 공사의 임금 기준으로 채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정말 최고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재 공사 임금구조로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그래서 두 분 사장님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국회에 제시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는 사실 AI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지금 AI를 양사에서 도입하려고 했을 때 렌더링 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적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인력 확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공채로 뽑기 시작해도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소 재정에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해야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이진숙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양대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챙길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박장범 사장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우리가 내란으로 부르는 그 사건에 반대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존중하는 입장이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현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부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윤 어게인 정치세력에도 반대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특정 정치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찬반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윤 어게인이라는 정치 지향은 조금 전에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못 밝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 내란죄 판단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밝히지요? 너무 명확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정치행위 아닌가요?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지, 그런 규정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네요,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12월 10일 날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 취임사가 ‘지 난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노종면 위원 윤 어게인 세력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

○노종면 위원 답변 못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KBS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내부 인사가 사전 협의 내지 공모 내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 근거 없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통합뉴스룸국장, 다른 회사의 보도국장 격인 최재현 국장께서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온 것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 준비가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그 부분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판단이에요, 확인이에요? 회사 차원의 확인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가 고발을 한 사안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입장이 있는 거냐고요. 모른다, 아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닌 걸로,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여쭙보냐 하면 회사가 진상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판단을 했으면 그걸로 족한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이 어떤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관련자가 나왔을 경우에 사장께서 또는 KBS 법인 차원에서 내란과 연관돼 있는 자들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두둔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무관하다고 확인하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비상……

○**노종면 위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판단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관련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을 하신 것은 회사 차원의 판단이고 사장으로서의 책임질 판단이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조만한 파우치라는 발언을 하신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알게 된 상황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사장이 되시기 전에 한 발언인데—박장범이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못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른 데에서 성명 내고 하는 것 다 보시는 것 같은데, 박장범이 옳았다라는 그런 성명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김건희가 받은 뇌물 지금까지 특검에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통일교 쪽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로부터 8000만 원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그리고 서성빈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백, 목걸이, 시계, 브로치, 귀걸이 등등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박장범 그 당시 앵커가 얘기했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것이었구나, 이런 취지에서 박장범이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못 들어 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못 들어 봤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평가가 소위 말하는 희대의 아부, 권력자가 받은 부당한 그런 명품으로 불리는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부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부에 대해서 이 권력자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드러나면서 반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치인이 평가를 하면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조만한 파우치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작다고, 작다고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부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을 받아 챙긴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어지는 질의에서 이렇게 사장에 취임하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후에라도 잘했는가, 제가 이후 질의를 통해서 박장범 사장 취임 내내 계속 불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당부드리겠습니다만 KBS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신력이고 그 공신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직위 한 사람만 뽑자면 사장일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오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1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박장범 사장이 지금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호칭을 쓸 때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한 질문도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름을 쓰지 않을 건지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같은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러면 성함을 다 말씀……

○**김현 위원** 까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국민이 볼 때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립을 지키려는 과장된 행위를 하는데 위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결산심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요지는 노종면 위원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지요?

○**김현 위원** 노종면 위원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노 위원이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님 자 안 붙이셔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노 위원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가급적 노종면 위원이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걸 별거 아닌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위원장 최민희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KBS시큐리티에 관련하여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첫째는 업무 인원이 몇 명인지, 두 번째는 업무가 무엇인지 빨리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위원장 최민희 박총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총권 위원 박총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지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마디로 동의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항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박총권 위원 동의 못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박총권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난해 12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박총권 위원 한 9개월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박총권 위원 임기가 3년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박총권 위원 27년 12월까지 아마 임기가 보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 자율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총권 위원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방송법 부칙이지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분명히 사장 교체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사장님께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속수무책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총권 위원 지금 사장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임명이 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돼 갖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장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법적조치 할 계획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송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이고 KBS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KBS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분들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박충권 위원 법적조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적조치를 포함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단다.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 법의 부칙 4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4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했던 군부독재까지 따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이런 위헌적 입법 폭거가 지속이 된다면, 이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서 사장을 내쫓는 이런 악습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응을 철저히 해서 가지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어제 방통위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박충권 위원 방송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편성위를 구성하는 종사자 범위 그리고 이사회 추천 단체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방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같은 세부사항의 규정들이 확정돼야만 지금 공영방송의 새 이사회를 구성하고 추후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정도의 위중함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중대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1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최소한 2인 이상이 구성이 되면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이게 빨리 시행이 되려면 방통위의 5인 체제가 복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위원들 추천하고 대통령 몫을 또 임명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위원 몫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구성이 돼야, 말씀하신 대로 최소 2인 이상 돼야 이게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민주당이 현 공영방송 이사회를 가장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대통령께도 앞에서 직접 대통령 몫 상임위원 임명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수차례 국회 몫 3인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회를 지금 빨리 교체하고 싶은데 방통위는 마비돼 갖고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 체제는 싫고 새 이사회는 빨리 구성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온갖 모욕을 주고 수사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인 체제를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 왔지만 이 체제를 해소하려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 주시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해소가 되지요. 그러면 민주당 의도대로 새 이사진이 꾸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주 대다수가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대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것이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라든가 직접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지난 7월 22일에 단통법이 폐지가 됐는데 후속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고 고시도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은 주야장천 얘기하셨어요. 민생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의결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 신경이나 씹니까? 오로지 지금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 사안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그리고 민주당 측에도 요청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가지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자꾸 팩트체크를 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개인 방송하지 말라고 말  
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법의 부칙은 ‘이사회를 구성한다’입니다.

모두들 자존감을 좀 가지십시오.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체제를 평가해서 일을 잘했  
다, 비록 초기에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방송장악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일을  
잘했으면 새 이사회가 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사회에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그걸 마치……

○박충권 위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팩트체크하고, 야당 위원들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팩  
트체크하고……

○김현 위원 뭐가 항상이고……

○박충권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의회 독재인 거예요, 의회 독재.

○위원장 최민희 중단하십시오.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 회의 진행하는 거 끼어들지 마세요.

○박충권 위원 계속 몰타기하고 논리를 흐리고……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까? 제가……

○박충권 위원 위원장에게 위원에 대한 평가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자격 주신  
겁니까?

○김현 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최민희 어디다 손가락질까지 하고 이러십니까? 중단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팩트체크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위원장은 팩트체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진숙 체제가 싫어서 민주당이 위  
원 추천을 안 한다’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저를 손발 묶어서 7개월 7일을 놓고 임명하지 않았  
을 때 국민의힘 쪽이 임명하라고 얘기 한 번 했습니까?

○박충권 위원 그 얘기는 이제 식상하십니다. 그거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뒤로? 2년  
됐어요, 2년.

○위원장 최민희 얼마나 지났다니요. 나가세요, 그러면.

○박충권 위원 그거 언제까지 우려먹으실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퇴장하세요.

○박충권 위원 뭘 퇴장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퇴장시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뭐 하십니까!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박충권 위원 팩트체크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있단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가만 계세요, 다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리고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다뤄진 사안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무슨 문제가요? 저에 대한 문제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최민희 제 문제가 무슨 헌법재판소의 의제로다가……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야기하셨던 7개월 늦었던 것은……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회의 진행에 대하여 분명히 위원장이 정리할 때 끼어들지 말라,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질문할 때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박장범 사장님이 잘 답변하시잖아요. 박충권 위원님은 잘 파악 못 하셔도 박장범 사장은 그 부칙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세상이 바뀌니까 마치 본인이 독립투사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씨의 모습을 이 상임위에서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면서 속옷으로 반항하면서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마라, 그거는 독립투사들이 일제강점기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방송장악을 앞장서고 낙하산으로 날아오고—파우치 발언으로—그런 위원장과 그런 사장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까? 기가 찹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국민주권시대가 왔더라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국민의 손에 의해서 사장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정말 창피한지 아십니까.

박장범 사장의 취임 직전에 전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도 됐고 6·3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불과 수개월 전에 대한민국 집권당을 했던 국민의힘의 당에 극우세력을 등에 업은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당대표 일성이 뭘 줄 압니까?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윤 어게인, 아까 나왔지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그분을 지지한 사람이, 전 모라는 극우 유튜버가 뭐라고 합니까? 계엄은 계몽령, 탄핵은 반대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돌아오라,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명심들 하십시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 사장, 이 명품들 다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하나는 김건희 씨와 연결된다는 거고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박 사장,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썄,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대가성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었던 영부인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대가성 뇌물입니다.

이 물건들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각이 달라요.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는 서희건설 회장이 전달했는데 만사위는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이 이름도 저에게는 생소한 시계 갖다 준 사업가에게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샤넬백과 목걸이는 통일교에서 YTN 인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지요, 매관매직 비즈니스.

지금 세간에는……

다음 PPT 보세요.

김건희의 이러한 대대적인 매관매직 비즈니스의 언론 편에 박 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 사장은 2024년 10월 23일 면접 전날…… 박 민 사장이지요, 당시는.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변변한 보직조차 없었던 박 사장이 일거에 사장후보로 등장하는 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류희림,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 ‘분’자 취소합니다. 이 사람은 KBS 입사 동기인 고대영 씨와 친분이 있습니다. 고대영 씨는 박 사장의 예전, 박 사장이 비서실장하면서 보좌했던 사람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거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박장범 사장이 몸담고 있는 KBS에서 이런 성명이 나옵니다,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의 관계 여부를 수사해라’.

이 성명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봤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 성명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경영진 입장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 경영진 입장을 보니까 팩트체크도 안 된 경영진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데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매관매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씨와 연관되어 파우치 박장범 관계를 수사하라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선임됩니다.

○한민수 위원 그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혹을 구성원들이 성명을 통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절차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에서 성명 내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입니다.

○한민수 위원 말을 피해 가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장범 사장 일가가 단 하나라도 김건희 일가에게 부당하게 매관매직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범죄 혐의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민수 위원님, 일가라는 표현이 됩니까?

○한민수 위원 뭐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박장범 일가’라고 하셨는데 박장범 일가라는 표현이.....

○한민수 위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더 드릴게요.

○김현 위원 질의할 수 없어요, 질의할 수. 질문할 수 없어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답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런데 태도가 왜 그러세요?

○김현 위원 눈을 흘기지를 않나.....

○위원장 최민희 여기 싸우러.....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눈 흘겨 뜨지 않았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충권 위원님의 태도에 고무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지금 박장범 사장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크게 답변의 실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위원장님,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 2분 드리고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다시 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KBS 노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 보셨다고 하셨지요? 성명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거나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그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지금 그 입장을 제가 두 번을 물어봤는데도 밝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KBS 노조의 성명에 대해서 전혀 허황되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의 성명에 대해서 일일이 사장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진

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수 위원 여기서 하실 얘기를 해 보세요, 명확하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혀 사실이 아닌……

○한민수 위원 노조의 성명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실이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추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장범 일가라고 하니까 좀 그러면 박장범 사장과 박장범 사장의 가까운 주변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김건희 씨와 또 김건희 씨의 일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가 됩니까?’ 발끈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답을 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민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민수 위원님, 일가라는 표현은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민수 위원 그것 들어가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가족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오케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실도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오케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질문하려면 제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한민수 위원 뭐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가족을 끌어들이려면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도 제시하시고 하셔야지요.

○한민수 위원 한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더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어떤 근거가 있길래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한민수 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증거를 대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을 하라고 한 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얘기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내가 지금 일가가 김건희 씨 일가에게 뇌물을 줬다고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혐의를 물어봤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왜 발끈을 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민수 위원님, 차라리 구체적인 걸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애 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말곤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한민수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처럼. 그렇지요?  
확실하게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PPT도 보여 드렸습시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관계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관련이 없다고 확답을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청문회 때부터 계속 그 같은 화면을 보여 주시는데……

○한민수 위원 아니요, 좀 달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박장범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고 그 KBS 노조에서 밝힌 매관매직 의혹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그 입장은……

○이상휘 위원 아니, 질의시간을 얼마나 쓰는 겁니까?

○한민수 위원 아니, 계속 답변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다 지금 끝나 갑니다.

○이상휘 위원 나도 좀 바빠요.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들었으니까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이상휘입니다.

제가 참 듣다 보니까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평상시 질의가 좀 선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시다라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시간에 또 마이크 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끝났는데 ‘극우세력이 대표가 됐다’ 이런 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 일성을 들어 보세요, 그 대표의 일성을.

○이상휘 위원 대표의 일성은 정치적 레토릭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상임위장에서 전당대회 이제 끝났는데 극우세력이 대표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 그게 왜 매도입니까? 그분이 그동안 캠페인 과정에서 한 거를 한번 보세요.

○이상휘 위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좀 매너는 잡아야지요.

○한민수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끼어들지 않겠습니다만 매도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는 이따 7분에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두 분이 더 대화하세요. 할 말 더 하세요. 이거 의사진행발언의 일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상취 위원 예, 아무튼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 끝에 정치라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산고를 겪고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고요. 우리 한 축이 또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en's agreement)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협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좀 선동적인 정치적인 레토릭은 상임위에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박장범 사장님.

○위원장 최민희 시작하세요.

○이상취 위원 매관매직이란 말이 뭘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취 위원 돈으로 또는 금품으로 직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쾌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취 위원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매관매직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취 위원 돈 주고 KBS 사장 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의 성명서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이상취 위원 그것도 레토릭 차원이니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취 위원 매관매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KBS 전체를, 노조의 성명이라 할지라도, 그 노조가 어떤 발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 전체를 능욕하는 거예요, 이거. KBS 사장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취 위원 1년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직 취임한 지 1년 안 됐습니다.

○이상취 위원 제가 1대 홍경모 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장범 사장님까지 임기 쭉 보니까 총 스무 분이 사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우리 박장범 사장께서는 27대 사장이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명 정도의 KBS 사장이 역임이 되었는데 중도 사퇴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확히 모릅니다.

○이상취 위원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청문회가 시작이 된 게 고대영 사장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고대영 사장 이후에 다섯 분 임명이 됐습니다. 중도 해임이 세

분 됐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거 왜 이렇다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본적으로 KBS 사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여당이 KBS 사장 교체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KBS 사장이기 전에 언론인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휘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KBS가 언제 이렇게 전리의 노리갯감이 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임기 채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송 3법 지난주 국회 통과했는데 이게 공포 즉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휘 위원** 그러면 3개월 내에 KBS하고 방문진하고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우리 박장범 사장님께서 임기 못 채울 것이다, 방송법 되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들으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박민 사장이 1년 안 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확히 재임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보기엔 1년 채 안 됐습니다. 11개월 정도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박장범 사장님도 1년 못 채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송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정해 놓은 법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독립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존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법에 정한 대로 계속해서 임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장 직위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지요.

○**이상휘 위원** 지금 1년 정도 채 안 됐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신 정책이라고 그럴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경영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고 하반기부터는 AI 방송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가장 치적이라고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치적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결국 수신료 통합징수 다시 한 게 가장 치적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국회에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기에 때문에 20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시다.

○**이상휘 위원** 이 수신료 통합할 당시에 KBS 내부에 노조라든가 충분히 의견을 숙의했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통합징수 법안 통과에 노력할 때요?

○**이상휘 위원** 노력할 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때는 4개 노조 그리고 8개 협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지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통합징수 됐을 때 4개 노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들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당연히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의 기반, 기틀을 다시 한번 마련한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하고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분리징수 계속됐다 그러면 KBS에 대한 재정적 위기 올 수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분리징수로 인해서 한 해 1000억 원가량 저희가 손해가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수신료도 45년간 정채돼 있는 상황에서……

○**이상휘 위원** 그 당시 시청수신료 통합징수 할 때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고 찬반,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이 그러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자칫하면 수신료 통합징수로 인해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수신료는 저희 KBS 재정의 근간이고요. 사실 사장이 바뀌느냐 여부, 정권이 바뀌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늘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KBS 사랑하시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수신료 말고도 이 계산 자료 보니까 방송법 개정안 통과 안 되면 KBS에 위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수신료 외에도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만들어 봤을 것인데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적 구상을 하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제작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정규 편성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일반 프로그램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정규 프로그램들은 제작비를 좀 긴축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KBS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장범 사장님,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언제까지 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시큐리티의 인원과 업무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가셨는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일성을 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가 일성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 수단에 폭력이 들어가면 극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할민수 위원이 저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하여 국민들이 좀 헛갈리실 것 같아요. 집권하자마자 가

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서 한 게 수신료 분리징수였고요.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문제된 것이 이 자리에서 수차 지적되었고요. 그때 국민 의힘 의원들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매우 헛갈리실 것 같아요.

박장범 사장께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일은 없었지만 김현 간사가 수신료 통합징수안을 냈을 때 막판에 열심히 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가지고 통합징수, 분리징수 이게 의제가 됐었잖아요. 그걸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한 거예요, 분리징수로. 그걸로 인하여 KBS가 재정적 손실도 겪었지만 국민들의 혼란도 매우 컸고 지금 이 순간에도 KBS에 분리징수하려면 어떻게 하나 문의전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 뒤에 KBS 종사자들께서도…… 이게 주로 보수정부에서 밀어붙이잖아요. 민주정부는 하지 못합니다. KBS 내부가 반대하면, 조금 누군가 얘기하지만 민주당 전체가 최소한 재정 가지고, 밥줄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강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수신료 분리징수 건이 이 자리에서 의제로도 올라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저 뒤에 계신 KBS 종사자들 그리고 방통위 직원들, 그때 방통위도 단 한마디 반대 없었잖아요. 그 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 거잖아요. 밥줄 가지고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십니다.

강윤기 KBS PD협회장이십니다.

김승준 KBS 기술인협회장이십니다.

박상현 KBS 본부노조 본부장이십니다.

이승철 KBS 기자협회장이십니다.

(인사)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참고인 정해지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방송법에 대해서 사장은 자기 임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혹시 언제까지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황정아 위원 12월 9일까지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장범 사장님, 지난해 12월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대행들이 위헌적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우여곡절, 재표결 끝에 겨우 올해 4월 통과가 되었습니다. KBS는 통합징수법에 대해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재표결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내란 대행들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때 결합징수가 됐으면 KBS 재정이 좀 더 일찍 안정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당이나 대통령 혹은 다른 정치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KBS 사장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통합징수법에 관련해서 본인이 한 일도 없는데 공치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태를 벌인 자들을 비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 사장 자리가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먹는 뷔페 식사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박장범 사장님, KBS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오늘 방송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하위 법령 제정 이전에라도 최소한의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이게 국회 통과되고 나서 바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가령 예를 들어서 새 방송법에 의하면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5 대 5, 사측이 추천하는 5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되는지, 선임이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방통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측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서는 KBS는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하셨고 정작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률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실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뭉개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본인의 자리가 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장범 사장이 지금 개정 방송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혹시 방송법을 안 따르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부칙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정아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3개월 안에 KBS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이사진이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현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훤히 보이는 지금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거라는 뜻인가요? 준비하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적 자문을 받는 게 준비라고 하면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 본인의 경영 성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법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우산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법을 인정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고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아닙니까?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

는 않겠지요. 권력자에 납작 엎드린 불명예스러운 언론인인 파우치 박장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사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시지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언론계의 염원에 부응한 이 법 자체를 부정할 명분은 없습니다. 윤건희 호위무사인 박장범 사장의 사익뿐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지 개인의 방송이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소송전에 뛰어들 작정이라면 오로지 박장범 개인이 그 후과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KBS의 예산, KBS의 인적 자산, KBS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라도 활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난해의 가슴 아픈 일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 메시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한겨레에 단독으로 나온 2025년 8월 6일 자 카톡방 메시지 스크린샷 해 놓은 겁니다. 몇 가지만 읽어 보면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는 교훈을 모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 잘못된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박장범 사장님, 혹시 이 카톡방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난해 조그마한 백, 김건희 여사의 백 관련해서 명품수수 가방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 아무개 직무대리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 카톡방에 남겨 놓은 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받은 조그마한 백 때문에 어떤 공직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동일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지난해 대통령 인터뷰에서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 이런 표현을 하셨고 시계 몰래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셨고 이것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으로 폄하했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그 표현이 진짜 맞아 보입니다. 그 문제의 파우치는 최근에 다 드러나는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으로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란히 구속돼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인철 위원** 두 분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구속된 거 말씀하시는……

○**조인철 위원** 예.

김건희 씨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감싸려고 했던 건데, 두 분이 나란히 구속이 됐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불행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불행한 역사지요.

본인이 그렇게 감싸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단 이 조그마한 백이라는 것, 파우치는 상품명이고요. 여러 가지 백의 종류 가운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파우치라고 통칭합니다. 제가 그 상품에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조인철 위원**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백, 의전과 경호의 문제, 정치공작의 희생자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을 갈아 끼우셨어요, 사실상.

누구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양심을 어찌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김건희, 윤건희 이 두 부부가 저 지른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법이 시행됐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공포됐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방송법의 위헌성을 다뤄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그것의 위헌성을 다룰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고가 되시는 겁니까? 누가 원고가 돼서 검토하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 자문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본적으로 방송법 부칙조항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현재 이사들이 3년간의 임기 중에 있는데 그 임기가 단축돼서 퇴진하게 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저 역시 방송법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서 사추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

○**조인철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률 사항이잖아요. 법률이 개정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거든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KBS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망가져 왔잖아요? 그래서 결산 사항들 다른 것

봤어요. 재무 상황 봐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훨씬 나빠졌습니다. 오늘 결산 인사말씀에도 보면 한 게 없습니다.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서 어떤 수익 증대 노력을 했다는 것 보다는 구조조정을 했다, 부장급 간부들 이상 임금 삭감·반납, 무급휴직…… 이런 게 다 아니잖아요. 수익을 늘려서 불륜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KBS를 더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더 줄이는, 쪼그라뜨리는 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더 지키겠다, 더 키우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보면 굉장히 우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해 온 게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 여쭙봤습니다. 사장으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KBS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물었는데 그때도 한말씀도 못 하셨어요.

결국은 오늘 결산 내용을 봐도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2025년 상반기 결산 내용을 봐도 특별하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2024년 것은 내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반기 내용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쪼그러들고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조인철 위원님, 제가 헌법소원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송법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공영방송 이사 및 경영진,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사장이 바뀌어 온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에서 보장된 3년 임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 역시 KBS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인철 위원** 뒤에 김의철 사장님 계십니까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나가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런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인철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의철 사장 이전에는 고대영 전 사장이 있었고요. 고대영 전 사장 이전에는 정연주 사장도 계셨습니다. 중간에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역사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조인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추가로 드렸습니다, 위원님.

○**조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황정아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그리고 박장범 사장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생겨서 바로잡습니다. 방송법 부칙을 꼼꼼하게 다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될까 봐 드리는데요.

지금 누군가 얘기했듯이 3개월 뒤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몇 개월 후에 다시 구성한다 이것은 이번 방송법 부칙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통합방송법에서는 부칙 제5조에서 이사회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3개월 이내에

새 법에 따라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을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통합방송법입니다. 이번 법은 이사회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것 헛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권상 사장이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때 임기를 2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박권상 사장의 경우는 다시 선출돼서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3년 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바꾼다는 게 현직 사장을 내보낸다는 뜻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그때 박장범 사장도 다시 응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가에 따라. 그래서 헛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답변은 왜 공영방송 이사회, KBS 이사회의 헌법소원을 박장범 사장이 검토하십니까? 그것 검토하시면 안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저는 사장으로서는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사장은 없다니까요, 임기를 마친다는 것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법적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장은 그만두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니까 생각을 조금 하시고 답변하시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아닌데 사장이 관여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사 다 바꿨는데 그때는 위헌 논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법 우선으로 모든 게 정리될 것이고요.

이제 혼동하지 마십시오. 같은 질문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방송 3법 제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말씀대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최수진 위원** 그런데 결국 이사회 구성 확대하는 법안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6명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게 해 뒀고 또 9명은 외부 단체, 결국은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외부 단체로 늘려 뒀습니다. 시청자위원회 둘, 임직원 셋, 방송학회 둘, 변호사 단체 둘. 그래서 여기서 민변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추정하건대 13명 정도는 민주당 주도의 KBS 이사회 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이사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그 인사들이 구성됐을 때 사장은 당연히 쫓겨나는 것 아닐까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본인은 여기서 연장을 하실 것 같습니까, 쫓겨나실 것 같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연장이 아니라요, 저는 방송법에 따라서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진 위원** 방송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방송 3법,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는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 이 신법에 따라서 임기를 다시, 3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실 것 같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여쭙보신 거라면 저는 기존의 전례에 따라서 볼 때 사장 교체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BS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정권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어떤 위헌성,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최수진 위원**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언론탄압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을 강행하겠다 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도입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결국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법원 판단하에 인정해야 한다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중대한 산업재해나 제품 결함, 은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고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자칫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사례에 대해서 실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실제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최수진 위원** 해외 입법사례 보고서를 봤을 때 미국을 뺀 전체에서는 없습니다. 미국

자체도 실제로 그 법에 우려를 해서 판례 수준에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2021년에, 아니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를 했으나 그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도 그런 의견을 밝혔지만 당초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언론, 최근에는 뉴미디어에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만 자칫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나 보도에 있어서 위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모욕,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처벌 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언론에 대한 과도한 이중 처벌이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가짜 뉴스, 허위를 가장 잘 만들어 내는 것은 김어준의 가짜 뉴스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실제로 일본 오염수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고의, 일부러 침몰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악용하지 않고 진짜 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먼저 기존에 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낙선했을 때도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으면 왜 갑자기 이렇게 언론의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미국의 경우 케이블채널 뉴스맥스가 외국 연계해 집계 조작했다는 보도를 해서 930억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이 징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부터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징배법은 문체위 소관입니다.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방송과 관련된 일이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시는데 알려는 드러야지요.

○**최수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본인에게 알려 드리는 것 아니고요.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언론중재위법은 문체위 소관인데 과방위에서 왜 하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박장범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명품 디올



백을 두고 조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명에 디올 파우치였고요. 보통 언론에서 표현할 때 명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품명에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최고권력자,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과 언론인들이 사장님을 두고 아직도 ‘파우치’ 또는 ‘파우치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 당시에 박장범 앵커 인터뷰로 박민 체제의 KBS가 권력의 푸들, 공영방송이 아닌 국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 후 KBS 사장이 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연말에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이주희 위원** 그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수석과 같은 행보 많이 보이셨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판결은 여러 가지 엇갈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법한 2인 체제로 방통위가 KBS 이사들을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다시 박장범 후보자를 선택했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2인 체제에 대해서 당시 KBS 이사 그리고 사장후보자인 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주희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KBS는 공영방송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이주희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방송,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주희 위원 헌법과 방송법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지난해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동영 위원님의 저널리즘 어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요, 저널리즘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 2015년에 나왔는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못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마틴 배런 편집장입니다. 이 사람이 저널리즘과 탐사보도에 대해서 한 발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마틴 편집장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널리즘을 한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것이며 탐사보도야말로 저널리스트들의 핵심 소명이다. 언론사는 다시금 탐사보도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필요한 자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장범 사장님도 이 말 동의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직전 박민 사장이 탐사보도부 폐지를 담은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퇴임 바로 전에 만들고 나갔을 때 왜 이것 동의하고 그대로 시행하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조직개편안을 바꾸려면 사장의 소관이 아니라 이사회 통과 사안입니다. 당시 박민 전 사장이 통과시킨 조직개편안이 불과 한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결국에는 이사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는데 당시 이사들 4명이나 KBS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 토론도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고 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성원 절대다수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도 그 조직개편안 반대하신다는 입장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미비점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새로운 조직개편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사장님도 저널리스트 맞다고 생각합니다. 탐사보도야말로 저널리스트들의 핵심 소명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여러 가지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주희 위원 언론사는 탐사보도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아까 그 마틴 배런 편집장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보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뉴스가 있습니다. 탐사보도는 그 아웃풋에 비해서 시간과 공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론사의 역량을 전부 다 탐사보도에 쏟을 수는 없고요. 가끔씩 큰 언론사라면 그래도 탐사보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 훌륭한 탐사보도가 언론에게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강력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PT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KBS가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방송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탐사보도 부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보수정권 KBS 사장은 형식적으로는 공정성, 균형, 중립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실제로 보면 보도통제는 강화했고 또 탐사보도와 정권비판 보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민주정부의 경우에는 저널리즘과 탐사보도를 매우 강조했고 그 지원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실 KBS에서 상당히 우수한 탐사보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재전쟁’도 그렇고요, 또 2007년에 나왔던 ‘김앤장을 말한다’부터 박민 사장 직전 ‘빌라왕 네트워크’, ‘코스닥 개미귀신’ 시리즈같이 아주 호평을 받은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탐사보도부를 부활시키고 조직개편을 KBS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할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짤 때는 늘 기자, PD 그리고 직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이진숙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저널리스트 맞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전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이주희 위원 탐사보도 중요성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 공영방송 KBS를 비롯해서 언론의 탐사보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 마련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박장범 사장님,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에 맞춰 거행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모습입니다. 취임식을 이미 했음에도 굳이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추가로 쓰면서 셀프 대관식 쇼를 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인데, KBS를 비롯해서 방송 3사가 일제히 생중계를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 취임식 자체 중계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뒤의 공연까지 KBS에서 계속 한 2시간, 전체 한 2시간 중계했지요? 모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체 시간은 제가 모릅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1TV에서 다시 2TV로 넘겨서 소위 경축 공연까지 또 생중계

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뉴스를 시작하거나 하면 중계를 중단하거나 혹은 유튜브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TV까지 넘겨서 지상파에서 생중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1TV에서 국민임명식을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다가, 1부·2부로 정부가 행사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시 뉴스 시간대가 돼서 1TV에서는 뉴스를 했고요. 계속되는 행사는 2TV……

○**김장겸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1TV 중계가 편성이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8월 8일로 알고 있어요. 닷새 뒤에 2TV에서 경축 행사를 중계하는 걸로, 다시 이어서 중계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러면 닷새 뒤면 8월 12일 날……

○**김장겸 위원** 8월 13일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3일이요?

○**김장겸 위원** 예, 불과 이틀 전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부분은, 제가 편성 변경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용산에서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2TV에서 이거 중계해 달라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심의도 받고 하지만 방송이 나가기 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밝히면 어떻게 보면 편집의 자유 또 언론사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김장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거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았더라도 밑에 관련해서 어떤 실무자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대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런 것 중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보도가 나간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김장겸 위원** 보도야 보도 나가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생중계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렇게 길게 중계한 적이 있나 이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메인 시간대에, 그리고 과거에 보면 여러 차례 언론 노조가 비판을 합니다, 보수 정권하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 심지어 MBC는요, 아마 보수 정권하에 있으면 MBC가 이렇게 중계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 3사가 일제히 하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노조에서 비판했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중계와 관련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땡윤, 땡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땡이 뉴스’나 마찬가지로, ‘땡이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방송 3사가 똑같이 일종의 나팔수가 돼서 이렇게 하

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행사 이거 생중계 했거든요, 지상파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는 유튜브로 중계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비판의 목소리, 조금의 균형 감각이 있다면 성명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장겸 위원** 입만 열면 방송의 독립, 공정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파적 보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보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2시간씩이나 메인 시간에 임명식 플러스 경축 행사까지 중계해 준 그 경영진들도 잘 판단하세요.

아까 계속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압박을 넣던데 본인이 해당이 되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지요. 그것 헌법에 보장된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현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바꾸게 돼 있지 사장을 바꾸게 돼 있지 않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들리거든요. 2017년도에 고대영 사장이나 저 김장겸을 몰아낼 때는 임기가 멀쩡한 이사들까지 학교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해서 몰아내 놓고 그리고 사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이사를 바꿔 놓고 사장을 안 바꾼다고요? 그걸 누가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그래서……

○**김장겸 위원** 옆에 계신 김유열 EBS 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김유열 사장님,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김장겸 위원** 혹시 지난 윤석열 정부 내에, 임기 내에 나가라고 압박받은 적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우리 과방위 소관의 김제남 원자력재단 이사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 임명됐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누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지요? 그런데 이 진숙·박장범, 지금 계속 압박 넣는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언론사 관련 부분은 역시 이것도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성명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 잣대를 하지 말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의철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김의철 사장에게 직접 나가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참고인 김의철** 예, 많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이사부터 강제로 내보냈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이사 구성부터 바꿨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세요.

김유열 사장님, EBS 이사 중에 쫓겨난 사람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없습니다.

아, 정미정 이사님이 방통위 재허가 심사 관련해서 중도에……

○위원장 최민희 정미정 이사 쫓겨났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이주희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렸는데요.

KBS에는 최근 10년간 탐사보도부 조직, 예산 등 세부 변동 경과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에는 최근 20년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탐사보도부 구성·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소송, 법률 자문 등 송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추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 진행 경과, 이렇게 총 세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KBS, 방통위,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오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하나하나 확인하지요.

첫 번째 자료……

○이주희 위원 KBS……

○위원장 최민희 시간 있어요, 아직.

첫 번째 자료, 제출하시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자료 제출받는 대로……

○위원장 최민희 첫 번째 자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탐사보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출받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두 번째, 소송 비용 관련 자료.

○이주희 위원 탐사보도 지금 제출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방통위에서 소송과 법률 자문 등 송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역시 소송 관련해서 다른 의원실에도 제출한 적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한 경과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이주희 위원님, 탐사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위에 요청하는 것이 정확히 탐사보도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요청하시는 거지요?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탐사보도는 KBS에서 받아야 하고요.

○이주희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저는 모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적합한가를 보는데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복기를 해 보면 박장범 사장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씨의 술친구 박민 사장 제끼고 사장 후보로 선택이 됐다. 그러면 그 이유는 파우치 발언으로 인한 김건희 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은 잘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저는 일을 잘하셨냐고 자평하냐고 물어봤는데 열심히 했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을 잘했으면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KBS 내에서 그 대답에 내부 직원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할 때 95% 내부 구성원들이 ‘박장범 후보 그만두세요’라고 반대 성명을 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사청문회 때도 다뤘던 내용,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박민 사장 때 두 배로 뺏겨갔던 감사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박민 전 사장이 감사실에—감사실입니다—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내리쫓아요. 내리쫓으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박장범 사장님, 이것은 직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직원의 인사는 사장한테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감사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사장한테 있지만……

○**이해민 위원** 감사실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감사실의 경우 감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이해민 위원** 협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해민 위원** 슬라이드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합니다.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박민 전 사장의 행동은 직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보고 대답을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까지 감사실 인사의 경우 감사와 사장이 협의하여 진행……

○**이해민 위원** 질문이 좀 어려우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니, 저거를 보시잖아요.

자, 그다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박민 사장이 내리쫓고 있던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직무에 관련돼서 이거 위반이라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

립니다, 보시다시피. 효력정지 사유가 뭐냐면 ‘직무규정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분들이.

다시 물을게요. 박장범 사장님, 박민 전 사장의 행동은 직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띄워 놓으신 거는 다른 판결인 것 같고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2명의 보직자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해민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에 두 배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이해민 위원** 이미 해소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취임했을 때는 2명이 근무하는 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욱 감사 임기가 만료되고……

○**이해민 위원** 지금 2024년 결산보고예요. 그 이전에 얼마큼 더 추가로 나갔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신규 감사가 선임이 돼서, 인사를 해서……

○**이해민 위원**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요, 저는 바로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KBS는 이번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답이 없어요.

대외협력국장 누구세요? 나와 주세요?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서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돌아오는 국감에서 실시간으로 사장님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료 요청하게 되면 제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것 관련된 소송에서 그 소송비를 KBS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KBS에는 돈이 넘치나……

다음 슬라이드요.

KBS 지금 재정 상황 한번 봅시다.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때 경영 상황하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실 문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감사실은 인사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감사실의 독립성은 인사의 독립성인데 지금 인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찬욱 감사님.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최근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감사님께서 진행을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이해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요, 어저께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방해가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이해민 위원** 내부적 조직적 방해는 사장이 본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본인이 임명한 사람한테 줘서 그런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일단 그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답변도 없었고요.

○**이해민 위원** 주로 답변이 없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이해민 위원** 그렇게 불통을 하시면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요.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KBS 감사 직무규정 제4조, 9조 감사의 권한과 인사요청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은 지금 KBS 창립 이래 초유의 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국감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뇌물 받은 것 보니까 조그만 파우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목걸이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목걸이를 보고 윤석열 씨 대담을 했다면 그 목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런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해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파우치 발언이 용산의 가이드라인이냐, 본인의 생각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본인의 생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는 파우치를 가방..... 그때 제가 들고 나와서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김건희 씨 처지에 딱 맞는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교묘하게 표현을 했을까.

본인 생각이 아니었으면 이 목걸이, 또 용산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김건희 씨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파우치라고 불리는 것 부끄럽지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으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요, 못 들어 봤습니다.

○**이해민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메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셨으면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런 비아냥거림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좀 민망하지만. 일을 잘함으로써 보여 주시든가 내려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해민 위원님, 감사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밝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이해민 위원, 끝나셨지요?

○**이해민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밝히시고.

감사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위원장 최민희 나오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는 두 분이 같이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장범 사장, 가능하면 2분 내에 끝내 주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단 감사의 기능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상적인 감사 행위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이 중단되나……

지금 감사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를 통과한 정지환 감사가 적법한 감사냐? 1심에서는 정지환 감사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했던 박찬욱 감사가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가처분이 심의 중입니다.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 감사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등기 임원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2심에서 박찬욱 감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법원에 등기 감사 변경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반려했습니다. 현재 감사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 가처분을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욱 감사가 새로 인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내겠다고 한 대상자는 보직 인사를 한 지 녀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기다려 보자, 감사의 지위가 확정된 다음에 인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감사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특별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KBS 감사실에 4명의 부장들이 있습니다. 4명의 부장 모두 감사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저에게 직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관장에게 내게 돼 있습니다. 직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임원을,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감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반론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왜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처분이라 하면 가처분이 인용된 순간 저는 완벽한 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임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감사의 권한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전속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본인이 임명한 부하 직원한테 감사의 직무를 맡긴다? 본인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제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기자 생활 30년 넘어 가지고, 기자 생활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좀 난감합니다, 사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좀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요.

일단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로 돌아왔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됐다고 하여 감사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KBS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울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 11월 달에 했지요, 작년?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훈기 위원 11월 달에 3일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일단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로서의 능력을 보여 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기자상 한번 못 댔다 그런 지적 했고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위기의 KBS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로 못 받아 갖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경영 성적이 어때요? 얼마나 적자 났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올해 상반기에 한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적자요?

원래 연초 경영계획에는 올해 1년 얼마 적자 예상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올해 연초에 전망할 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4월에 통합징수법이 통과되고 발효를 10월 말에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 그래서 얼마였어요, 예상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올해 연말 적자 예상치를 950억 원가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950억 생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400억 적자 났어요?

경영 관련된 것 또 일에 대한 것은 이따 추가질문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박장범 사장, 자꾸 옛날에 대해서 너무 잊어 먹는 것 같아요. 옛날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다시 봤지요. 낫 뜨겁지 않으세요, 다시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훈기 위원 됐어요. 됐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의전과 경호의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보면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만 백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었잖아요, 피해자, 감싸 주면서 김건희를 피해자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때 청문회하고 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윤석열의 술친구—박민 사장이겠지요—를 김건희의 머슴이 이겼다, 머슴은 박장범 사장이에요.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청문회 하고. 그리고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 청문회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영상 보고 청문회 하고…… 당시에 박장범은 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박민 사장은 윤석열의 술친구였고 그리고 김의철 사장 남은 임기 1년을 하고 다시 사장 공모에 들어가서 당연히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장범이 사장이 됐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KBS 내부에서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김건희가 시켰구나, 지금 특검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여러 가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박장범 사장도 김건희가 인사 한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당시에 박민 사장이 연임할 거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박장범 사장이 됐지요?

그렇다고 뭐 경영 능력…… 그때 여기 청문회 할 때 검증을 했어요, 경영계획서 같은 것.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대충 베껴다 쓰고,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낮부끄럽지 않고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기 대답한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훈기 위원** 김건희는 어디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역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 사람이 밀어서 사장이 됐다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 박장범 사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러 특검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2월에 대답이 있었고요. 12월에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뭐,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이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떨고 김건희 라인에 서니까 사장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탐사보도도 있을 수 있고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신년 대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역대 대통령과 대담 프로그램이……

○**이훈기 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다음 PPT 볼게요.

이게 작년 7월 17일이에요. 수도권에 물 폭탄이 떨어져 갖고 MBC·SBS·YTN, 지상파·

중편·뉴스전문채널, 채널A까지 모두 메인 뉴스에 톱으로 다뤘어요. 톱뿐이 아니고 여러 리포트를 했겠지요.

그 같은 날 KBS는 메인 뉴스 톱으로 원전을 해서 세 꼭지, 체코 원전 수주 소식 했어요. 그러면서 앵커 멘트를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고사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박장범 앵커의 앵커 멘트예요. 앵커 멘트 직접 쓰신다고 그랬지요? 데스크가 써요, 직접 써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직접 씁니다.

○**이훈기 위원** 직접 쓴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훈기 위원**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최근에 나온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기 위원** 불공정 계약이라고,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수주당 1조 원을 줘야 된다는……

위원장님, 1분……

○**위원장 최민희** 예, 1분 더 드렸어요.

○**이훈기 위원** 불공정 계약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찬양하는 앵커 멘트를 직접 써 갖고 그리고 KBS는……

물론 뉴스 큐시트 짠 건 박장범 앵커가 아니겠지요. 보도국장이나 뭐…… 누가 짜요, 거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부장단 편집회의를 거쳐서 짜지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큐시트는 안 짰겠지만 아무튼 간에 타사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원전을 앞에 톱부터 세 꼭지나 했고 중간에 수해 하고 또 했어요, 원전 뉴스를, 그리고 이런 찬양하는 일방적인 앵커 멘트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원전 불공정 계약이라고, 그리고 1조 원씩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뉴스 큐시트 나열은 앵커의 권한 밖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부장단 회의, 편집회의를 존중하고요.

지금 보도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한참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래서 한참 뒤의 관점으로 앞서서 보도한 내용을 평가한다면, 저희 기자가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기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세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이훈기 위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박장범 기자는 KBS 9시 뉴스 했고 지금 사장이지만 과거에는 또 사회부 기자로 있었고. 기자는 시대의 목격자, 기록자지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취재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기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김우영 위원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10개월 전에 시대의 승부사라고 표현하고 요즘은 그 기질이 안 나오고 너무 조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 전두환이 등장할 때 모 신문이 구국의 영웅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한 것과 견주어 봤을 때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승부사라고 규정한 본인의 기자적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우영 위원님 질문에 시점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할 때와 지금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걸……

○김우영 위원 기자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미연에 우리 사회의 붕괴나 재난을 대비하고 권력이 남용되고 권력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릴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인데 그 언론으로서 견제의 역할은 포기하고 현실적 권력 앞에 가서 승부사라고 마치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 말이 과한 표현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구국의 영웅과 승부사는 전혀 결이 다른 표현이고요.

○김우영 위원 그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신년 대담 프로그램.

○김우영 위원 다음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 질문을 아마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포고령, 계엄령 발표 때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을 처단하겠다고 얘기한 것 알고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포고령 내용은 읽어 봤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의사 처단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단답으로 답해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비현실적인……

○김우영 위원 반지성적이라고 판단했겠지요.

다음.

(영상자료 상영)

돌봄 학교 예산을, 의회 독재가 예산을 삭감했다 해요. 나중에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돌봄 예산 삭감을 말했던 것 기억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올 5월 달에 KBS가 통일교의 광고를 실은 거예요. 통일교 광고를, KBS가 어떤 이유에서 전 정권 때보다 두 배 이상 기사를 내보내거나 광고를 실었을까.

요즘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로비하고 다양한 청탁, 권력형 비리 이런 데 연루돼 있는데 KBS 사장으로서 저런 종교집단의 과도한 권력 개입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사장에 취임하기 전에 제가 만든, 개입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의 자유를……

○**김우영 위원** 사장으로서, 사장은 KBS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방송의 모든 총적인 책임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물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특정……

○**김우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가 권력형 비리에 연관되고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하고 광고 혹은 기사 등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KBS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특정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방송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제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우영 위원** 한심한 소리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김우영 위원** KBS 사장은 KBS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고 그 안에는 보도의 내용과 경영상의 문제, 광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갔을 때 트루먼이 써 놓은 글, 윤석열이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더 벅 스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 트루먼이 한 얘기라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장이 책임질 일은 다 책임을 져야지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통일교와 관련된 비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김우영 위원** 박장범 사장님, 여기 신성범 위원님 계신데 KBS 기자로서, 역사의 기록자이자 감시자로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한 대한민국의 대붕괴, 그 과정에서 KBS의 기자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윤석열과 인터뷰했고 그 인터뷰에 규정된 내용이 10개월 뒤에 다 대한민국의 폭망으로 이어지는 질문들이었어요.

승부사라고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집어던진 사람이 승부사라고 10개월 전에 말씀을 했고 늘봄학교는 리박스쿨로 이어졌고 의사 정원 문제는 의사 처단으로 이어졌고 그걸 역사의 목격자로서 가서 인터뷰한 사람이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또 그들의 혜택에 의해서 사장까지 되고. 사장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있어요? 내란수괴가 KBS 9시 뉴스에 등장할 때 그때 9시 뉴스 메인 앵커였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10개월……

김우영 위원님, 10개월 후에 일어난 계엄 관련해서 저희들이……

○**김우영 위원** 누가 예측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당연히 예측을 못 하지요.

○**김우영 위원** 권력이 남용을 하고 부패하고 농단이 일어나면 그걸 예측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인일진대 그 기능을 안 하고 애완견처럼 감히 승부사 운운하고 작은 파우치 어찌고 하면서 프레임 전환하고 그 덕에 사장 자리 얻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갔고 나는 법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이진숙 씨하고 똑같이 KBS 사장은 내 자리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덕에……

○**김우영 위원**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기자답게 본인이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을 청송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눈, 귀를 가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프로그램 덕에 사장이 됐다는 김우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우영 위원** 그러면 KBS 직원들이 지지해서 사장이 됐습니까, 90% 이상이 반대했는 데? 그러면 누가 시켜 줬어요, KBS 사장을?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 사장은 KBS 직원이 동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김우영 위원** 이사들이 제청한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 이사를 누가 임명을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입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뒀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2027년……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2월까지입니다.

○**신성범 위원** 12월이고 이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2027년 9월로 되어 있지요, 9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신성범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 봤습니다만 현재 11명의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되돌이표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난번처럼 또 KBS나 MBC나 이사들을 다 갈고 이사들을 갈아서 또 사장을 가는, 교체하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 그리고 대응도 제가 보기에선 또 KBS 이사들은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내고 그럴 것처럼 보여지고.

특히나 현재 KBS 이사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니까 법률적인 절차를 잘 알테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건데……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 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뭘 고쳐야 되는 거지요, 중간에 임기를 단축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한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저 1인이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소한 2인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가능합니다.



○**신성범 위원** 따라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새 이사진이 3개월 내 임명 안 되면 그러면 현 이사진 11명은 어찌 되는지 일단 궁금해지고, 그건 나중에 따져 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좋은 의도로 만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 MBC 사장이 바뀌니까 다시 한번 잘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국회가 6명을 추천해요, KBS 이사의 경우예요. 6명이면 현재 봐서는 딱 4 대 2예요.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하는데 시청자위원회는 이게 정해질……

박장범 사장님, KBS 내부적으로 볼 때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누가 어떻게 뽑는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방통위 규칙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다음.

공사 임직원 대표, 방송 전문성과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추천합니까? 기자협회가 추천합니까, PD협회가 추천합니까, 기술협회가 추천합니까? 경영인협회는 뭐 하지요? 아나운서협회는 뭐 하지요? 절차와 이걸 또 누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을 뽑는 방식과 절차도 방통위에서 정해야 되고 또 임직원 대표라는 3명도 정하고 노조는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나요, 노동조합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만약에 방통위에서 임직원 대표를 뽑을 때 그 임직원 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

뭐 노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협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원들 전체 다수결로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사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제가 KBS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나도 KBS 이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출마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임직원이 이사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신성범 위원** 임원과 직원의……

그러면 갓 신입, 신참 기자도 할 수 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측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성범 위원** 또 하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변호사 단체는 법률적 쟁점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2개의 변호사 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에?

하나는 민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는 일반 뭐 대한변호사협회를 이야기한다고 치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성격이 임의단체처럼 보여져서 이게 추천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점도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혁, 주요 업적, 회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요 업적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주요 업적이라고 정해야 될지……

○**신성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편성위원회 이것을 쪽 보는데 제가 있을 때는, KBS 안에 있을 때는 편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편성본부장 관할이었어요. 편성본부장이 9시 뉴스를 배치하고 드라마는 어떻게 배치하고 나름의 1·2 TV를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부는 모르겠는데 이게 듣기로는 보도 부문 편성위원회가 따로 있고 제작 부문 편성위원회가 현재 따로 있다는데 박장범 사장,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3개가 있습니다, 보도 부문 편성위원회, TV 부문, 라디오 부문.

○**신성범 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된 방송법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 편성위원회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닙니다, 지금 편성위원회는……

○**신성범 위원** 아니, 현재 고친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새로운 방송법에 의한 편성위원회는 지금 있는 편성위원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새 방송법에 의한 편성위원회는 지금 편성본부장이 맡고 있는 편성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고요. 또 임명동의와 관련된 주요 보직과 방법을 선택할 수가……

○**신성범 위원** 그러면 5대 5, 10명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러면 여기서 노조원이 들어갑니까? 1노조, 2노조, 3노조가 다 파견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그것을 노조에서 정할지 아니면 협회에서 정할지 아니면 전 직원 투표로 정할지 그것 역시 사측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사측 대표 5명은 사장이 정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것은 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신성범 위원** 계속 재미있어지네, 자꾸.

그리고 보도책임자 말이지요……

아니, 편성위원회 좀 더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모든 규정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제 사장을 뽑는 이사진 구성은 굉장히, 방통위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방통위는 혼자 계셔 가지고 만들 수 없다면 결국은 KBS 사장, 이사진의 변경, 그에 따른 사장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법을 고친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뭐라 그럴까 국회의원, 국회에서 4 대 2로 보장해 버리고 칸막이를 치고 협회와, 변호사협회와…… 이런 식으로 해서 KBS 이사진을 딱딱 구획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규격화되

고 기계화됐다.

그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정파적이나 정치적 색깔을 띤 분들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과연 이게 방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법을 좀 꼼꼼하게 보고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KBS 이사 추천할 때 KBS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노조, 2노조, 3노조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이 추천하는 2인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은 KBS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히 알고 하시고요.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은 누가 구성했습니까, 현재?

답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한테……

○위원장 최민희 예, 현재 있는 KBS 시청자위원회는 누가 위원을 구성……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임명했냐고요?

○위원장 최민희 임명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명을 빼고는 박민 전 사장이 임명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사장이 임명한 거지요? 박민 사장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지금 박장범 사장도 윤석열 임명. 그러니까 그 KBS 위원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박장범 사장이 다시 출마하게 되면 박장범 사장 편을 추천하게 돼요. 이건 방통위가 아니고요, KBS에서 규약을 정합니다.

KBS 노조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위원장 최민희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송법 좀 숙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참고인 박상현 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모두들 숙지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번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칙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부칙 조항, 이사회 임기 문제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의 시한 문제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 말고 이번 방송법의 가장 큰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방송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단 이사 수가 확대된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사 수도 확대하고 또 사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언론 장악, 방송 탄압에 공영방송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역대 정권들을 보면 말이지요,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였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 낙하산 사장이 경영진을 자기 입맛에 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 경영진들이 보도와 제작·편성 책임자들을 또 바꿉니다. 밑에 있는 부장과 현업 기자들, PD들까지 다 이렇게 쪽 내려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낙하산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면서 현업 기자들과 PD들의 경우에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부장이나 경영진들도 바로 낙하산 사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PD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기자들과 PD들을 비롯한 현업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박장범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드렸던 동영상 하나 다시 보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박장범 사장 입장에서 저 영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 불편하실 텐데 지금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창피하지는 않고요.

○**이정현 위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지금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런 인물을 잘못 봤다라고 하는 일말의 책임도 못 느낍니까? 창피하다는 생각 안 드신다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저 대답을 할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정현 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지요.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을 하신 앵커가 권력자 앞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 잘못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

씀드렸듯이 ‘성은이 망극하옵시다, 전하’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충성 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비판과 견제의 칼날이 무더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더군다나 윤석열 권력자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런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최소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창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2일 필리버스터 11시간 가까이 하면서 언급했던 존 밀턴의 책임입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사전 검열,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존 밀턴의 주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윤석열 권력자를 찬양했지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명품 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밀턴이 말한 첫 번째, 누군가를 찬양할 때 과연 그 대상이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윤석열?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윤석열 개인을 찬양한 건 아니고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 대통령 자리에 그렇게 앉으면서 ‘영광입니다’를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윤석열한테 얘기한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이정현 위원**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개인적인 자질을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이정현 위원** 두 번째, 찬양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되짚어 보니까, 돌아보니까 어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대담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분이었고 대통령은 신년에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정현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찬양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침과 아부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못 하면 그건 아침과 아부입니다. 아침과 아부를 하는 사람은 아침과 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분들이 내린 결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정현 위원** 그렇게 박장범 사장이 존중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제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 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말입니다.

○**이정현 위원** 됐습니까? 말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임기는 방송법에 보장된 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 문제 때문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적인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장의 임기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역시 방송 독립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더 드릴게요.

○**이정현 위원** 1분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정성과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신뢰성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본인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에 이어서 박장범 사장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를 스스로 버린 분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임명동의제 관련해서는 이번 방송법에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진일보, 그러면 그때는 진일보가 아니라 후퇴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거부했습니까? 노사가 힘들게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낸 단체협약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것이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정현 위원님, 저희가 실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조원에게만, 같은 보도국에서 근무하지만……

○**이정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한 것들을 헌신짝 버리고 나서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자신의 임기 운운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 전임 사장도 그렇지만 헌신짝 버리듯이 혼자 할 수는 없고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노사 단체협약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KBS 노조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노조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줍니까?

○참고인 박상현 지금 단협이 실효되어 있지만 단협상으로는 ‘노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노조원에게만 부여를 했었고요. 박민 사장이 들어왔을 때 사측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체협약 보충 교섭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노조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 하겠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노조원에게만 준다, 그러면 그것도 노사협회의 결과였지요, 그 규약?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노조원에게만 주는 건 좀 불편부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김현 간사님도 2분 하세요.

○최형두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취지도 이해가 가고 또 그때그때 팩트체크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 때마다 이 모멘텀을 탁탁……

○위원장 최민희 이건 야당 위원님이 아니고 이정현 위원님인데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만 하더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질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원장 최민희 뭐 1분 한 걸 가지고……

○최형두 위원 약간 회의 진행의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제안하자면, 위원장님께서 한 순배 돈 뒤에 그걸 기록하셨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든지, 매번 발언할 때마다 팩트체크다, 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야당 위원들로서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 위원장님은 상임위원장이라고 지금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발언시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쏠리고 있고 또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대목에서 불쑥불쑥 궁금할 때마다 또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팩트체크를 하시니까 회의 진행의 절차가 좀 끊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건 답변드릴게요, 다 한 다음에.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한 순배 끝나면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쓰셔서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좌진이 있으니까 보좌진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메모를 넣어서 빨리 답변을 준비하라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은데, 지금 사실은 너무 위원회 진행이 위원장님의 중간 발언으로 인해서 많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제가 지금 이정현 위원님과 박장범 사장의 그 얘기 과정에서 마지막이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노조원만 준다, 매우 부당한 것처럼. 이 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물어보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부장을 불러서, KBS 노조본부장을 불러서 상황을 확인한 것이 이후 질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럼요. 잘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영상을 돌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최형두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접니까?

나름 방송법에 대해서 13시간 30분 동안 토론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남아 있고 또 계속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법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특정한 진영이 방송을 장악해서 끝없이, 대통령선거에서도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연 지금 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나오는 마치 소셜미디어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자꾸 우리 공영방송도 특정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이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지금 KBS 적자입니다. MBC도 적자입니다. MBC는 브라이튼이라는 여의도 최고의 부동산, 상암동 부동산, 그것 다 국민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지금 부동산수익으로 영업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 적자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이렇게 축소 경영으로 가게 되면 당장 MBC만 하더라도 과거의 드라마 왕국, 예능의 왕국이라는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한동안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까? 그 기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인데 케데헌이 지금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데헌의 모든 모티브며 이게 저는 KBS의 뮤직뱅크에서 시작되었고 또 MBC의 연예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가 지금 통째로 미국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소니 픽처스가 투자하고 기획했다는데 소니 픽처스도 2000만 달러밖에 못 번답니다. 모든 것은 다 넷플릭스에게 돌아간답니다, 10억 달러, 1조 4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케이팝, K-무비, K-컬처로 문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제국이 되었는데 광복 80년에 이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표본으로 BBC의 지배구조, BBC의 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최형두 위원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내가 BBC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요? BBC의 불편부당성, 거리 두기, 열여섯 가지 준칙, 지금 KBS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엄정한…… BBC가 설립될 때 입헌군주국가니까 왕실칙허장으로, 말하자면 KBS도 KBS 헌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철저한 중립과 또 때때로 아주 성역 없는 이런 것인데……

지금 KBS의 한 해 총예산이, 결산해 보니까 올해 총수입 1조 4000억이었습니까? 1조 3000억이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최형두 위원 줄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줄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수신료도 일부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기타 방송 수입, 콘텐츠 판매 수입, 협찬 및 캠페인이 전년 대비 특히 콘텐츠 판매수입 감소가 전년 대비 240억 원 줄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제작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각종 IP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최형두 위원 지금 준비된 PPT 됩니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BBC 스튜디오 아시지요? 제가 방송법 개정안에 BBC 스튜디오의 모델에 맞춰서 KBS가 수신료에 의존하는 이런 취약한 재원 구조가 아니라 정말 BBC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든든한 재원 구조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런 K-컬처 최고의 작품들, 이 작품들의 원류가 다 KBS에서 만든 겁니다. KBS 스튜디오에서 PD들이, 작가들이, 수많은 프로들이 만든 건데 지금 이게 저렇게 만화영화로 되면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거지요? 그런데 정작 모든 돈은 미국의 넷플릭스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BBC는 어떻게 하느냐? BBC 스튜디오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BBC는 콘텐츠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우리나라가 저기보다 작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KBS가 BBC에 버금갈 만큼 그 실력이나 그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인적 파워에서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수신료는 저희의 8배를 BBC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수신료를 여기서 그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 보십시오. 제가 방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BBC 스튜디오의 1년 수입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짐작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확히 KBS의 2024년 결산 총수입보다도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여기가 얼마나 하면 2.2 빌리언급, 영국 화폐 단위입니다. 저걸 달러로 하면 얼마나 하면, 2.96 빌리언 그러니까 30억 달러입니다. 30억 달러면 얼마지요, 우리 돈으로? 4조 2000~3000억 됩니다.

KBS는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시했듯이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시청료를 갑자기 더 올려 주기 힘들 겁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게 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했는데……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제가 최근에 민주당의 동료 위원님과 말씀 나눠 보니까 상당히 수긍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한류는 케데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류의 디테일까지 팔아서 세계 시장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큰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원조, 오리지널은 다 우리한테 있단 말이지요. 그게 KBS에 있고 MBC에 있다.

MBC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KBS는 법으로 KBS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여기 앞에 동여의도·서여의도에 아파트 있는 부분을 스튜디오 사업에 쓰게 한다면 또 동여의도에 있는 그 빌딩을 상업용으로 해서, 지금 브라이언 못지 않은 그런 상업적 자산으로 해서 그걸 기금으로 하게 한다면 KBS가 BBC 못지 않은 콘텐츠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송 용도로만 묶여 있는 자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법을 바꿔 주시면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계속 그걸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BBC의 지배구조와 함께 BBC의 경영, BBC 스튜디오의 운영 방식, 지금 우리가 영국만큼 국격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BBC와 경쟁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박장범 사장이 2024년 1월 4일 날 녹화방송으로 한 대통령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전 대통령에 대한 심기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박장범 앵커는 사장이 안 됐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아는 내용을 그렇게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인식의 수준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 뻔뻔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의철 사장이 쫓겨나지 않았으면 김의철 사장이 2024년 12월까지 임기였어요. 중간에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한다고, 김의철 사장께서 회사를 구하려고 분리징수만 막아 달라, 통합징수 유지하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데도 해임시키고 쫓아냈어요. 역대 정부에서 누가 다 쫓아냈습니까, 사장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역대 사장별 임기를 보면 정연주 사장을 쫓아냈었어요, 2006년도 11월 24일 시작해서 임기 진행 중에 온갖 구실을 다 들어서. 다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물론 쫓겨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총파업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KBS? 그다음에 김의철 사장을 쫓아낸 것 아닙니까, KBS 재원 목줄 잡고? 그러고 들어온 게 박민, 방송에 대해서 비읍도 모르는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 데리고 와서 8·15

때 기미가요 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파우치 이게 언제나 하면 2024년 1월 7일 날 방영했어요. 2024년 총선 직전에 여론을 왜곡시켜서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목이 타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해도 부족할 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국회가 그렇게 만만히 보입니까?

3년 적자 KBS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KBS 사장 박장범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수신료 위기 타개책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후보 시절에? 뭐였습니까? 수신료 타개책이 통합징수였습니까, 아니면 뭐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통합징수가 가장 중요한 타개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현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IPTV·케이블TV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수상기 정보 확보, 모바일TV 전파 직접 수신을 통한 모바일 기기 대상 징수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에 대한 긍정적 국민 여론 창출, 이게 당시의 공약이었어요. 경영사업계획서에 들어갔던 겁니다. 통합의 티올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법안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12명 만나고 다녔습니까? 그러면 300명 중의 212명이 찬성했는데 그게 박장범 사장의 로비 때문에 통했던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통합징수가 더 효율적인 재원 마련 구조라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거지요. 박장범 사장은 손가락 얹은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까? 2025년 4월 17일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본회의 표결할 때, 그때서야 열심히 움직이셨지요. 그리고 시청자 위원들하고 무슨 행사해 가지고 통합징수 의결된 게 마치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무슨 행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지탄받으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위원님, 저는 행사한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요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관계 여부 수사하라’ 본부 노조 성명서 냈잖아요. 그렇지요? 답하세요.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봤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경영진 일동으로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까?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서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는 KBS 사장 박장범 명의로 2025년 2월 26일 날 냈는데 이걸 왜 본인 명의로 안 내고 경영진 일동으로 성명서가 나왔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경영진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에 대해서 공격한 건데 왜 경영진 일동으로 해서 마치 공동 책임인 것처럼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 전체……

○김현 위원 비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겁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발언으로 돋보인 것 아닙니까?

질문한 겁니다. 답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어느 언론에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디올 명품백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정서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받을 수도 있다, 받으면 안 된다는 찬반 갈림은 있었지만 앵커잖아요, 앵커. 균형을 잡아서 보도를 하는 9시 뉴스 앵커였잖아요.

앵커께서 대통령하고 녹화방송을 통해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조율해서 발언하고 그것을 총선 직전에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방영했다면 그것 용산에서 예쁘게 보지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박장범 사장의 답변이 KBS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지만 그동안 정치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나마의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해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전 앵커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현 위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김현 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의철 전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할 때 그때 당시에 종사자들이 몇 프로가 반대를 했었습니까, 분리징수?

○**참고인 김의철** 분리징수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통합징수할 때는요?

○**참고인 김의철** 통합징수도 대부분, 구성원이라면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본부노조에서 성명서를 이렇게 내면 박장범 사장을 지지하거나 입장에 동의하는 노조원은 없습니까?

○**참고인 김의철** 어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본부노조가 있고, 사장 재직 시절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사장님을 반대하는 노조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칭할 때 저희는 그냥 1노조·2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인 김의철** 제가 재임할 때는 특별히 1노조·2노조·3노조 따지는 게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 구성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일부 구성원인데 지금 본부노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그나마 찬성하는 노조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KBS 내에?

○**참고인 김의철** 예,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박장범 전 앵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의철**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박장범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노조가 성향에 따라서 입장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노조는 없느냐,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는 노조는 없느냐, 노조 성명서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참고인 김의철**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현재 KBS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성명서가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조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박장범 사장이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에 노조에 혹시 뭔가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까, 파우치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참고인 박상현** 예, 저희가 전임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낙하산 박민’이라고 지칭을 했고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는 ‘파우치 박장범’이라고 계속 지칭을 했는데 이 파우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문 보여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내용인데요. ‘파우치라는 단어가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고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공문을 보고 파우치라는 단어에 이렇게 비하와 경멸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장범 사장은 그것을 파우치라고 표현한 게 부끄럽지 않다면서 왜 파우치 박에 대해서 저런 공문 보내셨습니까? 부끄럽지 않다면 왜, 저렇게 하면 좋잖아요, 안 부끄럽고 더 명쾌하고, 나의 정체성이. 그런데 왜 저런 공문 보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품위 있게 표현해 달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노조가 사측의 말을 수용할지 여부는 노조에 달려 있지만요.

○**위원장 최민희** 그건 사측이고요, 뒤의 말씀은. 파우치 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안 부끄러운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걸 조롱이라고 받아들입니까? 나는 당당하게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 명품백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파우치 박도 부끄럽지 않은 건데 조금 안 맞네요.

들어가십시오.

김의철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의철 사장님은 누구로부터 최초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의철** 전체적으로 다 사퇴 압박을 받았지요.

○**위원장 최민희** 전체라는 건 누구지요? KBS 이사장입니까?

○**참고인 김의철** KBS 이사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사퇴를 하라 이런 취지의 말은 없었고요. 그 분위기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사내 구성원, 일부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노조 그다음에 일부 정치권 등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

고 실질적으로 노동부,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 감사원, 모든 권력기관들을 동원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너 사퇴해’ 이런 얘기를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내가 물러날 테니 수신료는 건드리지 마라. 분리징수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제가 수신료는 KBS 재원의 핵심 공간이고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사실 저 개인의, 사장의 거취를 떠나서 KBS가 무너진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던져서라도 우리 수신료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개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동안에 김의철 사장까지 모든 KBS 사장은,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KBS 사장은 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바뀐 게,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갔어도 박민 씨, 수신료를 건드리는데 그것에 아무 저항을 안 하는 사장은 처음 봤어요. 진짜 자괴감을 느낍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김의철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권부가 동원되고 국회가 동원되고 당시 여당이 동원되고, 그것 다 보셨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KBS 사장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것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김건희와 관련해서 사장 자리를, 박장범 사장이 어떻게 사장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수사하기 바란다는 성명을 내었을 때 경영진 일동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더 이상 KBS 본부가 회사를 흔들지 마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회사가 아니라 사장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가 추진될 때는 연서명을 하고 각종 성명을 하고 집회를 하고 우파 유튜브들을 동원하면서 김의철 사장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등에 업고 사장을 흔들어서 내쫓은 후에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흔들지 마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꼴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김의철 사장을 쫓아내는 그런 폭력적인 행태, 사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난리가 났어요. 최소한 민주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노조와 내부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 투쟁을 해서 파업까지 했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요구를 받아 준 거지요, 나중에.

그런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해서 저희가 방송 3법 통과시켰잖아요.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

을 하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송 3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방송법 내용을 알고 질의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고 그 책임을 더 이상 정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 3법 저희가 논의할 때 국힘 위원들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돼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게 가상하다’ 이런 말 한 것 아시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 됐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하고 난 이후에 민주노총에게, 노조에게 방송사를 갖다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인 박상현 현재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방송법 본문에 노동조합이라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위원장 최민희 사장 되실 때 통합징수의 ‘통’ 자도 경영계획서에 안 올리셨는데 아까 왜 통합징수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때는 법안이 발의 안 된 상황이었나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법안 말고요. 좀 아까 김현 위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민희 ‘수’가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장으로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통합징수법안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이 발의했다 안 했다는 쟁점이 아니고요. 경영계획서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징수를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지요? 왜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러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신료를 다시 원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위원장 최민희 속으로 생각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거는 제가 경영계획서에 넣은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왜 넣었다고 답했냐’ 그랬더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라 그거를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이 말인 건가요? 어떻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어

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계획서에는 안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거는 제 착오입니다.

○김장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조금 전에 KBS언론노조 본부장인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하실 건가요?

○김장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저에게 하세요, 물어 달라고.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신원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발언, 답변을 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무식하다는 식으로 상임위에 나와서 참고인이 저런 발언을 하도록……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저런 발언은, 자기가 뭘 안다고 여기 와서 평가를 해요?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저에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장겸 위원 요청하는 거지요.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박충권 위원 정확히 나와서 말해 보세요.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여기 위원장한테 하시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왜 직접 그러세요? 왜 참고인한테……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과를 받아 주세요. 오만방자해도 저렇게…… 아니, 언론인의 탈을 쓰고 소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야당 공격에 동참해서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도 말이지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지 아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저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하고요.

○김장겸 위원 답을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무식하다는 식의 말 안 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게 그 말이지, 뭘 모르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방송법의 내용을 아느냐, 진짜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김장겸 위원 속기록 봐요. 그 취지가 그 취지 아닙니까?

○이상휘 위원 학습이 안 됐다고 지금 에둘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 취지입니다. 방송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장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방송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이래서 시정한 겁니다.



○**김상휘 위원** 참고인이 나와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제지를 해 주셔야지.

○**김장겸 위원** 저러려고 불렀어요, 지금?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하라고 불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민수 위원** 말씀하시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방송법 숙지하고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다, 방송법 내용은 이거라고 시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 태도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 이거와 내용에 있어서 방송법을 제대로 아시나라는 질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 계속 안 계셔서 그런데요 정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내용을 정확히 잘 아시나 하는 의문이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인들은 발언하실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김현 위원** 잠깐 사실관계만……

○**위원장 최민희** 맞다, 죄송합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아까 1월 7일 날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얘기했는데 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총선에 관여한 겁니다, 박장범 전 앵커께서. 그런데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해서 당시에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4년 6월 24일 제가 수신료 통합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 3일간에 걸쳐서 할 때도 앞서 얘기했던 통합징수에 대해서 본인이 경영계획서에 넣지 않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징수와 통합징수는 KBS 재원을 옥죄고 KBS 공영방송을 해체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방송장악의 이슈인데 오늘 나온 박장범 사장이 수신료 통합징수가 언제 발의된 것도 모르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이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르는 건 모른다,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들으셨고요. 이거는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요?

지금 4시 46분이라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답변도 포함됩니다.

이주희 위원님, 먼저 질의한다고 하셨나요? 노종면 위원님인데……

○이주희 위원 노종면 위원님이 안 된다고……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한다고……

○이주희 위원 교체가 안 된다고……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오셔야지요. 지금이에요.

노종면 위원님, 5분입니다.

○노종면 위원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무 수행하고 계신 부분에 불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맞는지 잘 판단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새 방송법에 대해서는 위헌을 다룰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해 보고 있다고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KBS 사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하셨고요. 오늘 관보에도 저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공포했는데 KBS 사장이 반대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KBS 사장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이치에 닿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 개인적으로 다투고 싶으면 직을 내려 놓으시고 다투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방송법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이사를 추천하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통위 규칙 그리고 편성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임직원들은 어떻게 추천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하면 임직원 본인이 이사로 출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직원 과반이 추천하는데 여기에 과반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노종면 위원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나오시면서 들어 주세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가 KBS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뽑게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시청자위원회는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에.

○**노종면 위원** 시청자위원회는 편성위원회에서 구성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뽑는 절차가 방통위 규칙으로 따로 규정이 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편성규약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박장범 사장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잘 안내해 드리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방통위의 추천 절차 개시는 언제쯤으로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각 방송사의 이사 추천 절차 개시 시점.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새 방송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새 사장 공모 절차가 아마 연말쯤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장범 사장께서는 도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쎄,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새 이사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바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위헌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새 제도에 의해서는 도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순서가 좀 섞여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요.

○**노종면 위원** 위헌의 소를 제기해서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라고 답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패소하더라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구나, 내가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잉 해석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럴 수도 있지요.

○**노종면 위원** 그럴 수도 있다.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강제됩니다, 법으로. 그리고 편성위원회 구성도 강제되고. 그런데 KBS는 보면 기존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었어요, 제작책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실시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공방위로 그 기능을 넘겨서 편성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공방위는 노조랑 하는 거고 편성위원회는 현재 협회랑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편성규약에 공방위에 편성위원회 기능을 맡겼잖아요. 모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KBS 내부 체계를 보니까 지금 하셔야 맞아요. 그게 법에 부합합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사장이 보도국장 및 다른 5개 직위에 대한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했고 가처분 결과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냥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방송법에서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여 주시지요.

KBS 방송편성규약은……

끝났나요, 벌써?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렸어요, 심지어.

○**노종면 위원** 그래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야당 위원들이 버젓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정말 무도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 따라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정방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방송 3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님도 똑바로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은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회의 이사 직접 추천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 민변, 전교조 이런 단체들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모두 갖다줘서 노영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역, 직군 어떤 면에서도 어떤 대표성도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위험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난 과방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충권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방송법이 만들어졌다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에게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권한하고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권한을 줌으로써 방송편성과 방송경영 전반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 선출하는 것마저도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는 회사 정관에 따른 이사회가 있지요. 민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깬다고 무시하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장 하나 보도책임자 하나 제대로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법으로 민간기업의 인사와 운영에까지 개입하는 것, 이것 정말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위헌입니다. 위헌적 소지가 상당합니다.

위원장님, 과거에 MBC 사장을 역임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대전MBC……

○**박충권 위원** 대전MBC,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박충권 위원** 노조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것 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편성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동수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사장, 대표이사, 경영자가 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지금 권한만 휘두르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뭐니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없는 권한은 결국 정말 전횡이고 횡포입니다, 횡포.

세 번째, 방송법 부칙이지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행태들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익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편성위원회가 10개 방송사 모두에 법적으로 강제화되고 그러면 사실상 모든 10개 방송사가 비슷한 형식으로 노사 공동경영 형태를 띠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동경영의 형태를 띠게 돼서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지게 되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돼서 책임경영이 사실상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박충권 위원** 심각합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요,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그리고 모든, 어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 교체하려고 입법 카드 만지작 거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하려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 카드 만지작 거리고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개혁 카드 만지작 거리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관 증원하는 법 카드 만지작 거리고.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개정된 당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인 현대제철, 네이버, SK하이닉스까지 하청업체들의 소송에 휘

말렸습니다. 지금 나라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말 독재와도 같은 이 칼날이 지금은 언론을 향하고 검찰을 향하고 사법부를 향하고 기업을 향하고 나중에는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에 잠식되고 맙니다. 먹히고 맙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민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큰 법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법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반드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말로만 운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당파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 질의 때 박장범 사장에게도 물었습니다만 성명서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관계 여부 수사하라!’ 이 제목으로 성명 내신 거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배경이 있습니까, 이런 성명을 내기까지?

○참고인 **박상현**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금품을 받으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태균 씨 진술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인사권을 5 대 5로 행사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없어서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참고인 **박상현**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 계속 박 사장의 임명 과정들을 여러 위원들이 묻고 그러고 있는데 돌아서 본다면 작년 12월 10일 취임을 하는데 면접까지 가고 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잖아요. 실력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노조에서 성명도 내고 한 것처럼 김건희 씨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됐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저희들은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졌던 현직 사장을 제칠 정도라고 하면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고 하면 힘들다라고 보고 지난해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가 됐었지만 박민 사장이 사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박상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명을 썼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화두로요 박장범 사장, 지난 6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찬욱 전 감사

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한민수 위원 그 이후에 박찬욱 감사가 와서 감사실 부서장 인사에 대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협의가……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지난해 11월 19일 날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보면 박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실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감사실 보직자들의 적격 여부랄지 감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감사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이고요. 감사실은 그 사안이 특수하기 때문에 감사와 협의하여 인사를 해 온 게 KBS의 관례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박찬욱 감사는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 대법에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1심은……

○한민수 위원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박찬욱 감사의 입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한민수 위원 박찬욱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보니까 박장범 사장의 특별감사 방해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한민수 위원 지금 보면 KBS 감사실의 독립성 훼손 시도는 박장범 현 사장뿐만 아니고 박민 전 사장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한민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글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장이 자꾸만 인사권, 인사권 하는데 인사권은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규정에 보면 정관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인사권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다면, 사장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부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기자로 들어온 사람을 PD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사권이라고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정관의 그 규정 안에서 행사되는 게 인사권이지요.

○한민수 위원 그래서 지금 박 감사께서 박장범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한민수 위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죽 보니까, 경영본부장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한민수 위원 그 사람을 또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저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저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걸로 돼 있고 특별감사 자체를 경영본부장한테 맡기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권한은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한테 나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 사장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사장은 본인이 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협의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특히 보면 박장범 사장은 정지환 감사—전 감사라고 해야 되겠지요—감사실 인사를 바로 받아 뒀어요, 수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박찬욱 감사 요청은 계속 거부 중인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한민수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제가 만약에 전보 인사도 하고…… 지금 감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채워 주지를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인력이 지금 충분하면 사실 여러 가지 특감 같은 것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충원 인력도 안 되고 지금 감사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전출시키라 그래도 그것도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쉽게 말하면 박찬욱 감사가 정확하게 적법하게 제대로 하려는 감사를 방해하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특별감사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도본부에서 있었던 ‘시사기획 창’의 편성 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력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했는데 이것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요. 특히 배임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고발 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수 위원 고발도 검토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그건 저희들 봐서, 저희들은 일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까 그 문제는, 고발 문제는 사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이상휘 위원님 순서.....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이상휘 위원 이상휘입니다.

오늘 이진숙 위원장님은 별로 인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박장범 사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인데 자칫 이야기하면 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좀 겁도 나고.

박장범 사장님께서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은 전 국민으로부터 월 2500원씩 수신료를 받습니다.

○이상휘 위원 수신료를 받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정파, 지역, 정치 갈등 떠나서 통합을 하는 게 공영방송의 요점은.....

○이상휘 위원 그 통합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가장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진숙 위원장께도 제가 여쭙고 싶은 그런 얘기인데요. 박장범 사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의 뉴스, 9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청률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뉴스를 비롯해서 기존의 공중파·지상파 콘텐츠들이 다른 매체에 밀려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위원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파 위주로 볼 때는 종편이나 케이블TV들이 많이 생겼고 또 위성방송 또 OTT 등장으로 인해서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KBS 같은 지상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송법이라든가 이 법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태에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적합한 조치인가 싶어서, 지금 이 지배

구조를 탓할 그런 시기인가?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뉴미디어의 출현은 엄청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영방송 쪽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만 맨날 방송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편중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공영방송은 그러면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도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과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역할도 하고 이런 게 공영방송인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원시적인 지배구조에 얽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사회 수가 어떻게 편성위원회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새로 출범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배구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을 이뤄 나가는 게 훨씬 더 공영방송 경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안정적인 경영이, 결국 뉴미디어라는 것이 상업적 방송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상업적 방송은 국민들에게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는 것보다도 소위 인터레스팅한 그리고 또 자극적인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조금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방송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가요? 그런 연구는 하고 있는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상파 영향력이 크게 줄었고 특히 KBS의 경우에는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최형두 위원 필리버스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영방송으로부터 흑자를 기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

○**이상휘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론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지배구조…… 물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또 방송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독식으로 인한 여론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뉴미디어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는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소위 장악했다 하더라도 장악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쩌면 KBS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의 지배구조 논의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나중에. 왜? 미래 대비 안 하거든요, 지금. 박장범 사장이 AI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하는 거는 늦어요. 뉴미디어의 환경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업적인 방송이 자극적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해치는 그런 환경에 어떻게 KBS 공영방송이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 지배구조 논의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제 살 깎아 먹기입니다.

저는 언론학자로서, 학자라 그러기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논의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부끄러우실 겁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황정아 위원** 디올백 뇌물 수수를 쪼만한 파우치라면서 오히려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걸 비판받자 오히려 그게 왜 문제냐는 식의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시청자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황정아 위원** 명품이라는 표현은 공영방송에선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명품이란, 특히 외국산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여전히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상왕 김건희의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도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개입 정황 목격이·시계…… 구설 끊이지 않은 명품사랑’ 기사 제목입니다. 이 해당 기사에서는 명품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해당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썄,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KBS 9시 뉴스입니다. 사장 말대로라면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사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작진이 꼭 사장의 뜻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우리 회사 기사라고 그러니까 더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황정아 위원** 평가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데, 12·3 내란 직후에도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읊던 KBS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김건희가 잡혀가니까 이제야 윤건희 정권의 실상을 보도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잘못이 다 사라집니까?

지금도 사장은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꾀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는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콘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 온 김건희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조사를 받고 특검 출범 40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사 그리고 인사, 입찰에 대놓고 보이는 그 김건희의 손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에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톱뉴스로, KBS만 나홀로 여덟 번째 꼭지로 배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9월 5일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9월 30일까지 26일간 KBS는 보도 건수 1.5건, 전체 평균이 12.9건인데, 하물며 TV조선과 채널A까지 10건이 넘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야말로 땡 윤뉴스,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실체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아직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 맥락 속에 담긴 김건희 호위무사 박장범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가 수수한 파우치는 디올백이었고 뇌물이었고 김건희는 이외에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 등을 수수한 비위를 수도 없이 저질렀고 그렇기에 박절하지 못했던 그리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단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제는 양심 고백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인터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들 철회하시고 디올백 명품 수수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매체도 있고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정아 위원** 명품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시는 거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정확한 표현은 그 제품의 제품명을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황정아 위원** 제품명을 말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먹고사는 KBS를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파면 당일,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 닐슨코리아 가구 시청률 기준으로 수도권이 8.8%, 전국 8.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가 수도권 4.5%, 전국 5.1%를 기록하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MBC가 이겼지요. 대한민국 1등 뉴스 자리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1위였던 KBS 뉴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습니까?

지금도 조그마한 파우치를 지키려고 하는 박장범 사장과 김건희 여사에 부역하던 그 구성원들이 이 지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별나라에서 단물을 즐기던 자들은 모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조인철입니다.

그거 좀 틀어 주세요.

○최수진 위원 저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시작을 했는데……

○최수진 위원 순서 저인데……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저는 순서 받은 대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저는 받은 대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지요?

○최수진 위원 신성범 위원……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은 저 뒤인데요? 신성범 위원님은 14번입니다.

○최수진 위원 먼저 하세요, 바꾼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질의 순서가 조인철 위원입니다.

○최수진 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조인철 위원 틀어 주세요.

(녹음자료 재생)

혹시 뭔지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들어 봤습니다.

○조인철 위원 다행히, 지난번 박민 사장님은 이 통합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고 그나마 지금 박장범 사장님은 통합징수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게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3000원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 노래는……

○조인철 위원 왜 3000원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KBS 정책으로 수신료를 500원 인상하겠다는 거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왜 저 노래가 나오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 노래가 나온 배경은 저희가 4월 달에 상반기에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안정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그러면 다음번 수신료의 목표는 뭐냐? 수신료 인상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저희 KBS가 만들었던 안은 1800원 인상안이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1300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800원 인상안으로 알고 있는데……

○조인철 위원 3800원 아니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45년 만에, 45년간 못 올린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상이 목표다라고 정했고 그러면 저 노래는 뭐냐? 얼마 액수를 결정할 때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500원이라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인철 위원 상징적인 거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AI 자동 작곡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나온 겁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는 1300원에서 52% 올리자였고 지금 한 20% 정도 올리자는 건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1300원이네요.

○조인철 위원 상징적인 거라니까 500원이라도 올리자 뭐 이런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심정적으로는 45년 만에 100원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KBS’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직원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우리 KBS, 아니면 일반 국민 중에 우리 KBS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들어 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직원들은 얘기할 수……

○조인철 위원 직원들이야 그냥 뭐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겠지요. 그냥 우리 KBS 이렇게 하실 텐데 진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이……

○조인철 위원 많이 있어요? 우리 KBS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다 물어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KBS에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 시청자 중에 우리 KBS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반 시청자분들이야 우리 KBS라고까지는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애정을 가지고, 진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우리 KBS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일반 분들 중에는 드물……

○조인철 위원 거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KBS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수신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수신료 올리자, 저번에 1300원 올릴 때도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왜 지금 올려야 되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 500원이라도 올리자라는 심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십시오. 재무 상황 어떻습니까? 거의 쥐어 짜시고 있잖아요. 새로운 콘텐츠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줄이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축소 경영이지요,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신뢰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2023년, 22년 그때는 KBS의 신뢰도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MBC보다도. 지금 24년, 25년 어떻습니까?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거 보면 뒤로 확 밀렸지요. 그런 상태에서 돈 500원이라도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일반 국민한테 먹힐까요?

수신료 징수, 요금 결정 과정 절차를 보면 기재부도 다녀와야 돼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조인철 위원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일반 국민이 전혀 인정을 안 해 주는데? 그때 1300원 올릴 때 실패했던 것도 이런 요인이었을 거고 이번에 500원 올리자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퇴장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드디어 최수진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최수진 위원 아까 착각했습니다. 순서 바뀌어 가지고……

○조인철 위원 사과하세요.

○최수진 위원 사과합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좀 나와 주세요.

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의 것도 아니고 노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3법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권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정권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고 저는 비판과 균형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법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지요.

나오세요.

일단 첫 번째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KBS 경우 이사회 11명에서 15명 맞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구성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둘, 맞지요?

○참고인 박상현 현재 의석수 비율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외부 단체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임직원, 임직원의 경우는 노조가 들어갈 수 있지요?

○참고인 박상현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참고인 박상현 노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임직원 과반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최수진 위원 과반의 찬성에서 지금 노조 구성이 KBS는 몇 %나 됩니까?

○참고인 박상현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언론노조 KBS본부가 과반 노조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방송학회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인가요, 보수 성향인가요?

○참고인 박상현 그거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변호사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참고인 박상현 역시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방통위의 위원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임원들과.

- 참고인 박상현 방통위가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분들께서 합의해서 정하실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시청자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 참고인 박상현 현행 시청자위원회는 사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현행 말고 이 법에 의해서, 누가 정하나요, 새로 법에 의해서?
- 참고인 박상현 법에 의해서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를 정하는 데요.
- 최수진 위원 편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참고인 박상현 그것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방통위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뒷부분 가서 얘기하시지요.
- 참고인 박상현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최수진 위원 다음.
- 참고인 박상현 그리고 위원님……
- 최수진 위원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 10인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 참고인 박상현 예.
- 최수진 위원 자꾸 방통위 얘기하지 마세요.  
사측 다섯, 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다섯 맞습니까?
- 참고인 박상현 예, 맞습니다.
- 최수진 위원 자꾸 방통위 얘기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합시다.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이번에 들어간 거 아시지요?
- 참고인 박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참고인 박상현 없었습니다.
- 최수진 위원 그러면 편성위원회는 꼭 구성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 참고인 박상현 해야 됩니다.
- 최수진 위원 다음.  
사장추천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거 아시지요?
- 참고인 박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사장추천위의 구성은 누가 하지요?
- 참고인 박상현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수진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 참고인 박상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천 단체들에 의해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민영 보도채널까지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박상현 민영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좀 다릅니다.



○최수진 위원 어떻게 달라요?

○참고인 박상현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인구 비례 할당이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100명 이상의 시민대표단을 꾸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영 보도채널 같은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와 민영방송의 이사회가 합의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상현 상당히 다릅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왜 다르지요?

○참고인 박상현 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신 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민대표단을 꾸리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운영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민영 보도채널은 그렇다 치고 공영방송은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거지요?

○참고인 박상현 아니, 공영방송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수진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노조 코드, 민주당이 임명을 하고 그 노조 코드 인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책임자 같은 경우는 다시 임명동의제가 생겼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노조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그 부분 역시 편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편성위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KB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섭대표 노조가 없기 때문에 각 직능협회에서 전체 편성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KBS는 전혀 노조가 관여가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고인 박상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사장께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저 얘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무래도 노조가 3개 노조가 있는데 직원들의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노조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 노조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지금 방송법에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이 통로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그 통로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사업장이든지 간에 노동조합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최수진 위원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 말 조심하십시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참고인 박상현 예.

○위원장 최민희 박장범 사장, KBS에 노조가 1·2·3 노조가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성격이 다 다르지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민주노총의 지배하에 놓인다는 건데 그 세 노조가 다 민주노총 지배하에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노조가 다 다른 노조지요.

○위원장 최민희 다르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노조원 가입 수가 가장 많은 KBS 노조가 과반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 노조가 제일 많지 않고요.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의 조합원 수가 제일 많고……

○위원장 최민희 많은데 과반이 되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과반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들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노조위원장께서 저보다요.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면 일종의 다른 그림 찾기처럼 보이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모기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글자를 저희가 좀 확대해서 써 봤습니다. 바로 ‘혐의’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올해 1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편 아시지요? 대답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주희 위원 이 방송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는지 또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이 왜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음모론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 혹시 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이 방송 이틀 후에 이상하게도 제작한 기자들이 ‘이러니 파우치 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작진들이 성명을 통해서 주장한 바는 결국 그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방영하는 과정까지 심각하게 제작 자율성을 침해당했다’ 그런 외압을 폭로한 것이고요. 같은 취지로 우리 KBS 노조에서도 ‘회사의 위임 규정에 따라 부장이 승인한 원고에 국장이 간섭한 것도 놀랄 일인데 본부장까지 직접 나서서 프로그램을 난도질했다. 명백한 외압이자 검

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 사장님의 동의와 상관없이 좀 사실관계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문제없이 통과했는데 사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대로 안 담았다. 윤석열 측 입장 제대로 안 담았다. 윤석열과 박장범의 파우치 대담 영상 왜 넣었나’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편파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나. 내용이 많이 불편하다’ 판지를 걸면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에서는 팩트가 틀린 부분 없는데 왜 수정해야 하는지 이유 알려 달라고 했지만 그 이유 절대 알려 주지 않았고요. 설명하지 않은 채 방송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이 나서서 국장의 방영 결정까지도 뒤집고 불방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에 공개됐던 예고 영상까지 삭제됐던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장님, 이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자율성 침해 과정에 대해서 사장님 컨펌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실무자와 그리고 또 데스크라고 하지요,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저렇게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법에 편성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일이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 자율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편성의 자유를 넘어서서 KBS 편성규약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하고 침해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특히 여기 PPT에 나온 것처럼 제목에 ‘혐의’ 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체포 거부하는 대통령 부분의 내레이션을 삭제하고서야 결국에 이게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지금 KBS 방송 편성규약 보시면 6조 2항,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금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6조 3항,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의무 위반했습니다. 4항,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역시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편성규약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안이 아마 사측에서 먼저 공방위 개최를 요구한 초유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백하게 조문상으로 보면 방송 편성규약 위반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

그냥 지나가실 셈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

○이주희 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이번에 방송 규약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방송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이번 사태 바로잡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꼭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박 사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아까 앞서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정연주·고대영 사장 두 분 다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고대영 사장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과거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을 때 민주당 정권, 소위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민주당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선 게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 가지고 모욕을 주고 사장 출근하는데 욕하고 옷 잡고 한참 세워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사들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2017년 민주당 연찬회에서 나온 방송장악 문건에 내부 구성원들을 동원한다라는 취지의 그 문건 내용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서 노조라는 말은 그때도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런데 나선 게 누구입니까? 언론노조 아닙니까? 그렇게 폭력을 쓰고 한 게 언론노조원들 아닙니까?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당시 노조에서 파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방송법에 노조라는 말 한마디도 없다고, 언론노조나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방송사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과반 노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MBC는 과반 노조 이상이지요. KBS, MBC, SBS 그리고 다른 방송사까지 하부구조를 사실상 완벽하게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인 영향력이 그렇고?

지금 우리 사장님 출근할 때는 괜찮게 출근하니까, 아니면 또 욕설하고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다행이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출근 첫날은 일일파업을 했는데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소위 그런 봉변을 당한 사장들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게 폭력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조라는 글자는 한마디도 없다, 그게 사실 더 교묘하고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구성원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방송 만들고 하는 게, 그리고 보수 계열 운운하고…… 아니, 이게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진영에 관계없이 공영방송은 다……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무슨 미국처럼 CNN이나 FOX News로 민영방송처럼 갈려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이사추천 그룹에 보면 시청자위원회, 학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국민의 대표권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가지고 오만하게 우리를 평가하는 저 언론노조 KBS본부장 저런 분이 국민의 대표라고 누가 대표권을 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사자도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 관한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사추천 단체가 선정됐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법을 통과시켜 놓고…… 사실 또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종사자라는 게? 이게 계속 노래를 부르던 이해충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더 강화된 상황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 그리고 편성위원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영진에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오래되고 이러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경영진보다도 프로그램 편성 관련해서는 편성본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편성본부에서 오면 최종 판단은 좌우지간 경영본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사회는 안 하고요.

○**김장겸 위원** KBS는 그런 구조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임원회의에서. 제가 지금 KBS 구조는 이사회,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 구조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위원회를 이렇게 법제화해 놓으면 이 프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이념적이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해서 쉽게 편성을 바꾸거나 개편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순서……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으로 돼 있는데……

○이해민 위원 방금 저보고 바꿔 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위원장 최민희 누가요? 누가 바꿔 달라고 했나요?

잠깐만요. 순서 바꾸시는 것은 간사와 의논하는 거예요. 임의로 위원님들끼리 바꾸고 가만있으면 진행을 못 하지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제가 오늘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대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비하면. 왜 그럴까 봤더니, 추측입니다. 새로운 정권 들어왔지, 그나마 사장 자리에 앉게 해 준 대통령 부부는 구속됐지, 그러니까 여당에 어느 정도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1야당 보니까 새로 뽑힌 대표는 돌아온 윤석열 세력이고 이쪽저쪽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도 저도 지금 대답 못 하는 식의 답변이 계속 나와요. 전에 대답도 못 하시던 시청료 통합징수 예산론자가 갑자기 됐다가 내란에 대해서는 답도 못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질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 들어가기 전에 인사청문회 때 했던 질문을 다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3당이 묻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 질문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무리 들어 봐도, 저도 여러 번 들어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중간을 잘 타시네요.

이제 슬라이드 들어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 보시듯이 KBS 굉장히 심각한 경영위기입니다. 2024년 거니까 사실은 본인은 이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취임할 때부터 어려웠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경영개선을 기대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다음 거요.

KBS 사장 지원 당시에 지원서, 경영계획서 이렇게 했습니다, ‘10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개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요?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실행했다, 새롭게 변화시켰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3개만 꼽아 주시지요. 번호로 뽑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7번 AI가 제일 제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고요.

○이해민 위원 예, 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6번 디지털미디어도 연관이 됩니다.

○이해민 위원 예, 디지털미디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리고 3번은 늘 저희가 해야 하는 재난방송이고요.

○이해민 위원 재난방송.

재난방송체계 고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도를 찾아봤더니 이런 시청자 청원이 올라왔어요, ‘KBS, 지방은 불타는데 생생정보, 6시 내고향, 시청자 청원’. 체계 고도화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재난 포털사이트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혹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용률 평균은 모릅니다.

○이해민 위원 아니, 이것을 사람들보고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뭐랑 비슷하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타버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을 3개 중의 하나로 꼽다니 놀랍습니다.

AI 폼으셨는데 네이버하고 협약을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해민 위원 협약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체 다……

○이해민 위원 협약 내용이요. 제가 왜 여쭙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신문협회 같은 언론단체가 뉴스데이터 언론공동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 쪽에서 처음으로 KBS가 튀어나왔습니다. 따로 개별 계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AI 학습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겨 버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KBS가 따로 튀어나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민 위원 같이 얼라이언스 해서 이제는 콘텐츠의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을 AI 기업들과 협약을 맺게 됐는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도 진행 중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협약서가…… AI에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곳, 그다음에 콘텐츠를 학습시키고 사용하는 곳, 이 두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계약이 성사가 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이 레퍼런스로 삼아서 다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공동대응을 하는데 튀어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청을 드린 것은 협약서 내용 이 부분, 어떤 것을 주고받는지, 어떤 계약조건인지 이걸 공개를 할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MOU라는 것이 그렇듯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이해민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상호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사가 공동대응하는 것에 뛰어나간 적이 없고요.

○이해민 위원 그러면 방송 3사가 같이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네이버와…… 포괄적인 겁니다, 지적재산권은 그 일부분이고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이해민 위원 그래서 협약서는 공개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기업 간의 협약서는 일방이 공개할 수는 없지요.

○이해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해 봤는데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두 분이, AI를 붙이면 뭔가 되게 팬시(fancy) 해 보이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AI 전환시대에 새로운 방송의 나아갈 길, 방향성 잡아가야 되는데 좀 한심합니다, 두 분 이렇게 투샷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쩌면 사라져야 될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방송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분은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KBS는 YTN과 더불어 유일하게 신뢰도가 하락한 언론이에요. 한국언론재단하고 로이터 미디어연구소에서 공동조사했는데 KBS는 신뢰도가 -3% 떨어졌고 YTN은 -1% 떨어지고 다른 언론사들은 몇 %씩 다 올라갔어요, 5% 올라간 데고 있고.

박장범 사장, 이 두 언론사 공통점이 뭐예요, KBS하고 YTN?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썽요.

○**이훈기 위원** 공통점은 낙하산 사장이예요, 정권의 낙하산 사장 박장범·김백. 그리고 김백 사장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책임을 지고.

그리고 KBS 2024년 작년 단기순손실 735억 원,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760억 이후 최고예요. 이 기간에 MBC는 215억 순이익, SBS는 적자 보고.

그리고 아까 상반기에 적자가 400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올 1년, 2025년 예상 적자는 950억, 작년보다도 적자가 216억 늘어난다는 경영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박장범 사장만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박장범 사장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작년보다 경영이 훨씬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6개월만 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는 12월을 제외하고 열한 달을 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훈기 위원** 수신료 분리징수가 복귀되는 게 10월 아니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0월 이십 며칠인데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말일 날 제도가 바뀌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 11월 1일부터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훈기 위원** 그것은 됐어요, 됐고.

원래 박장범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때 왔어요. 거기에 대한 경영계획을 세우고 그때 청문회 할 때 어려운 상황에 KBS 감당 못 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KBS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영계획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KBS 살릴 수 있는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단 통합징수를 통해서 1000억 원가량 수입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건 됐고, 다른 계획.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AI를 통해서 제작비 절감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 KBS 수신료 통합징수 하고 박장범 사장이 KBS 내에 자기가 했다고 막 떠들고 다녔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되게 불쾌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님.

○**이훈기 위원** 아니, 들어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불쾌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래도 공영방송이 살아야 되니까 결단을 내려서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켜 줬어요. KBS도 의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박장범 사장은 내가 로비하고 내가 역할해서 이거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도 답변하는 게 자기가 통합징수 일궈 내서 경영에 도움줬다는 식의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했다는 소리는 한 적 없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구성원들한테 듣고 자화자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훈기 위원님, 그런 적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서 사과해요, 그 부분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사과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KBS 유튜브 조회수, 올해 박장범 사장이 오고 나서 쫓겨요. MBC의 4분의 1 수준, SBS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광고와 관련 있는 KBS 2TV 시청률 MBC, SBS, 쫓겨요. 이게 박장범 사장이 와서 받는 평가예요, 방송·경영 몇 개월 안 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답, 지금 MBC 바이든 날리면도 외교부가 사과하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듣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권에서 아니라고 그러다가 외교부도 인정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박장범 사장의 이 진행은 바이든 날리면에 비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쉬운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정권을 비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디올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타기를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어 주고……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으로, 그것도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그래서 박장범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KBS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 하나만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계획, 경영 수칙, 유튜브 조회수, 시청률, 모든 거에서 낙제점이에요. 저기 계신 김의철 사장은 나중에 KBS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하면 사퇴하겠다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KBS를 살리기 위해서. 박장범 사장은 KBS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능한 박장범 사장은 결단을 내리고 물러나야 돼요, KBS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KBS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 위원님, KBS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는 KBS 이사회가 결정하고요.

○**이훈기 위원**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치인이 KBS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면 오히려 방송 독립을 말씀하신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방송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대답 프로 하나 만으로도. 어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독립 운운할 그런 자격은 없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백분 동감합니다.

박장범 사장님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최민희 위원장이 새벽 5시 40분경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해 가지고 걸린 건에 대해서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고 집의 아내분께서 골프를 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것 기억이 납니다.

○**김우영 위원** 그 골프를 누구랑 가서 쳤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학부형들이랑 같이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도 골프를 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요?

○**김우영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올해는 한 번인가 두 번 쳤습니다.

○**김우영 위원** 집의 아내분께서는 골프를 지금도 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가끔 칩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좀 걱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최은순, 김건희 모친의 요양원이 그 근처에 있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박장범 사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재산신고를 보니까 어머니는 독립가구로 재산신고를 안 했던데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집 옆에 사시는데 보증금 6억에 월세 30인가 35만 원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김우영 위원** 어머니께서는 특별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골프를 치시거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연세가 90입니다.

○**김우영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사들이 사장으로 추천·권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김건희·윤석열 정권하에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인사 추천 과정 같은 것들을 보면 김건희 일당과의 사적인 네트워크 없이 KBS라고 하는 막강한 언론기관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성태운 정책실장, 일요진단 객원 출연진이었는데 그분의 영향력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과거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요진단 객원이 아니라 KBS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우영 위원** 어쨌거나 성태운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KBS 이사회의 추천이 아니라 KBS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김우영 위원** 표결이든 추천이든 이사회가 윤석열의 임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임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윤석열의 추천과 간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박장범 앵커 일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 위원님.

○**김우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떤 관계라도 있으면 제가 사장직 포기할 테니까 김 위원님 의원직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김우영 위원** 예, 한번 저를 고소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위원장대리 김현** 잠시만요.

○**김우영 위원** 수사 한번 해 봅시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명백하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김건희의 하수인으로서 KBS, 국가의 공영방송을 파우치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내란의 주범에 동조한 자가 책임감도 없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내란에 왜 동조했습니까, 제가?

○**김우영 위원** 아까 그랬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2월 달에 대답하고 12월 달에……

○**위원장대리 김현** 잠깐만요, 박장범 사장!

○**김우영 위원** 내란행위가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을 때 KBS 메인 앵커가 가 가지고 김건희에게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에게 승부사라고 날개를 달아 주고 그게 내란 동조 행위지 뭐겠어요? 국민의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이 특정 권력자의 도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박장범 기자,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아무 관계 없는데 뽐혀요? 그 과정을 다 수사해 볼까요?

KBS 이사로부터 임명 제청 당할 때 전후 과정에서 전화기록 다 낼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표결을 통해서 임명이 됐고, 저희 KBS 이사 중의 네 분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KBS 사장을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법원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처분 냈습니다. 법원에서 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고 국회에서 3일간 청문회 했고 행정부 수반의 임명을 받아서, 입법·사법·행정부 다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당당하게 임명됐으면 왜 KBS의 많은 구성원 또 KBS 감사도,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기 측근을 감사대행으로 앉혀 가지고 자기 감사를 하게 하고 이해충돌에 빠지게 하고……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가 자기 인사 사안을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걸려서 감사실에 있는 부장 네 명이 기피신청을 해서 제가 법에 따라 한 겁니다.

○**김우영 위원** 이보세요. 본인이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감사로 대행을 시키는 것 자체가 사장이, 그 사장의 전횡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감사하라고 감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기 측근을 거기다가 앉히는 게 말이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우영 위원님, 다른 감사는 다 통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정리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직을 건다고? 수사 한번 해 봅시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 직과 가족과, 의혹이 밝혀지면 직을 겁니다. 김우영 위원님도 국회의원직을 거시겠다는 말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수사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박장범 사장, 지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무슨 보수의 남전사로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이후부터 답변할 때 최소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경고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공영방송 사장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경고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태도가 매우 보기 불편합니다. 답변에서, 적어도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 곧추앉아 가지고 의사에 털썩, 털퍼덕털퍼덕하지 않습니다.

박장범 사장, 잘 보세요. 제가 오전에 한민수 위원 질의 때 눈을 흘기고 독하게 찌려보고 있는 것도 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김우영 위원 질의할 때 답변하면서 ‘김 위원, 김 위원’ 한 것 제가 앞서 위원장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호칭을 정확히 쓰시라고.

공영방송은 표준어를 써야 되고 방송법 준수를 해야 될 방송사입니다. 표준어를 쓰시고 호칭을 정확히 쓰십시오. 왜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원의 호칭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 위원, 김 위원’ 하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 경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앞에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셔도 되고 하는데 불편한 태도 보이지 마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현** 아니요, 발언하라는 게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위원장석만 가시면……

○**위원장대리 김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간사님.

○**최형두 위원** 위원장석만 가시면 왜 그렇게 또……

○**위원장대리 김현** 아니, 너무 흥분된 태도를 좀 가라앉히는 게 위원회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최형두 간사님도.

○최형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현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 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됩니다.

AI 대전환에 대해서 KBS도 발맞추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해민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박장범 사장의 10대 핵심전략 가운데 AI를 뽑으셨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AI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AI에 주력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을 도입해서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좀 줄이고 빨리 제작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콘텐츠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채널도 2개고. 이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바뀌어서 재원과 수익구조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AI에 대해서 그렇게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이 있을까 찾다가 찾은 영상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한 30년 가까이 방송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똑같이 28년을 방송기자로 일했는데 그래서 방송 뉴스에서 방송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AI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토이 아바타 TJ,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것은 저희가 KBS AI 제작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통은 방송사를 대표해서 누군가 설명을 할 때는 사장님이 나서기보다는 메인뉴스 앵커라든지 스타 아나운서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내세우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굉장히 겸연쩍을 것 같습니다. 겸연쩍다, 쑥스럽거나 좀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AI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까,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누구 할 사람이 없어서?

이 AI 영상을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비용은 많이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의외로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이정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KBS가 AI 대전환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들어갔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제작한 영상에 사장님이 나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굉장히 겸연쩍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저것 언제 제작했지요?

지난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KBS미디어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박장범 사장이 AI 모델로서 본인의 브랜딩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AI 대전환을 위해서 써야 할 사업비를 본인의 얼굴을 내세워 가지고 저렇게 토이 TJ 이런 것들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의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신료로 재원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과 KBS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더 다른 일들에, 더 많은 일들에,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사장에 다시 응모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사장 응모에 떨어진다면 사장을 안 하시게 된다면 저 예산, 어떻습니까? 저 동영상 활용하는 것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알기로는 저 동영상을…… 글썄, 얼마나 들었는지 금방 조사가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그래서 KBS에 물어보니까 제작 관련 소요비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답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희가 알아보려고 물어보니까 답도 하지 않았어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데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AI방송혁신자문위원회, 이것 관련 소요예산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공사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저런 모델 해서 방송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차라리 현업으로 돌아가서 방송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EBS 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EBS법이 제가 13시간 반에 걸친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는데 쟁점 중의 하

나가 EBS 새로운 개정법에 따르면 교육계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는 법정단체인 교총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단체가 보니까 교총이 있고 또 전교조가 있고 또 교사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하나 더…… 교총은 당연히 이사 들어갈 테고 그러면 전교조나 교사노조 2개 중의 하나인데 어느 단체가 추천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총 교육계에서 교육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의 한 분 하고 지금 현재는 교총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교원노조하고 전교조가 있는데 글썄, 기준을……

○최형두 위원 기준이 있어요, 그 법에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가입자 수로 할지……

○최형두 위원 법에 보면 활동기간, 활동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표성이라든가……

서이초 사태 이후에 교사노조가 전교조의 3배 이상입니다, 나는 교단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만일 교사노조가 배제되고 전교조가 된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그것은 제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건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방통위 규칙에 사장님이 가이드라인 주시면 안 돼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제가 그것을……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교육방송을 해 봤으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최형두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공영방송은 위낙 노조가…… 교육방송은 노조가 굉장히 세던데, 노조 가입률이 한 70~80% 됩니다. 여기는 MBC·KBS랑 달리 그냥 단일 노조에 대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언론노조 산하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EBS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꼭 굳이 EBS 이사회에 들어가서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EBS의 종사자가 추천하는 건 아마 KBS나 MBC하고 다르게 한 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형두 위원 종사자라는 게 다 조직…… 저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노조위원장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문사랑 방송사 매우 달라요. 방송사는 파업을 할수록 힘이 세져가지고 사내 권력이 돼 있습니다.

지금 MBC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들 다 보면 왜 이렇게 방송이 전쟁터가 되었나.

지금 그걸 위해서라도 방송사 내에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주류 세력들이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빚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MBC 1노조가 3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1노조 출신 노사동일체입니다. 노사동일체가 3노조를 상대로 핍박한 것이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보니까 교육방송이 특히 지방의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이것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9월 달에 포천시에 5개가 오픈을 하고요.

○최형두 위원 포천시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 포천만 합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아니, 포천시는 선도적으로 먼저 실시를,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 와서 먼저 오픈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50개가 아마 조만간 심사를 끝내고 발표를 예정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최형두 위원 이게 만일 되면…… 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번에 교과서로 되었다가 민주당에서 너무 걱정을 해서 가지고 이걸 참고자료로 해 버리면서 사실 굉장히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델을 따라서 싱가포르하고 대만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봤을 때 AI 기반 개인화 학습환경 설계 서비스 운영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시청률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굉장히 고급의 AI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최형두 위원 그래서 오늘 국회 지적에도 보면 출판, 디지털 구독, AI 에듀테크 등 교육콘텐츠에 연계된 부가 수입원을 적극 개발하고 출판 사업의 수요 예측과 재고관리체계를 고도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이유 중의 하나가 AI하고 디지털 수익 쪽에서 발생한 부분이 상당 정도 기여를 했고 올해는 수익이 지난해보다는 거의 배 이상 또 확대가 되고 있어서 흑자 폭도 좀 커질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센터에도 AI 기반의 웹서비스가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100% AI 기술로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지난해부터……

○최형두 위원 제가 또 여쭙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고교 사교육 경감, 고교 강의 사업인데 이것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것 보면 억제효과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실제 절감효과보다는 억제효과가 한 1조 2000억 정도 있다는 전문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화상 튜터링이 가능합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화상과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대 1로다가 화상으로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최형두 위원 이것은 교사 멘토가 있고 대학생 멘토가 있는데, 멘토와 멘티 관계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 어느 정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지금 반응이 좋고요. 지역에서 가입자 반응이 아마 한 95% 이상이 만족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사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한번 해 본 사례 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지금 현재는 아마 몇천 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박장범 사장께서 아까 제가 시청자위원들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닙니다. 수신료 통과 이후에 자축 행사라고 말씀, 그런 것처럼 들렸는데……

○김현 위원 자축 행사 하셨잖아요. 열린음악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들 250명 불러다가 국악공연 관람하시고 캘리그라피 공연 관람하시고 만찬도 하셨잖아요. 이게 행사가 아니면 뭐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자축 행사가 아니고요.

○김현 위원 그러면 행사가 아니면 뭐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시청자위원들을 위해서……

○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생각과 노선은 다르더라도 그동안 통합징수를 위해서 고생하신 본부 노조원들하고는 만나셨습니까? 내지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저는……

○김현 위원 들으세요.

내지는 뒤에 앉아 계신 PD협회나 방송기술인협회나 기자협회장들 만나서 통합징수 관찰시키는 데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간담회라도 하신 바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만나는 자리에서 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도와줘서 고맙다. 함께해 줘서 고맙다’였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식사라도 하시고 하신 적 있습니까? KBS본부 언론노조 조합원들하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조합원들이랑은 가끔 하고요.

○김현 위원 아니요.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와 관련해서 만찬 하고 열린음악회 하고 해서 1억가량 소요하셨는데, 행사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 또 같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저희가……

○김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에 관계없이……

○김현 위원 아니, 그 뒤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열심히 한 직원들 다 격려했습니다.

○김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격려를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밥을 사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 위원 박상현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당시 성명서 발표하셨을 때, 이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지금 수신료로 파티할 때입니까?’라고 성명서를 내셨는데 지금 박장범 사장의 코멘트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박상현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박장범 사장이 지역에 있는 시청자위원들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팔도 유람을 다니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그렇게 결국은 수신료로 소요되는 행사를 했더라는 것이 저희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 역시 수신료로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신료로 파티할 때이냐’라는 성명을 썼던 것입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수신료지사를 빠짐없이 방문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수신료지사는 방문하지 않았더라는 의미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직접 고생하신 분들은?

○참고인 박상현 예.

○김현 위원 하셨다는 얘기하고 배치되잖아요, 고생하신 분들 다 격려하고. 그렇지요, 박장범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수신료 결합징수 과정에서 힘을 모아서 애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신료지사를 방문했어야 된다는 노조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는 분명히 하신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연임 내지 나중에…… 방송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요, 통과되고 나면 시청자위원들에게 사장의 공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항간의 의혹 제기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 공치사하셨습니다. 공치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 단적으로 이 행사를 치른 거라는 점 말씀 드리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시청자……

○김현 위원 신뢰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신뢰도를 쭉 보면 KBS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졌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앵커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발언 때문에 사장이 됐고 그 사장이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있는 한 KBS 신뢰도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MBC하고 KBS가 예전의 상황을 보면 역전됐고 그

격차가 상당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KBS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노릇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 한번 띄워 보시지요.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 설치 의무가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현재 편성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 위원** 편성위원회는 구성토록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분과별 편성위원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편성위원회 구성 안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체 편성위원회도……

○**김현 위원** 안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번 주 금요일 날 TV편성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김현 위원** 안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분과별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편성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제정된 KBS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안 돼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체 편성위원회는……

○**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분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박상현 본부장님, 편성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성명서 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아닌가요?

○**참고인 박상현** 전체 편성위원회가 안 돼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편성위원회. KBS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편성위원회가 마치 동수로 했을 경우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인데요. 편성위원회는 2019년도에 구성토록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이번에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균형감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윤기 KBS PD협회장님 그리고 이승철 기자협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편성위원회는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시작된 논의가 아닌 건 아시지요?

○**참고인 강윤기** 예.

○위원장 최민희 방송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강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편성위원회를 주장한 이유가 뭔지 강윤기 회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강윤기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더 라이브’가 폐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도본부에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거나 MC가 교체가 됐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다큐가 불방이 됐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가 결방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고 국장 임명동의제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승철 기자협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 운영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일이 편성위원회에서 생길 수 있나요?

○참고인 이승철 기본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겠지만 그것은 편성 책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들이 일을 잘하는데 단지 걸 생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승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편성위원회 부분은 오랫동안 방송계의 숙원,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가 있는 거고요. 애초에 시작은 예를 들면 사장이나 임원진, 특히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와서 편성을 좌지우지하고, 예를 들면 지난해 8월 15일 딱 자정이 끝나자마자 8월 15일이 될 때 소위 ‘나비부인’ 편성하고 이런 거 제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승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나가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나가는 그런 점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아까 이주희 위원님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들어갔던 그 글자 그거 넣기 위해서 싸우신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참고인 이승철 예, 그런 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외압에 의하여, 사실 KBS 사장을 3년 임기를 준 건 정권의 외압에 맞서서 방송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박권상 사장 그렇게 하셨고요. 정연주 사장, 광우병 보도 때 정권의 모든 외압으로부터 내부 자율성을 보장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나면 정연주가 정권의 눈 밖에 났다, 버림받았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장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강직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이제 법에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제해서 사장이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제작자들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참고인 이승철 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요구해 왔던 것이고 단체협약을 통

해서 이미 마련돼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바뀔에 따라서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실효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법에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습니다. 의무화한 겁니다, 의무화. 그리고 의무화함과 동시에 처벌 조항까지 일부, 그것도 미약하지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상하게 보수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은 노조를 악마화할까, 노조가 악마입니까?

○참고인 이승철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장의 경영 능력 중에 중요한 것이 직원들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그 지휘 대상에는 노조와의 협상, 노조도 포함되고 노조와의 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 할지 언정 악마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들어가고요.

저 1분 남았으니까……

김승준 방송기술인협회장님, KBS에 헬기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승준 지금 헬기 1대가 있는데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헬기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KBS가 취재를 한다거나 보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헬기가 필요하나요?

○참고인 김승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주로 재해현장을 갈 때 필요한가요?

○참고인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헬기를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는 눈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드론으로 대체하기는 힘든 거지요?

○참고인 김승준 오늘같이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도 드론은 뜰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헬기가 못 쓰게 됐다는 거지요, 너무 오래 안 써서?

○참고인 김승준 예, 저장성 검사라는 것도 해야 되고 감항성 검사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난 박민 사장 때부터 매각 결정을 한 이후로 그런 장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고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KBS는 그 헬기를 방치함으로써 취재활동에 쓰지도 못했고 이제 는 그것을 처분하고 취재활동에 필요하다면 헬기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인 김승준 거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헬기를 오버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거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취재활동에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지 조금만 생각하고 이따 제가 재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승준 예.

○위원장 최민희 지금 몇 시지요? 6시 50분인데요 8시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열면 되겠지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전부 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보충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귀 회사 KBS 방송편성규약입니다.

아시다시피 편성규약은 방송법에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노종면 위원 제16조(국장 임명동의), 일부 취재, 그러니까 보도를 책임지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서 세부사항을 그냥 단체협약이 아니라 2019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지만 지금 안 지키고 있고 앞선 질의에서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노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거기에서 노조가 소송 자격 문제로 각하가 됐고 법원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그것에 기대서 지금 임명동의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전임 사장과 노조의 문제이고 박장범 사장에게는 KBS의 대표로서 방송편성규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지금 방송편성규약에는 새 방송법과 무관하게 효력이 있는 편성규약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 특정한 연도를 저렇게 적시한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못한 현 상태는 불법 상태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편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성위원회를 공방위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장범 사장이 들어서고 대표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실효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편성규약에 이미 대표노조가 없어도, 단협이 없어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 체제 녀 달 동안, 지난 4월에 단협이 실효된 이후로 녀 달 동안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저 편성규약은 법이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와의 문제가 너무 시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자격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PPT 보시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KBS는 감사기구의 장이 있으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입니다. 시행령도 같은 취지고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KBS가 이 법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KBS 감사직무규정이예요.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누구예요? 박찬욱 감사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사실장이든 감사과장이든 임명하도록 KBS의 직무규정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지킬 명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고요? 자신이 대법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 줄 알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감사가 지금 존재하고 감사가 직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가 감사실에, 과에 인사를 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리고 부적격자,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서 결격이예요.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는 KBS 감사, 박찬욱 감사가 지금 감사실 내에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 국회에 와서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자를 왜 내버려둬니까? KBS 사장이 무슨 민간기업으로부터 월급 받아요?

다음요.

이런 문제로 지금 박찬욱 감사가 사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꿈수 중의 꿈수를 썼습니다. 무슨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 그러니까 박찬욱 감사 혼자 감사 못 하도록 옆에 누구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한 번 하든 열 번 하든 한시적으로 하든 지속적으로 하든 감사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나 현직 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공동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 감사만 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감사, 사장이 뽑습니까? 공모를 거쳐서 방통위에서 선임합니다. 그게 바로 개방형 임용이예요. 아무리 한 건의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시켰습니까?

여기 정국진 경영본부장 와 계세요? 계세요? 나와 보십시오.

본인이 감사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선임한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그런 자가 사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국진 제가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된 것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7조에 의해서……

○**노종면 위원** 그게 꿈수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듬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국진** 이것은 절차적 과정으로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정 본부장은 박장범 사장이 내리쬘은 경영본부장이예요.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런 자가 사장을 감사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초등학교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박장범 사장은 지금 열거한 감사의 직무방해, 직권남용에 의한 인사 거부 등등의 책임 그리고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은 불법 상태 이런 것 다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KBS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 그 신뢰에서 수신료도 나오는 거고 시청률도 나옵니다. 박장범 사장이 앉아 있는 한 KBS 하면 조그마한 파우치가 떠오르는데, 김건희가 떠오르는데 어느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고 어떤 국민이 불편함 없이 KBS를 보겠습니까?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알 거라고 봐요. 그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상현 본부장님 잠깐……

국민의힘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방송법이 시행되고 방송 3법이 시행되면 친민주당 기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이 이사를 추천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할 거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신 지적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반박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과방위 회의에서 방송법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다 녹화도 돼 있습니다. 속기록도 돼 있고—대 놓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거다. 방송법 찬성 안 할 거다’.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이. 뭘 찬성을 안 합니까?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요.

저는 답답한 게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 질의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 KBS 6명의 국회 추천 몫 4 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소수 야당으로 남을 겁니까? 국민들 지지 받아 가지고 다수당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 시민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그분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본인들도 노력해서 지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만년 야당으로, 만년 소수당으로 남을 생각입니까? 저 같으면 여당이, 거대 여당이 방송 3법 추진 하겠다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어요. 이제는 KBS, MBC 모두 국민들이 뽑도록 하겠



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사 수 늘리고…… 또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그 100명을 민주당이 어떻게 압력을 행사합니까? 뒤에서 배후 조종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100명을? 연령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랜덤으로 뽑는 추천위원 100명 이상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도 좀 꼼꼼히 읽어 보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사장 감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이고 감사실은 그 사안이 특수하기 때문에 감사와 협의하여 인사를 해 온 게 KBS의 관례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한민수 위원 KBS 감사직무규정 제9조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9조…… 몇 조인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9조를 보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9개월 정도 사장 하셨으니까 이런 조항은 지켜야지요. 왜 말도 안 되는 관례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무슨 공동수행 직무자인가요, 그런 것 임명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묻지도 않았고, 여기 조항 다시 가서 읽어 보세요, 제 9조.

그리고 아까 박장범 사장이 이해민 위원 질의에서인가 보니까 그때 사장 공모할 때 10대 계획 냈는데 세 번째 것이 그거였지요, 재난방송체계 고도화.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들어 있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물론 박민 사장 때 결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재난헬기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한 대를 팔겠다고 내놓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워낙 오랫동안 운항을 안 해 갖고……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 한 이유가 팔리지 않잖아요.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아홉 차례 유찰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유찰됐습니다.

○한민수 위원 비용을…… 여기서 보면 같은 기종, 기종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기종 대비 예전에 팔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마저도.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있고.

공영방송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주관방송사 아닙니까, KBS가? 그런데 이 헬기 한 대를 팔아 버리면 헬기가 한 대도 없어요.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보유 헬기는 없게 됩니다.

○한민수 위원 일본 NHK 방송 같은 경우는 열네 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 열두 대군요, 열두 대. 그런데 재난 주관방송사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충원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모습을, PPT 보시면 이것 헬기로 찍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헬기로 찍은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찍은 건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마 여러 방송사가 돈을 모아서 임차 헬기 비용을 함께……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각출을 해 가지고 찍었는데, 제가 과면당한 예전 대통령까지 비교는 안 하겠습니까만 빌려서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화질도 좋지 않고 당시보다 제대로 중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체 보유 항공기가 없을 경우에 생기는 긴급출동이랄지 항공중계, 생방송 대응 이것 모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들을, 일전에 박민 사장 때 헬기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른바 모든 노조가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밀어붙였고 헬기는 헬기대로 팔리지 않고 재난 주관방송사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협회장님 계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일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헬기 문제?

○**참고인 김승준** 헬기와 드론은 대체할 수 없는 대체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감항성이라든지 저장성 검사를 안 하고 박민 사장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승준** 사실 지금 수십억 원이 들지 아니면 그 수십억 원을 들이지 않고 아예 새 기종을 사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비단 이것은 비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간 박민 사장이 실행했던 명예퇴직할 때…… 기장님이 명예퇴직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기장·부기장 모두 퇴사했고……

○**참고인 김승준**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 현재 정비사와 중계팀만 있을 뿐입니다.

○**한민수 위원** 정비인력도 다른 데로 다 가 버렸어요, 무관한 업무로 갔는데.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협회장님 말씀대로 저장검사나 이런 정기검사가 중단돼 가지고 정비에 큰 비용이 들겠다고 하세요. 하는데, 원래 2028년, 2029년도에 5000시간 운항에 따른 대정비검사가 계획되어 있었다면서요?

○**참고인 김승준**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운행하고 4400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 대정비를 통해서…… 지금 보관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격납고에.

○**참고인 김승준**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 1억 넘게……

○**참고인 김승준**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박 사장이 결단을

하고 해서 이 헬기를 대정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김승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항공기는 22년에 UHD 카메라로 다시 카메라가 보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는 항공기보다는 화질면이나 수신 감도 면이나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헬기만 보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수 위원 박 사장님, 이것 한번 결단하셔서 고민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잘 협의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팔 심은 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보리밭에 가면 밀이 잡초고 밀밭에 가면 보리가 잡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곡식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토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적 변화가 따르게 되면 콩도 살지 못하고 팔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 정부의 독점 현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면, 우리가 흔히 방송을 이야기하고 언론을 이야기할 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요? 박장범 사장님도 그렇고 이진숙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딜 정도의 자정적 노력을 언론사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작금의 방송의 형태 그리고 언론의 형태 과연 순수할까, 과연 그 의도가 진지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조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뭐냐 그러면 KBS·MBC 공영방송에 대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순수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십니까? 이미 방송, 언론은 카르텔화돼 있고 헤게모니화돼 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

성을 위해서 투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헤게모니화돼 있고 카르텔화돼 있는데 지금 와서 국민한테 방송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제 양심은 그 이야기 못 하겠어요.

박장범 사장님, 제가 좀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별감사,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큰 범죄를 저지른 듯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니까? 특별감사를 방해하신 겁니까, 사장님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의 자격에 대해서 가처분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이상휘 위원 가처분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감사가 임시직이라는 겁니까? 임시 감사라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임시 감사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휘 위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정지환 감사가 임명됐다가 1심에서는 정 감사 임명이 유효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정지환 감사 판결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정이 나와서 퇴직했던 박찬욱 감사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이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할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업무 처리상 봤을 때 인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이상휘 위원 그래서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위배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가 자기의 인사요청안을 사장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할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고 감사실 내에 있는 부장들도 기피신청을 기관장인 저에게 했기 때문에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인데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되는데, 지난 인사청문회 때 여의도 본사 외에 지역방송국 소유하고 있다…… 본사 네 곳, 지역 열 곳 정도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역국 열여덟 곳입니다.

○이상휘 위원 열여덟 곳. 그런데 보니까 지어진 지 30년도 넘었고 40년도 넘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계획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비용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전면 재건축이 필요한 사옥도 있지만 리모델링 수준에 그치고 있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용도로만 저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을 좀 더 수익과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쨌든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BBC와 NHK도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이 터져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 작업 하셔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현재 최형두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결산 보니까 KBS가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이게 3대 주요 수입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매출의 50% 차지한 수신료 수입 이거야 재정상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유튜브라든가 OTT 이런 데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결산에도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보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노후 상태 말고 매출 현황.

방송광고 수입은 2021년에 2700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수입구조가 악화된다 그러면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방송광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서 KBS도 방송광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매체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상파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었나요?

(영상자료 상영)

박장범 사장님, 이 멘트 기억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기억합니다.

○**황정아 위원**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시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였던 박장범 사장이 직접 한 그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의철 사장 해임도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들도 법원 판결을 겹쳐히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박장범 사장은 같은 의미, 반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 때는 제가 앵커였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기 때문에 그 주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멘트를 한 거였고요. 지금은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여쭙어보시니까, 김의철 사장의 해임 역시 잘못됐다고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역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는데 고대영 전 사장 판결과 일요진단 멘트 며칠 뒤에 박장범 앵커는 사내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장범 앵커의 당시 입장문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공영방송 사장 해임에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인으로서 자신들이 행사한 권한에 따른 책임감 역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해임안을 의결했던 KBS 이사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중 아무도 불법행위 확정에 그 어떤 반응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로서 그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제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작성한 멘트입니다.

○**황정아 위원** 양심과 상식입니다. 김의철 사장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박장범의 양심과 상식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고대영은 맞고 김의철은 틀립니까?

2년 전 박 사장이 썼던 말대로 김의철 사장 해임을 주도한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가 김의철 사장 해임처분 무효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다기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분들은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파우치 박장범, 이분들이 파우치 박장범이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도

와준 조력자들이라서 박장범의 그 양심과 상식은 선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장범의 양심과 상식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를 막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장은 그냥 지금 단순히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취소를 막고 있었던 공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전 정권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의철 전 사장 소송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피보조참가인인 박장범 KBS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한 달여 간이나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박장범 사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될 기미를 보이니까 지난 주 목요일에 부랴부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피보조참가인 KBS의 의견을 물어봤고 재판부가 의견을 물어본 즉시 항소 취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전에는 재판부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서 아무 행동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어차피 정부, 즉 주 참가인이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 취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말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그런 언론인, 신념도 양심도 팔아먹은 기회주의자의 표본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본인이 당당하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직을 내려놓고 새 방송법에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방송의 사장으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계속 본인은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눈에도 그 말이 합당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장 자리 김건희한테 아부해서 댔다는 국민의 공분을 피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얄은 피를 부릴 생각을 말고 KBS를 윤석열·김건희에게 상납한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와 함께 직을 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황정아 위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KBS 사장의 거취는 KBS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 거고 정치인이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특히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방송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말과 참 다른 행동을 보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항소 취소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이 즈음에 김의철 전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장범 사장님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의철** 한 가지 사실만 바로잡겠습니다.

저의 소송과 관련해서 KBS,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그 사건을 종료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항소 취하하기 전날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에.

○**황정아 위원** 아, 먼저 또 행동을 하셨군요?

○**참고인 김의철** 아니, 저희도 끝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재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재판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좀 끝내 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박장범 사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그제서야 움직였다?

○**참고인 김의철** 하여튼 그다음 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인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황정아 위원** 말과 행동이 다른……

○**참고인 김의철** 취하하기 바로 전날 제가 재판부에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아까 했던 얘기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강윤기 PD협회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참고인 강윤기** 예, 나왔습니다.

○**최수진 위원** 아, 거기 있네요.

아까 편성위원회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개정 방송법 제4조의2에 의해서 편성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섯,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은 방통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그래서 자꾸 방통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종사자 대표에 협회 등 내부 협회장도 가능한 겁니까?

○**참고인 강윤기** 물론 방통위 규칙을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의 논리대로 보면 PD협회·기자협회·기술인협회 등 내부 협회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언론노조가 들어올 수 있다 그 구조로 이해해도 됩니까?

○**참고인 강윤기** 협회와 노조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최수진 위원** 다르지요, 당연히. 그런데 출신은 대부분 언론노조에서 하시지요. 본인 자체도 언론노조의 정책실장 출신 아니십니까?

○**참고인 강윤기**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PD는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입니다.

○**최수진 위원** 기자협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승철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노조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회사랑 노조의 구성이 5 대 5로 가는 편성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우리로 하면 처음 정말 단추를 다는 그런 시발점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박장범 사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으로 가서, 맨 처음 좀 열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회 구성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아까 말한 편성위원회에서 2명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구조로 흘러가면 보세요, 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학회·변호사단체 그래서 대부분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로 잘만 하면 80~90%까지 육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향들이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구체적으로 방통위에서 어떤 시행규칙을 정할지 또 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5인은 편성위원회에서 추천 방식을 정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성시키려면. 그래서 노조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그 사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자 이것 구성 규칙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하는 자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관장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제 개인 의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구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2명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고……

쟁점 세 번째, 아까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이사회가 주도가 됩니다. 결국은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사회에 맞는 사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다음 쟁점 네 번째에서 봤을 때 보도국장 임명 시에도 과반수 동의가 의무가 되고 비토권 행사를 노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이 이사진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들이 사장 추천 내고 결국 사장을 임명해 맞는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 그런 고리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래서 영구 장악이 결국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민수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아까 ‘계속 소수 야당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대야당이 되거

나 거대여당이 되면 이 법은 꼭 바꿀 거다, 바꾸면 됩니다. 이 구조로 가서는 영구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권이 바뀌면—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을 구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도 그런 얘기하셨지요, 무슨 국민한테 돌려주냐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에서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 사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걸 본인의 방어권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KBS 사장의 자리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분명히 이번 건으로 쫓겨나실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법끼리 상충되는 요소들, 이런 문제는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이 정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공영방송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쁩니다. 그 피해는 어차피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정보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뭐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자리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짚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아까 언급도 잠깐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박장범 사장님, 20일에 한국방송 경영진 일동으로 노조가 KBS를 흔들고 있다라는 제목 성명서 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잠깐 박상현 본부장님 나오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우선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도 드릴 텐데요. 박장범 사장이 이 조그만 파우치, 아까 말씀 나눴던, 그것 말고도 얼마나 우리 공영방송 KBS 명예를 실추했고 회사를 흔들고 있는지 KBS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한번 죽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박상현 작년 12월 달에 취임을 한 이후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란 상황을 다루었던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관련해 가지고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검열 행위가 있었고요. 추적 60분, 일방적으로 편성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삭제를 해 버렸고 그리고 ‘군 항명과 복종’이라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제작진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 정보와 프로그램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제작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정말 제작진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보수 언론단체가 KBS가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편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성명이 발표됐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주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오히려 사장님께서 진짜 회사를 흔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땡윤뉴스 당사자가 이런 성명 내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지금 여기 PPT도 보시면 성명서의 내용도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009년 12월 본부노조 창립 이후에서 KBS 사장은 박장범 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에 불과합니다. 여덟 분이 임명이 되셨는데, 물론 권한대행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 성명에서는 경영진이 본부노조 때문에 5명의 사장이 퇴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부노조 때문에 사장이 퇴진했다는 주장 자체도 상당히 참 무논리이고 그런데요.

우선 이 가운데 임기를 못 채운 사장은 길환영, 고대영, 김의철 사장 3명뿐입니다.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이지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성명에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 문제가 아닌데 경영진이 이런 특정 노조를 비판하는 회사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점도 매우 의아스럽고요. 특히 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읽힙니다. 이 성명서가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KBS 이사회가 꾸려진 이후에 지금 사장 교체 시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마치 박장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그런 어떤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의도가 뻔히 보이면서 또 허위 사실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런 성명서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참고인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본부노조, KBS본부가 창립된 이후에 임기를 못 채운 사장이 3명밖에 없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을 때는 세월호참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을 했었고 그때 KBS도 오보에서 자유롭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본부뿐만이 아니라 사내에 있는 다른 노조도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고 길환영 사장은 법원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KBS본부뿐만이 아니라 그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노조도 고대영 퇴진을 걸고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KBS 내부의 사실상 모든 사람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었는데 이 일들이 마치 KBS본부노조가 단독으로 꾸민 일처럼 했다는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장범 사장 스스로 자기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진들 나와 계시니까, KBS본부가 퇴진을 요구해서 중도 퇴진한 사람이 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누구인지 경영진, 여기에 나와 있는 분께서 스스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누구누구인지.

○위원장 최민희 제가 물어 드릴게요. 질의하세요.

○이주희 위원 예.

지금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KBS 특별감사 실시되고 있지요? 그리고 본부노조 역시

이에 대해서 조속한 감사 촉구하기도 하였고요.

○참고인 박상현 감사원에 저희도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사례 들었던 수많은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박장범 사장과 이사장,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명서뿐만 아니라.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박상현 앞서서 공정방송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명백히 사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동의제 역시 편성규약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KBS 감사실의 내부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감사의 요청에 의한 인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감사께서 한다는 특별감사를 방해했던 것 아니었나, 이 모든 것은 박장범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한 정치작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안 드려도 됩니까?

○이주희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것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경영진에서 낸 성명서 중에 노조에 의해 쫓겨난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근거가 없는 내용이네요.

○김현 위원 아니, 아까 그 성명서가 본인이 포함된 경영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주희 위원 인정하셨습니다. 본인이 작성.....

○위원장 최민희 본인도 거기 포함된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기 5명이라고 적시해 봤잖아요. 명단 좀 열거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이것도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장 퇴진운동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은데 김인규 전 사장, 길환영 전 사장, 조대현 전 사장.....

○위원장 최민희 조대현 사장은 임기 마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썄, 이건 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과장해서 썼다고?

○김현 위원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배석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 안 와서 우리 못 끝내는 수가 있

습니다.

아니, 이것 확인하는 게 힘들니까? 쓴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성자.

○**김현 위원** 아니, 오늘 거짓말이 많아요. 확인이 조금 걸리더라도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게 뭐가 힘든 일입니까? 박권상 사장부터 짹 열거해 보세요, 몇 명 된다고. 100명 됩니까?

○**김현 위원** 26명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26명인데……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5명이 누구인지.

○**김현 위원** 뒤에 있어요, 뒤에.

○**위원장 최민희** 뒤에 작성한 분 계시지요, 뒤에?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본부노조가 퇴진을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체된 사장이 5명이나 됩니다라는 것에서 김인규 전 사장과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박민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교체됐습니까?

작성자 나오세요. 지금 읽으신 게 말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게시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렸고요.

○**김현 위원** 장난해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하십니까?

길환영 사장 우리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가 아니고요 세월호 가족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왜 본부노조를 거기다 끌어들이니까?

그리고 김인규 사장 안 쫓겨났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까요? 김인규 사장은 정파를 뛰어넘어 그나마 경영 역량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쪽저쪽에서 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경영진이 버젓이 써 놓고 그걸 또 거짓말을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범 위원님, 지금 김장겸 위원님이 웃으시잖아요.

○**김장겸 위원** 아니, 너무 비밀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위원장 최민희**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김인규 사장은요 저도 역량을 인정한 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겠지만 안 쫓겨났다는 게 핵심이고요.

아, 왜 거짓말…… 어떻게 하지?

오늘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넘어가 주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명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틀렸다니까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해 놓고 본부노조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5명이나 쫓아냈다, 이

렇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5명이나 쫓아낼 능력이나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역량이 안 되지요.

게다가 박민 사장이……

○**김현 위원** 박민도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박민은 본인이 쫓아낸 거잖아요. 어이가 없어, 진짜.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쫓아낸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박민 사장을 쫓아내고 말고는 가치 평가고……

○**김현 위원** 잔여 임기 한 거지요. 김의철 사장 쫓아내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잔여 임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자,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이주희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1분 드리세요.

○**이주희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성명서 문구가 잘못이라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자꾸,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노조를 너무 적대시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여기 명시한 대로 ‘본부노조가 퇴진 주장해서 교체된 사장’ 결국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부노조 주장 때문에 교체됐다는 그 근거 정확하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발언 때문에 연임이 됐던 박민 사장이……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드릴까요?

○**김현 위원** 아니요. 너무 황당해서 의사진행발언할 가치가 없어요.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지금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진숙 위원장님, 박장범 사장님 또 김유열 사장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쭉 앉아 계시는 김유열 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일체 물러가라는 말이 없었고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두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거의 숙청을 하겠다, 요새 숙청이라는 말이 어제부터 갑자기 유행하던데 그런 태도로 집중공세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가라, 나가라…… 이게 우리 언론·방송 환경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노조가 쫓아냈다는 게 5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사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가 가지고 폭력행사를 하고 심지어 YTN 같은 경우에 기자라고 언론노조원이 사장한테 침 뱉고 욕설하고 MBC 사장 출근하는데 저지하면서 세워 놓고 욕하고…… 이거 5명, 3명, 1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건이라도 그것은 반언론자유적인 거지요. 공영방송에서 그건 특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위원장님, 박장범 사장님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분 말씀이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이라면, 특히나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면 저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내란과 관련한 혐의는 지금 재판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지금 정치인이에요. 우리 공영방송의 실상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걸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앞에 계신 분들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저분이 기자 출신이지요? 박상현 본부장이 기자 출신이지요? 맞아요?

○**참고인 박상현**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냥 막 하잖아요. 균형이나 이런, 소위 기사 쓸 때 이런 게…… 우스워요? 박상현 씨, 일어나 봐요. 우스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우스워요?

○**참고인 박상현**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답변을 바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이……

○**박충권 위원** 우습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끼어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김장겸 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실실 웃고……

○**박충권 위원** 아니, 태도가 저러면 위원장님이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지금 형식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서는 참고인과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요? 세워 달라고 했잖아요.

○**김장겸 위원** 아니, 참고인이 비웃잖아요, 지금. 참고인이 아까 오만방자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평가를 하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비웃잖아요, 말하는 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답변……

○**김장겸 위원** 아니, 저런 태도를 어떻게 여기서 용인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마이크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묻는데……

○**김장겸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비웃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뭘 비웃었는데요? 그거는……

○**박충권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비웃었다지 않습니까?

○**김장겸 위원** 아니, 동영상 한번 돌려 봐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주관적인 판단이신데……

○**김장겸 위원** 주관적인 판단이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비웃었는지를 모르는데……

○**김장겸 위원**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CCTV 한번 볼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못 봤다고요,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당황을 하

고 있는 거지요.

○**김장겸 위원** 못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제가 박상현 본부장을 보고 합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보지.

그래서 지금 박상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한국말 모릅니까? 지금 비웃은 거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겸 위원** 비웃은 거를 지적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위원장 최민희** 아니, 비웃었다고 물어보세요. 저는 웃은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쳤을 때 퇴장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소리도 안 질렀고……

○**김장겸 위원** 그럼 퇴장 좀 시켜 주세요. 저렇게 비웃는 태도는 퇴장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아니, 비웃었나 물어봐야지요.

○**김장겸 위원** 본인이 비웃었다고 그러겠습니까?

○**김현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진행하는데……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지속시키시는 겁니까?

○**김장겸 위원** 비웃는 걸 지적하려고 물어봤어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러면 마이크를 줄 거냐 하잖아요.

○**김장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저런 태도가 KBS에서 기사를 쓰고 리포트를 하는 태도입니다. 저런 태도를 가지면서 공정방송을 운운하고 이런 언론노조 KBS본부장, 여러분 보신 겁니다.

김유열 사장님, 문재인 정권 이후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유시춘 EBS 이사장도 임기가 끝났음에도, 이분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김장겸 위원** 버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도 인면수심이 따로 없어요.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환수 조치 않고 있고, 맞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김장겸 위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안 물러나니까……

잠깐 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유시춘 이사장이 직원 겁박, 법카 유용, 거짓말 3종 세트,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아들이 마약 관련 무죄를 받고 나서 이사장이 됐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취임 직전 아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더 뻔뻔한 것은 지난달 24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태선 이사장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영방송 인사 해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상고 없이 소송을 종결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쪽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1만 원 어디 썼느냐고 수사받으며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양반 1만 원 쓴 것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됐습니까, 사장님?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 맞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1만 원만 갖고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1600여만 원을 함부로 쓰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약관화하게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장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확정판결이 안 났다 이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저도 감사에 이의 신청을 냈던 바고요. 그 부분이 하나 하나가 다 검증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김장겸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판결이 안 났으면 내란도 역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쓰는 것은 모르겠으나 기자가 확정판결도 안 난 걸 내란으로 자기가 확정해 가지고 저렇게 쓰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노조위원장이 언론에 보도한 건 아니고 노조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KBS, 방통위, EBS, 공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결산 보고잖아요.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해민 위원 나오셨지요?

먼저 방통위는 잘 알려져 있지요. 작년 2024년 소송비용으로 총 5억 5900만 원 사용을 합니다. 44건 중에 30건이 방송심의 관련된 거고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유류비까지 전용을 하고 당초 예산 2배 넘겨서 소송비용 집행을 합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된 15건만 봐도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KBS는 아까 우리 이야기한, 다른 것 빼고라도 감사실 소송비용, 이 소송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본안 패소까지 하게 되면 더 낭비가 되지요.

그런데 소송비용에 얼마를 쓰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감사실 소송이라고 하시면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지요?

○이해민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 어디로 날려 보내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KBS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 소송

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래서 돈 쓴 게 하나도 없나요, KBS는 여기 소송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무부가 소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됐습니다. 수천만 원 수준인지 억을 넘어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네요.

KBS는 자료를 안 줍니다. 국감 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EBS라고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EBS 소송 상황은 슬라이드로 좀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EBS는 국민의힘 소속 이사 4인이 이사장에 대한 직무 연장 무효 가처분소송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 빼면 모두 기각 확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송비는 회사가 냅니다.

오늘 결산 보고입니다. 이렇게 소송비에 혈세 쓰는 상황 지속되는 것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박장범 사장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은 방통위원장도 문제, KBS 사장도 문제, EBS 이사들도 문제, 결국 이 사람들이 국민 혈세 낭비시키는 거예요. 국민 세금 더 이상 축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제가 다 말을 못 마쳐서 박장범 사장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AI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네이버와의 협약 내용은 이겁니까? KBS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AI 툴을 제공하는 것,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여러 가지 업무협약 내용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AI 툴은 어떤 것을 받나요, KBS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특정이 됐나요? AI 툴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건지 이런 것도 특정이 안 됐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 MOU 체결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핵심사업 과제 5개를 선정해서 액션 플랜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해민 위원** 맞아요, 아까 MOU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MOU만 한다면…… 아까 제가 10개 전략 분야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실행했다, 3개만 꼽아라 했더니 1등으로 꼽은 게 AI였어요. 그게 지금 말하는 수준, MOU 체결이면 놀라운데요. 정말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연초부터 AI를 했고요. 네이버랑은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이해민 위원** AI 연초부터 한 게 본인 아바타 넣은 동영상입니까? 장난하십니까, 지금?

겨우 MOU 한 걸 넣어서 최고의 치적으로 꼽으면 다른 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10개 중에.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때 협약할 때도 네이버가 당황할 수준으로 서둘러서 급히 일을 처리했다던데 본인 치적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요란하게 했네요.

그걸 또 치적으로 얘기하는 박장범 사장 참으로 비루하고요. 비루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이진숙 위원장한테 과외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세금 내는 국민을 기망하는 그런 자세라는 걸 알려 드립니다.

이후에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딱 맞춰서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님, 업무 좀 물어볼게요.

지금 KBS UHD 편성 비율이 몇 %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법정 비율을 겨우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몇 %냐고요? 법정 비율은 몇 %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한 30~40%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법정 비율은 50%예요. 올해부터 50, 올해·내년.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KBS 삼십몇 %, 40%데요. 지금 지역 KBS에 전송망이 있어서 UHD를 송출할 수 있는 지역 몇 군데 있는지 알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구성이 된 데도 있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있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는 UHD 통신망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나머지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나머지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UHD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 여부는……

○이훈기 위원 지금 지역은 네 군데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KBS가 UHD 주관 사업자잖아요. 그렇지요? KBS가 아직까지 UHD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비용으로 얼마 썼는지 아세요, 사장이니까? 얼마 썼어요, 아직까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지금까지 전체 얼마 썼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대충도 몰라요? 아니, 경영을 하는 분이 어떻게 이걸 모르지요?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UHD는 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대충.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글썄, 투자비용은……

○이훈기 위원 UHD가 KBS 경영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KBS가 1조 원을 썼어요, UHD에, 2017년부터. 많이 쓴 해는 1380억, 1600억 이렇게 썼어요. 올해도 UHD에 1000억을 쓰게 돼 있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하

고.

아니, 경영을 한다는 사장이 이렇게 경영에 큰 비중이 있는 UHD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장이 모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UHD에 대해서 비용도 모르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UHD가……

○이훈기 위원 편성 비율도 모르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도 모르고. 1조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KBS가 주관 사업자잖아요. UHD 비율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편성 비율 50%여야 되는데 40%인가 38%예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KBS 사장으로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UHD가 2017년부터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더 이상 UHD에 투자하기가 지상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UHD는 그냥 포기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포기한다는 말을 저희가 먼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UHD 투자가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장 돈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정부와 상의해서……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집행을 안 해요? 얼마 집행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올해만 1000억을 써야 돼요, UHD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000억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지난해에도 그 정도 썼어요.

사장 경영계획서, 사장이 돼서 지금 8개월, 9개월 되면서 경영을 하고 UHD 비용이 비용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해민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AI 얘기하는데 MOU 체결했다고, 이건 경영에 얼마나 보탬이 돼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AI?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연초부터 제작한 AI로 인해서 상당 부분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이훈기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고 몇십억이든지 몇백억이든지 몇천억이든지 대충 비용으로 어느 정도 경영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AI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십억 수준의 비용 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님,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 부러 정치적인 질문을 했어요, 업무 얘기를 안 물어보고. 그런데 업무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작은 비용이냐고요, 1조 원이나 쓰고 올해도 1000억을 써야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올해 1000억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데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해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UHD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AI는 얼마나 경영에 보탬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예요, MOU를

맺었다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연초부터 저희가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AI를 도입했고 수십억 원 규모의 제작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KBS 매출이 1300억인가 그런데 수십억이면 경영에 참 보탬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KBS 예상 적자가 950억이에요, 올해. 그러면 AI 해서 몇십억 좀 보탬 하고 여기 수신료 말도 안 되는 거 얼마 인상, 이거 아무도 인정 안 해 줘요. 수신료 인상을 어떻게 해요,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그러면 경영 뭐 갖고 할 거예요? 950억 적자 뭘로 메울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내년엔 수신료 통합징수가 되면 적자 상황은 벗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수신료 그거 해 준 걸, 그러면 박장범 사장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경영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무슨 사장의 독립성? 국회의원들이 그만두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공영방송 사장이 그렇게 무능한데 그만두라는 얘기를 왜 못 해요. KBS 망하게 만드는데, 공영방송을?

경영에 부담이 크면 나중에 극복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장이 와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와서.

그리고 아까 편성규약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편성규약도 안 지키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편성위원회도 안 만들고 단협도 무단협 상태예요.

무슨 박장범 사장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얘기해요, 공영방송을 지켜 내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편성규약에 따라서 분과별 편성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분과가 아니고 편성위원회, 사장, 양측 대표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깐만 세워 주세요.

노조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본부장님, 편성위원회 몇 번 개최해서 중요한 안건 갖고 했는데 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박상현** 편성위원회를 대체하는, 조합에서는 공정방송위원회 요구를 했는데 박장범 사장 취임했던 12월 달에 한 번 열린 이후에 계속 안 열리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위원회가.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안 열리고 있고 단협도 무단협 상태고.

제가 며칠 전에 MBN을 만났어요. MBN은 편성규약, 편성위원회, 국장 임명동의제 무지 잘 되고 있어요, 종편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사장이나 경영진도 서로 대화가 되고 경영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도움받고 오히려 되게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적대시하지 마요.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물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사실 KBS가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걸 잘해야 되잖아요, 편성위원회나 편성

규약도 지키고 단협도 가장 모범적으로. 단협에도 공정방송 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예.

○이훈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박민 사장, 박장범 사장 오고 과거 정상적일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그런 게 망가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참고인 박상현 박민 사장 들어온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공정방송위원회가 박장범 사장 체제 포함해서 두 번인가 열리고, 원래 매달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임명동의제는 아예 처음부터 파기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중간투표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본부장들이 1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단체협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규의 지위를 갖는 편성규약에 그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임 박민 사장이나 박장범 사장이 사규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질의 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김건희 일가와 박장범 앵커 일가 간에 어떤 소문이 있다라는 말에 발끈하면서 서로 직을 걸자라고 제안을 해 왔고,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위원장 최민희 아, 예.

○김우영 위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박장범의 KBS 농단, 외부의 어떠한 일체의 개입이나 간섭도 배제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대표 사장이 파우치 방송, 전반적인 친윤·팽윤 방송, KBS 9시 뉴스 앵커 할 때부터 편향된 정권 편향 방송,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정권과 유착되거나 정권에 의지하거나 하는 방송의 독립을 위반한 그런 의혹이 매우 짙다라는 것이 방송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이고 KBS 직원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그 실체를 밝혀서 직을 걸자고 하니 저는 과방위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제안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그러는 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억울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사 선임 과정에서 용산의 개입 여부,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사 명단을 불러 주는 대로 실행했다는 의혹, 박장범 앵커와 연관된 제보들, 제가 뜯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KBS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일부만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박장범이 지금 강남 원베일리에서 사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높았던 어머니 덕이다. 박장범 어머니와…… 이거 제보 내용이에요, 제보 내용.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제보 내용도 저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질문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저는.

박장범 어머니와 최은순이 오래 전 부동산 비즈니스를 한 동업 관계였을 만큼 막역한 사이인데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당연히 KBS에서 박장범이 실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장범이 이 상황에서 사장이나 부사장 같은 경영진을 선택하지 않고 앵커 복귀를 희망했고 앵커 복귀 이후 경영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복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권 진출 같은 그림도 그리지 않았는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앵커 자리를 희망했다. 그래서 앵커를 하게 됐다.

그다음에 박민의 연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KBS 2기 사장에 마음을 두고 사장 출마에 결심을 했고 뜻대로 사장의 꿈을 이루었다. 당시 KBS 진영에서는 박민이 1년 반밖에 잔여 임기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박민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였는데 그때 박장범이 갑자기 출마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 국장은 박장범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되는 엉뚱한 일을 하느냐라며 사퇴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장 출마에 나서서 박민의 연임 기정사실화 국면을 뒤엎고 사장에 선임되었다.

이게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이에요. 이 제보의 일부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직을 걸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이 저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을,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장이 권력과 야합했다라는 의혹을 과감하게 파헤쳐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작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독단적인 저항, 박장범의 아주 극단적인 언사, 거기에 도사린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사전 정지로서의 방송장악 과정, 이걸 일체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이시네요.

일단 의사진행발언 관련하여 저희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요지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전 과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방송장악 과정—단전·단수 포함—이게 국정조사의 주요 테마인데 지금 말씀하신 방송통신위원회가 했던 의문의 이사 선임 과정에 과연 용산이 개입했나 여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없는 사이에 직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누가 직을 걸고 이런 건가요?

**○김우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장범 일가와 김건희 일가 간에 어떤 유착 의혹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면 직을 걸 테니 의원은 의원직을 걸겠냐라고 저한테 제안해 온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발 직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김우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위원이 질문할 때 당신이 이런 이런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직을 걸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박장범 사장이 그런 얘기 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아무 영양가 없는 말이니깐 그건 신경 쓸 것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요지는 박장범 사장이 해명하고 싶은 것은 박장범 사장님 어머니와 최은순 씨가 아는 사이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거지요, 핵심은?

○김현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고 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뭘 해명하시겠다는 건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가족이 언급된 상황에서는, 저야 공인이지만 가족이 언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닌 거는 제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듣기에……

○김우영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7분……

○김우영 위원 7분인데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7분 드리고 5분 하세요.

○김우영 위원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런 소문은 일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될 일을 왜 발끈대십니까? 왜 직을 걸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일체 사실이 아닙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리고 저야 공인이지만 가족까지 언급하실 때는 최소한의 근거는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제보 내용을 아까 쪽 구술을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위원님, 제보 내용 중에 저희 모친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친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100% 허위 날조된 거짓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특히나 제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장이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개입 내지는 관여를 허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방송 내용을 제작하고 편집했는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닙니다, 위원님. 제 가족과, 특히 모친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00% 허위 사실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직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는 사퇴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겁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내자는 겁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박상현 참고인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박장범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이 작년 10월 24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10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26일이었나……

○김우영 위원 23일 날 제청됐다는 거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김우영 위원 그때 이영일 노동주관이 그 이사회 결정 전에 KBS의 다른 임직원에게 박민 교체설이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그때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박민 당시 사장이 이사회 면접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교체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측근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했었고 그 얘기를 몇몇 분이 들었고 그거를 조합에 제보를 주셨고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박장범 사장은 용산의 결정이 아니라 KBS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고—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용산의 권력 개입은 일체 없었다, 그쪽으로부터 간택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박민 사장의 고백으로부터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네요?

○참고인 박상현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노조에서 성명을 냈었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성명도 냈었고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 터지고 하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회사 내에서 박장범 앵커가 사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파우치 방송 이후였다고 알고 있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소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박장범의 신년대담에서 소위 파우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김건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들이 돌아다녔다 이런 소문도 있었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소문은 있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언론을 다루는 언론기관은 돌아다니는 많은 유언비어도 있겠고 그 유언비어 중에도 팩트에 맞는 단서도 있겠고, 그렇지요?

그런데 KBS 구성원들 대다수가 박장범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었지요?

○참고인 박상현 예, 그때 박장범 사장이 몸담았던 보도본부에서도 기자들이 연명 성명을 내면서 많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가 KBS라고 하는 국가의 중심 방송이 권력에 줄을 대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러한 사장이 KBS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의 생각이 주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상현 줄을 댔다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장에 지원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 자체가 대통령 대담 이후였고 그 대통령 대담이 저희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조그만 파우치 자체가 사실 언론이 권력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데 동원이 됐고 아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낼 수 있

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박장범 사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승부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별 뜻이 아니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대통령이 되더니 그 이전 정권 검찰 동안에 꺾박받으면서도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다가 대통령이 되더니 오히려 조심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건희의 명품 수수 또 여러 가지 국정 개입과 농단, 22년 5월부터 시작된 서희건설, 통일교, 건진법사, 거기서 나온 보석, 명품가방, 시계 수천만 원짜리 이게 다 드러난 상태고 그해 9월에 소위 파우치를 들고 최재영 목사인가가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그걸 놓고 ‘보안검색대의 문제다. 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여사를 만날 수 있느냐’ 대통령 여사가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을 하고 사치품을 선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비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명분을 마련한 것 자체가 내란의 씨앗을 심어 준 겁니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요? 권력을 감시해야 할 권력 감시기관이 권력에 아부하는 멘트를 한 것 자체가 내란에 대한 동조예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릴까요?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김우영 위원께서 충분히 하셨고, 지금 거의 한 20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오랜만에 질의 좀 하는데……

○**최형두 위원** 오랜만에 다 지금……

○**위원장 최민희**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김우영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KBS 사장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으로서 최고 대표방송이예요. 거기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신년대담 한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적절하게 그냥 주고받은 멘트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하느냐, 자기는 선량하게 맡은 바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내란이 윤석열 혼자서 발끈해 가지고 한 줄 아세요?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권력에 줄을 서고 사익을 탐하고 자기가 못 갈 자리에 변칙을 써서 가고.

그러면 적어도—예전에 KBS가 국민에 대한 사과 방송 한 걸로 알고 있어요—사과를 하든지 성찰을 하든지.

○**위원장 최민희** 다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김우영 위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뭐를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김우영 위원님,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신 건가요?

○**김우영 위원** 답변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다른 것 묻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우영 위원님께서 KBS 내부의

제보라면서 말씀하신 부분, 박장범 사장의 모친과 김건희 여사의 친정 모친이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사실인지 아닌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00% 허위 날조입니다.

○**신성범 위원** 날조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꾸며 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100%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또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9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96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양쪽에서 맞벌이 부부였고 99년도에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당시 3억 원 정도였습니다. 1가구 1주택 상태로 계속해서 쭉 지내 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현재의 아파트가 된 겁니다. 자금 들어간 것 다 투명하게 소명했고요. 절대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됐고, 저는 박장범 사장님 어디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방송법을 놓고 저도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쭉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의도와 출발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를 보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S 이사진의 경우에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임직원 대표를 3명 뽑아서 그분들이 KBS 이사회에 들어간다 할 때 이게 도대체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은 그러면 누가 과정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 결국은 돌고 돌아서 KBS를 지금 하고 있는 사장님은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방통위에서도 잘 모르는 눈치 같고 그러면 이걸 누가 정하느냐는 문제에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대표를 어떻게 뽑는 거지? 그러면 사내에서 무슨 찬반 투표를 해서, 그러면 과반수로 하면 세 명을 뽑기 위해서는 세 번을 해야 되나? 그러면 후보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방통위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요, 방통위 규칙으로. 방통위에서 만들어 주시겠지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라서 어떤 결정도 못 한다 하고 이러니까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김의철 전 사장님 나와 계신데 나와 보실래요?

제가 왜 김의철 사장님께 여쭙보냐 하면 몇 년 전에 그때 사장 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저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시민평가단 이런 거 앞에서 해 보신 거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때? 시민평가단이 몇 명이나 됐어요?

○**참고인 김의철** 150명 정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제가 시민평가단에 비전 발표하고 또 일문일답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분들이 투표를 했고 뽑히셨고 이사회로 넘어가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기억이 맞다면 물론 그때는 김의철 후보 한 분이셨지요? 그때 다른 분들은 가운데에서 철회하시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3배수로 추천을 해서 시민자문단 평가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사퇴를 하셔서 저 혼자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쭙보냐면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00명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돌고 돌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남녀 균형 맞추고 지역·연령 맞추다 보면.

○참고인 김의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룹, 자문단인지 평가단인지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은 정말로 KBS 내에서 매우 잘 알고, 물론 그 기관에서 학습도 시키고 자료도 줘니다마는 매우 잘 알고 매우 전문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나오신 김에, 어차피 다시 재판 결과로 해임 취소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피해자다, 희생자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고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와서 들으시면서 지금 박장범 현 사장도 어차피 법률에 의하더라도 3개월 후면 이사진이 바뀌고 또 한 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박장범 사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KBS에서 역대 사장이 그러니까 쭉쭉 이렇게…… 말은 안 그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국은 교체되는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세요?

○참고인 김의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잠깐 좀 시간을 말씀할……

○신성범 위원 짧게, 김의철 사장님 본인은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핏박을 받았고 박장범 사장이 교체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

○참고인 김의철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방송법에 KBS 사장을 어떻게 하라, 바꾸라는 것들이 없고요. 지금 현재 3개월 내에 이사회를 구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장과 다른 분들은 KBS 이사진이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사장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단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 느꼈지만 그전에도 어떤 사장님은 노동부, 감사원—이사도 마찬가지로—이렇게 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서 나가셨던 기억이 있고. 물론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는 생략됐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만일 바뀌게 된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참고인 김의철 글썄요, 지금 현재 KBS 모습과 관련해서 겉으로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서영훈 사장이었는데 그 후로 서기원, 홍두표, 박권상……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더 쫓아요. 8분 하셨어요.

○**신성범 위원** 벌써요?

○**위원장 최민희** 예.

○**신성범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 드리지요, 뭐.

○**위원장 최민희** 그럴까요?

1분 더 하세요.

○**신성범 위원** 사장님도 오고 동아일보 출신도 오고 한겨레신문 사장도 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완벽하게 정권 교체가 되면 바뀌는 걸로 간 게 제가 짐작컨대 MBC 때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이후에 권력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공수가 완벽하게 교대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뿌리박히기 시작했다는 점만 제1.5인으로서 말씀을,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일단 타이머 돌리기 전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방금 하신 김의철 전 KBS 사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님도 옆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먼저 박장범 KBS 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법에 명시가 됐으니까 앞으로 실시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법이 시행되면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은 없습니까? 방송의 공정성, 공공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취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취지가 살릴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KBS에서……

○**이정현 위원** 그러면 뭐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보니까 노조위원장 출신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보도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보도 임명제가 노조위원장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선점은 뭔가……

○**이정현 위원** 노조위원장은 보도책임자를 하면 안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해도 되지요.

○이정현 위원 자, 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셔서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의철 전 KBS 사장님께서서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데 적극적이셨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그랬습니까?

○참고인 김의철 그 과정이 보도와 제작 편성의 자율성들을 보장하는 기본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정성 보장의 핵심이고 또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 간의 핵심적인 소통 과정의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더군다나 노조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숙의를 거쳐서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3명의 국장에 대해서 임명동의제를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제가 새로 단체협약을 갱신기간에 맺을 때는 그걸 오히려 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철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박상현 본부장님, 그렇게 중요한 임명동의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김의철 사장 시절에 계속 잘 추진해 오다가 박민·박장범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중단돼 버렸습니다. 제가 앞서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노사 단체협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참고인 박상현 사측이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 2022년 단협을 맺으면서 보도국장 뿐만이 아니라 임명동의제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그것이 정녕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임명동의제 대상도 2019년에 맞춰서 축소를 하겠다라고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이 됐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단체협약 교섭을 맺었는데 결국 공정방송과 관련된 조항들 때문에 사측과 지금 자율 교섭은 결렬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박장범 사장님, 보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취재하고 뉴스를 내보내는 게 보도 아닙니까?

○이정현 위원 예, 뉴스 말고 시사 제작, 시사 이쪽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아닙니까? 뉴스만 보도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라디오 중에서도 보도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시사 PD들이 제작하는 시사 제작도 보도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요. 시사교양도 보도로 분류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5개 기준에 추진되던 통합 뉴스룸 국장—보도국장이지요—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5개 임명동의제를 진행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거는 제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편성위원회에서 법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5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법원에서 있었던 것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해요. 우리 박상현 본부장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장범 사장도 그렇고 전에 박민 사장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법원, 법원의 판결을 이야기하는데 법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가지고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거 모르시고 자꾸 똑같은 그런 식의 반복되는 잘못된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임명동의제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결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정현 위원**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을 해 보니까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박민 전 사장이나 박장범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당시에 박장범 당시 후보자는 최대한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섭을 하겠다는 분이 임명된 바로 그날, 취임 당일 12월 10일 곧바로 임명동의제 절차 없이 5명의 국장을 인사발령했습니다. 그거 잘했습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했어요? 그러면서 밑에다 붙인 것대로 계속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법률적 판단도 동시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법률상으로, 그리고 법원이 임명동의제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있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본부장?

○**참고인 박상현** 법원의 판단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많은 법원의 쟁송이 있었지만 어떠한 판단에서도 임명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 제한한다고 하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YTN도 마찬가지였고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기각 내지 각하가 되었던 것이었고, 만약 사측이 정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 단협은 단협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측이 경영권을 침해하니까 이 부분은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설령 사장의 인사권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영방송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김의철 전 사장을 비롯해서 과거의 사장들은 그것을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임명동의제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현업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박장범 사장과 같은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휘두르지 않도록, 제작에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약속하신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이정현 위원 박장범 사장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야 실시한다고요, 의미도 없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저하고 지금 논쟁을 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노조를 존중하는 건 좋지만 노조와 사측이 어느 정도는 긴장 관계가 있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위해서 편성위원회도 구성하고 직원과 또 경영진의 1 대 1, 절반 절반이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도 일정 정도의 긴장감도 유지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5명에 대한 임명동의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약속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좀 전에 충격적인데, 아까 모친이 김건희 여사 모친하고 친분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회사에 떠도는 지라시, 음해 문건이지요. 떠돌아다니는 걸 누가 보내 줘서 저도 봤는데 100% 허위 날조입니다.

○최형두 위원 언론사에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돌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사가 천박합니까, 박장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그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김우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두 사람 사이



의 공통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혀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박장범 사장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직업이 없으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셨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부동산 쪽을 하실 분이 아니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1가구 1주택으로 죽 사셨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동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모친은 부동산 투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킨 것 같은데, 참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필리버스터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이야기를 했더니 MBC 스트레이트인가 거기서 뭘 쓰고 또 어느 당에서 나한테 비판했던데, 맥락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MBC 보도는, MBC 자막이 그랬어요, 자막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이렇게 제멋대로인가, 제멋대로 주장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저널리즘 하는 그런 방송사인가? 더구나 옛날에 KBS, MBC 같으면 언론고시라 그래 가지고 얼마나 참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여기 신성범 위원장도 참 KBS 들어갈 때 집안에서, 동네에서 크게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고시 된 것보다 더 대단하게 들어간 이런 우수한, 박장범 사장도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 하고 육하원칙도 못 따지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가 됐던 MBC 보도는 대통령의 비속어는 있어 보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뭐라고 비속어를 했고 맥락상 우리 글로벌 펀드에 1억 불을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참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것을 혹시나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에게 쪽 팔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쪽팔려서 어떻게 되는지, 그럴 수는 있어요. 맥락상 그런 것 같아요. 박진 장관도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MBC는 어떻게 자막을 둔갑시키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이……

○**김현 위원** 의회라고 그랬지요, 의회.

○**최형두 위원** 미국 의회가, 미국 의회가, 이렇게 있어요. 기사 보면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미국 의회는, 미국은 이런 거 1억 불 정도 안 내고 10억 불, 100억 불씩 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제적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MBC가 난데없이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 욕을 했다’ 그러면 뉴스가 실제로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전혀 맥락도 없이 이래 놓고 이것을 또 백악관에 물어봐요, 한국 대통령이 너희 나라 국회랑 너희 나라 대통령을 서로 싸잡아 욕했다. 이래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

고 그냥 우기고, 그래서 법원에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정보도를 권했어요. 그것을 갖고 막 크게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맥락상 잘못 짚었다라고 하면 될 문제를 그렇게 우기고……

그리고 지금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지성인 집단이어야 될 KBS 내부에서 아무리 박장범 사장이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서, 더구나 존경하는 여당의 위원님까지 격동을 시킵니다. 내가 딱 들어 보니까 그 말이 사실 같으면 저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최 위원님, 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KBS 내부에서 돌았다는 것은 김우영 위원님 발언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사내, KBS 기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KBS 기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KBS는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세상에 이런 선진국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사에서 파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조가 힘이 약합니까? 잘못하면 그냥 사장들 쉽게 날릴 수 있는 게 우리 방송사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사 내에서 내부 감시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슨 팩트 체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방송사들이, 참 딱하고……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5개 주제 중에 한 주제를 이렇게 완전히 국회가 할 만큼……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BBC의 보도준칙 16개의 원칙, 그다음에 미국 FCC의 보도준칙, 그 보도준칙이 KBS하고 MBC에도 있어요. 안 지킵니다. 보도준칙대로 하면 2022년 3월 7일 날 그런 보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도준칙도 지키지 않아요. 저널리즘도 없습니다. 그냥 당파주의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요지 아니겠습니까? 부당노동행위, 노사 동일체가 된 압도적 노조와 사측이 작은 노조를 핍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파업에 참여했느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나로 편이 갈리는, 제발 이제 이러지 맙시다. 지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저널리즘을 회복합시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높은데 KBS·MBC 보고,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케이팝 좋아하듯이 이제 KBS 보고서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하고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KBS가……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우리나라의 케이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케이팝 데몬, 뭐지요 그거?

(「데몬 헌터스」 하는 위원 있음)

데몬 헌터스. 요즘 갈수록 점점 제가 영어가 좀……

○**위원장 최민희** 케이팝 데몬 헌터스요.

○**최형두 위원** 케더헌.

글쎄요, 자꾸……

○**위원장 최민희** 케더햄이 아니고요. 케더햄이 아니고 케데헌.

## ○최형두 위원 케데헌.

그런 수준이 됐는데, 제가 누가 어디 쓴 것을 보니까 우리 KBS 보도가 NHK보다 훨씬 못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NHK는 어떤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KBS는…… 저는 지난번에 박 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제발 대통령 인터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논란 부를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주식 투자를 합니다. 국장이 아니라 서학개미도 많고, 그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폭넓은 세계 지평을 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인지 국제 정세에도 좀 깊은 지혜를 줘야 보지 지금 유튜브 보면 그보다 더한 인덱스(in depth) 스토리도 많은데 뭐하려고 이렇게 정치 뉴스 이런 것 보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정말 우리 방송사의 지성, 저널리즘 회복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까 KBS 사장별 임기 및 현황 다시 한번 PPT 띄워 보실래요? 준비됐나요?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임기가 있었던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시켜서 법원에서 어쨌든 명예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의철 사장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윤석열 방송장악을 저지시키기 위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결국은 KBS 이사장—현재 서기석 이사장이 들어서고—남영진 이사장 쫓아내고 서기석 이사장 앉힌 뒤에 그리고 이사 둘 자르고 7 대 4 구조를 바꿔 대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사 뽑아서 김의철 사장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800억 손실을 보게 한 거고.

그래서 KBS가 영망진창이 되니까 KBS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통합징수가 옳다라고 해서 통과시킨 거니까요. 그 책임이 지금 파우치 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두둔하시면 됩니까? 아무리 여야 위원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토록 망가졌으면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둔하시는 것도 정도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2025년 1월 14일 날 KBS가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보도가 사전 검열 논란 속에 어쨌든 방영이 됐습니다. 이때의 제목이 내란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1월 23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하자마자 기자실에 가서 내란 확정처럼 보도하지 말라라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사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보도함에 있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확정처럼 쓰지 말라고 하면서 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언론인이.

그러면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내란 우두머리’ 이것도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월

23일이 아니라 복귀 시점이 가정하에 1월 3일이었다 치면 이 KBS는 불방됐겠습니다, 박장범 사장님?

그렇지요.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내란을 확정처럼 보도하지 말라라는 게 1월 23일인데 그 기준으로 1월 14일 날 그나마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KBS 보도가 됐던 거지 만약에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면 KBS는 보도지침에 의해서 이 보도 못 했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현 위원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내란 쓰지 말라면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그 전에……

○김현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김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후에 일어난 일을……

○김현 위원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장범 사장님, 내란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보통은 저희가 보도할 때도……

○김현 위원 아니, 쓰면 안 됩니까? 답을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김현 위원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내란 혐의라고 해서 지금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검찰에서 내란 혐의로 해서 내란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내란 특검이다 하면 그냥 내란 특검이라고 쓰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기자한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방송에 자유가 있고요 언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내란이 확정적인 것처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을 방통위원장이 왜 가타부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보도 검열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재판 절차를……

○김현 위원 확정적이 아닌 의심의 단계라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 표현에 대해서 왜 방통위원장이 쓰라 마라 합니까? 그게 만약 문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보도에, 편성에 개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바로 그런 지적이 있을까 봐……

○김현 위원 그래서 무식하다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방송 선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현 위원 방통위원장이 방송 편성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그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 편성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오늘 하셨지요. 거짓말해 놓고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하고 관여해 놓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오서 가지고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지 마십시오.

KBS 본부장님, 지금 앞서 내란이란 단어 쓰지 말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상현** 토론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12월 3일 날 국회 앞에 있었고 당시 불법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게 온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범인 체포할 때도 현행범은 바로 체포를 합니다. 전 상황이 TV로 중계가 됐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협회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현 위원** 편성위원회가 월 1회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참고인 이승철** 예, 전체 편성위원회가 있고 분야별 편성위원회가 있는데 분야별 편성위원회를 매달 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편성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참고인 이승철** 예, 전체 편성위원회는 공방위가 대체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개별 교섭으로 들어갔다면 전체 편성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까 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승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참고인 이승철** 박장범 사장이 답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부분별 편성위원회도 구성 안 돼 있고……

○**참고인 이승철** 분야별 편성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편성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회는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정정하셔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986년 9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말’ 특집호를 냅니다. 이것이 전두환 정권 몰락의 또 하나의 기동 역할을 하지요.

○**최형두 위원** 시작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이때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최형두 위원** 그런데 위원장……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보완해서, 1분을 안 쓰셔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성고문이라고 하지 말고 성희롱으로 써라, 그런데 권인숙 당시 학생이 당했던 그 사건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성고문입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 간사님.

튼니다, 순서대로.

(영상자료 상영)

기자협회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왜 저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승철 방송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거요?

○위원장 최민희 예, 지금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승철 제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 이사회와 과반을 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통령이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진짜 방송 3법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신 이후로 말이 바뀝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장악한다는 거예요, 방송을.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참고인 이승철 일단 제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 내 언론노조가 과반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 운영을 할 때 노조와 협의할 때 특정 노조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장의 영향력이 훨씬 크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회가 3개월 후에 구성되면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가 이번에 이사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참고인 이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건 박장범 사장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 사람들은?

○참고인 이승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틀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는 백번 들어도 바이든인데요.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것을 김은혜 수석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닙니다.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정치가 그리고 권력에게 임명받는다든 게 참 비루하지요.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말 비루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회 이 새끼들’ 이진 팬잖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대통령이 ‘국회 이 새끼들’, ‘대한민국 국회 이 새끼들’ 이진 팬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욕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진숙 위원장,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놓고 ‘국회 이 새끼들’ 이것 잘한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을 새끼라고 했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새끼라고 했건 거기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그것하고 쪽팔린다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 새끼들이라고 대통령이 하면 그건 괜찮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도덕적으로 누가 가족의 일원이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 이게 뭘 소리야? 저건 뭘 소리입니까? 저는 독해가 안 됩니다. 박장범 사장님처럼 깔끔하게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말 쓰면 됩니까, 방통위원장?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안 되고……

○**김현 위원** 대통령은 사담.

○**위원장 최민희** 아, 사담……

원래 사담이 걸리면 공식적인 발언이 되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식적인 행동이라면서요. 그래서 박근혜 때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건 대통령이 계신 곳이 일터다, 직무 공간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정정보도하라고 했지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우리가 패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심 법원은 조정안을 냈고 그 조정안에 대하여 지금 또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양심에 거리껴서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유열 사장님,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사장님을 평가해서 사장님이 재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헌법소원 하실 겁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저는 헌법소원 할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래서 김유열 사장님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존중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 투쟁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아무 것도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제질의가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형두 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하실 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 재제제질의 시간을 7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수 변경 안 해도 됩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다투는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처럼 방송사에 개입하고 장악하려는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나라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 건드릴 일이 없지요. 왜 순서를 바꾸십니까?

몇 시간 만에 방통위라는 정부조직이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몇 시간 만에 똑딱 갈아 치

우는 그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도대체 존재해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선진국으로 불려요?

수준을 말씀하시는데요, 법에 의해서 보장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 수십 번 소송에 전패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상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의 혈맹이자 동맹국, 그 나라 정상하고 만난 외교 현장, 전 세계의 카메라가 깔려 있는 그 현장에서 한국 대통령의 사담이 가능합니까? 그걸 버젓이 국회에 나와서 말하라고 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어떤 수준을 먼저 따지고 그 수준을 높여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특정 노조 상급단체에 가입해 있으면 대단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파업해요? 파업하면 임금 못 받는 것 모르십니까?

지성, 저널리즘. 뇌물이 의심스러운 고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도 가장 큰 KBS의 메인뉴스 대표 앵커가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만한 파우치라고 하는 그런 현실, 공영방송의 보도 현실이걸 가지고 지성과 저널리즘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회사 사장이 돼요?

노조가 쉽게 사장을 갈아 치운다고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노동조합은 경영진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쉽게 마음대로 갈아 치우던가요? 결과적으로 바뀐 사례가 있어도 그 사례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그랬습니까? 그것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정말? 파업이 쉬워요?

편성이 노사 동수?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에 엄연히 종사자와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이미 이번에 방송법에서 규율한 10개 방송사에 편성규약 다 있고 모두 편성위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그것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한 거예요. 법에다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저급한 수준 때문에 굳이 법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성돼 있는 편성위 대부분이 노사 동수예요, 법에서 규정하기 전부터. 그 회사들은 지금 다 경영권 침해받고 있습니까? TV조선, 채널A, MBN 이런 종편사들 이미 다 편성규약 있고 편성위원회 있어요.

경영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들을 합니까, 자기 생각까지 속여 가면서?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이게 동수지, 주도권을 누가 갖습니까, 5 대 5인데? KBS에 과반 노조 있어요? 없잖아요. KBS 구성원들이, 종사자들이, 임직원들이 KBS 이사 3명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반 노조가 없는데, 노조가 여러 개인데, 그렇게 적대시하고 옳어 대는 민주노총 소속은 하나인데, 그 노조가 과반이 아닌데 어떻게 3명을 멋대로 뽑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뽑아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만하시겠어요?



○**노종면 위원** 말을 하면서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위원장님을 타깃으로 하루 종일 빵, 빵, 빵 얘기만 하더니 오늘은 박장범 사장님을 타깃으로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명목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해 놓고 현안은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 망신 주고 나가라고 겁박하는 이런 자리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저녁 잠들기 전에 속보 하나를 보고 잠이 잘 안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공개적인 면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딱히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말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전체회의를 참가해서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소위 숙청의 전주곡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장범 사장님,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받은 것 이외에 다른 사퇴 압박받으신 적 있습니까?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어떤 유력 인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퇴 압박받은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충권 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파우치, 물론 영부인 되신 분께서 파우치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백, 아니 파우치가 아니라 조그만 지갑, 티끌조차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몰카 공작한 사람이 아무리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하면서 감성을 자극했다 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라는 자리는 그 주변인까지도 그래야만 하는 그런 엄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달리 있습니다. 그 파우치를 들고 와서 몰카 공작을 했던 사람 누구인지 아시지요,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목사입니다, 목사.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사이비 목사. 아니, 목사라고 주장하는, 자칭하는 정말 간첩일지도 모르는 최재영이라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북한의 통전부의 지시를 받아서 행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작에 당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간첩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에게까지 접근하는 것 이게 왜입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간첩이 맹활약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첩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활약하면서 정보를, 국가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가고 제주도·창원·청주 민주노총에서 대거 간첩단이 적발되고 그래도 간첩 혐의가 명백해도 숨방망이 처벌하고 수사를 받는 간첩 혐의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풀려납니다. 왜입니까? 이들을 처벌할 제대로 된 법이 없고 수사해야 되는 기관이 무력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간첩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막고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부인을 농락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최재영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곳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 민의의 전당인 이 대한민국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마음대

로 떠들게 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그러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판을 깔아 준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기는커녕, 엄격하게 처벌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국회에서 판을 깔아 줬습니다, 판을.

박장범 사장님, 여당 위원님들께서 파우치 언급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파우치 얘기를 지겹도록 들으신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또 들으시니까, 파우치를 파우치라 얘기했는데 홍길동도 아니고 또 들으시니까 억울하실 겁니다.

저는 박장범 사장님을, 파우치 언급을 이렇게 지적할 거라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해당 입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박충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의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압박이 있어도 임기를 다 채우시도록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 다시피 여러 조치들, 대응들 다 하셔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자율성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언론계에 악습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우선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윤기 PD협회장님, 김승준 방송기술인협회장님, 이승철 KBS 기자협회장님, 제가 질문 말미에 한말씀씩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20일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시도해 왔던 방송장악도 방송 3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방송장악 시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다시 얘기 좀 해 볼까요?

2023년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뉴스 앵커가 교체되고 ‘더 라이브’ 프로그램 당일 편성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KBS에서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 방영도 취소되었습니다.

박장범 사장님, 이유 무엇이었지요, 취소됐던 이유? 답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할까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024년 2월 총선 직전이었지요, 김건희 씨의 디올백에 대해 조그만 파우치 운운하면서 변호했던 박장범 앵커 어떻게 되었습니까? KBS 사장 임명되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우선 소송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해임을 남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기구 공영방송 이사 무려 11명을 해임시켰는데요. 그중에서 해임이 취소된 인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억 못 하시겠지요? 5명이 해임 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취소된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또 KBS 이사 7명에 대해서, 정지환 KBS 감사에 대해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해서 역시 다 무효확인 소송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방송장악 시도, 방송사에 대한 제재로서도 남발이 되었습니다. 남발했다는 것, 위원장님 역시 저의 그런 평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022년 11월 대통령실—굉장히 유명하지요,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요—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지요? 전 국민 듣기평가하게 만든 그 바이든 날리면 자막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이라고 하겠습니다—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이언주 전 의원이—지금 현직 의원인데 당시는 전 의원이었지요—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4년 2월 선방심이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 권고했습니다. 역시 이 이유, 여사 호칭을 김건희 씨에게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방송사에 부과한 과징금들 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의 파란색 아라비아숫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숫자 1 화면에 돋보이게 배치했다는 것으로 관계자 징계 의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한 MBC, KBS, YTN, JTBC 등 4개 방송사에 무더기로 부과했던 과징금 역시 모두 법원에서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이외에 KBS 제외 3개 방송사 1심 법원에 의해 과징금 취소도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방통위가 바이든 날리면 자막 이후로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어떨까요? 역시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송장악 때문에, 그 무리하고 무분별했던 권한남용 때문에 정말 우리 공영방송, 민영방송사 할 것 없이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심의기구로 신고나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부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이진숙 위원장님 소송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동호 EBS 사장 임명하려다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임명집행 정지되니까 바로 지금 옆에 계신 김유열 EBS 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각하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각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 빌리자면 뒤끝을 부리다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 것이지요.

김유열 EBS 사장님, 한국교육공사법 제10조 3항에는 임기가 끝난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이주희 위원** 이것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이주희 위원** 사장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인 신동호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직무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진숙 위원장께서 사장님에 대하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직무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 저는 세금 낭비,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좀 예상할 하지 못했고 약간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 이 소송비용 누가 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소송비가 0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대응팀으로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

○**위원장 최민희** 안 줍니다. 7분 드린 이유가 안 주겠다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 오늘 보니까 청문회 하고 9개월 만에 봤어요. 근데 오늘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을 박장범 사장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 검증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 대담 프로에 대해서 아직도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국민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것은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편성규약, 단협, 편성규약을 안 지키니까 편성위원회도 안 열고 임명동의제도 안 하고 다 안 하지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노조에 적대적이지. 여기 기자협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다 적대적이에요. 조직을 이끌 리더십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영 부문이에요, 경영. 내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인사청문회 할 때 경영 능력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KBS 망하게 할 사람이에요.

지금 KBS 손익계산서 보면 수입에 수신료 수입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광고 수입, 전파료 수입이 뭐예요, 이게? 전파료 수입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콘텐츠 수입이 두 번째로 크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수신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광고 수입이 있고 전파료 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방송사업 수입 매출에. 전파료 수입이 뭐예요? 몰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전파료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대 수입원 중에 전파료 수입은 없는 것으로……

○**이훈기 위원** 아니, 액수는 크지 않은데 전파료 수입이 뭔지…… 그리고 기타방송사업 수입이 한 4500억 되는데 기타방송사업 수입에는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타 수입이 4000억 원이나 된다고요?

○**이훈기 위원** 작년에 4513억이에요. 여기에 뭐 뭐 들어가 있어요, 기타방송사업 수입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타가 아니라고. 콘텐츠 판매 수입이 3400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요. 말씀하신 기타는 233억 원인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기타방송사업 수입이 4513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재송신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재송신료 수입은 콘텐츠판매 수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매출액에는 콘텐츠판매 수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수신료 수입, 방송광고 수입, 전파료 수입, 국고금 수입, 기타방송사업 수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매출액이. 그러면 기타방송사업에 재송신료도 들어가고 콘텐츠판매 수입도 다 여기 들어가서 4500억인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콘텐츠판매 수입이 그렇게 큰 액수가 나오려면 거기에 재송신료도 반드시 포함돼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니까 박장범 사장이 자세한 것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올해 950억 적자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내년에는 수신료 이제 분리징수 안 되면 나아질 거다? 그것에 박장범 사장이 하겠다는 건 아까 AI 수입 몇십억, 그리고 수신료 원래 500원 인상하려고 하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인상 추진한 적 없고요. 이번에 상반기에는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됐으니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올려 보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여론조사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회사 내에 수신료산정위원회……

○**이훈기 위원** 아니,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다음에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사회를 통과한 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훈기 위원** 이런 절차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박장범 사장 체계에서 수신료 인상은 먼저 다른 사장님도 힘들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박장범 사장 경영이 하겠다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도 없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수신료 인상에는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려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박장범 사장이 오고 킬러 콘텐츠 하나 만든 거 있어요, KBS에?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나요?

○**이훈기 위원** 킬러 콘텐츠가 뭔지 몰라요? 아니, 방송사 사장이 킬러 콘텐츠가 뭔지 그 용어를 몰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킬러 콘텐츠는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고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론칭됩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 사장 해가지고 8개월이 됐는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영방송 KBS 사장이 이렇게 무능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리고요. 하반기에 나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기획하는 것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기획하는 것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스페셜 같은 고품격 다큐멘터리가 새로 시작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훈기 위원** 그 역사 다큐멘터리가 KBS가 내세울 수 있는 킬러 콘텐츠예요, 지금? 킬러 콘텐츠가 뭔지 몰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각 방송사마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회사는 수익을 많이 당길 수 있는 게 킬러 콘텐츠고요.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님,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르세요. 너무 경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실 기자들이 경영 되게 몰라요. 저도 기자지만 기자 생활만 오래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노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경영을 좀 알아요, 사실은. 노조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노조 일도 제대로 한 적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노조 적대시하지 않았습시다, 위원님.

○**이훈기 위원** 됐어요, 됐고. 아니, 오늘 국민들이 보면서 KBS 박장범 사장이 정말

KBS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 아는 게 없고 경영 계획이 없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가 수신료 통합징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회에서 해 줬잖아요. 무슨 박장범 사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200표 이상, 재투표를 통과하려면 찬성 212표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점 그리고 또 김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점 이미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이훈기 위원** 그래서 수신료 인상은 박장범 사장이 한 거예요, 수신료 분리징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제가 했더라기보다도 모처럼 KBS 전 직원이 노조와 협회가 하나가 돼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작년에 수신료 분리징수에서부터 올해 10월인가 11월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손실이 얼마나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대략 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훈기 위원** 몇 개월이지요, 그때까지 하면?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저희가 이제 안 건히는 돈이 한……

○**이훈기 위원** 아니, 안 건히는 돈이 아니라 수신료 분리징수 기간이 얼마나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박장범 사장 경영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박장범 사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셔서 하루 동안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또 뭐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아니, 곧 또다시 나옵니다.

○**이정현 위원** 오늘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지난주에는 빵, 빵, 빵 얘기만 하더니 오늘은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오늘 빵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빵 얘기를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파우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을 때 지난해 윤석열과의 대담과 관련돼서 전혀 창피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이정현 위원님, 그 프로그램은 신년 대담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1년 계획을 묻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잡담하라고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더군다나 KBS 9시 뉴스 앵커가 가서 대통

령과 대답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 묻고 확실하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이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앵커의 책임인 것이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비위 맞추는 게 대통령과의 대답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졌으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달라지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뭘 믿고 박장범 사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야 되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설령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그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박장범 두 사람 여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임기 3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 계속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고 본인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최소한 창피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3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격도 없고 그 시대에 그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윤석열의 성은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기득권의 맛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래서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까?

이번 결산과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른 모든 부처들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이 아니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절치부심 또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국민의힘 또 다른 위원께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으로 임명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실수를 한 것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공영방송 장악하고 공영방송 장악된 상태에서 경영진 교체하고 현업부서 직원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런 방송 정책 저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편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개혁 작업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2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제2의 박장범 KBS 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가 다시 공영방송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주무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 생태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참 참담합니다. 그런 취지로 반드시 말한 것이 아닐 텐데 그렇게 딱 잘라서 적대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을 리도 없을 테고,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시청료 문제만 말씀드린다면 시청료가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청료가 다시 복원된 것은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시청료 징수에 대해서 이것이 해법은 아니지만 KBS가 바짝 말라 들어간 가뭄의 거북등처럼 갈라진 이런 재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도 그거라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재의결해서 다시 우리가 승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박장범 사장도 통사정을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재의결에 필요한 숫자를, 저희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게 나는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KBS가 더 잘될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서부지방방법원 판결문을 보고서 참 이게 가장 진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파업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끼리 방송사에서 적이 되었습니다. 다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KBS 노조본부에 계신 분도 제가 언론인 할 때 같은 기자실에서 참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파업에 참여하고 어떤 파업에 참여 안 한 사람끼리 원수가 되어서 정권이 바뀌면 점령군처럼 다시 들어오고 다시 밀려나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사이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발전했습니까? 시청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인기조

사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누가 제일 신뢰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시청자 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가, 이상하게 요즘은 3음절로 된 외국어도 잘 구사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동안에 원래 이 문화를 꽃피웠던 공영방송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우리 국격에 맞는 공영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영방송이 어떤 사실 하나를 두고서 끝없이 무슨 알까기처럼 해 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편만 나눠졌고.

이번에 법원의 조정 내용도 보면 공론의 장에서 가리고 해야 될 것들을 또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될 것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누적되고, 그게 사실은 누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법원의 요체입니다, 강제 조정의 내용이고요.

지금 한쪽 진실을 강요하고, 맥락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 게 맞고 이제 와서는 어쨌든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스스로를 감아먹으면서 이런 공영방송 논의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 문화적인 파워만큼이나 공영방송이 파워하우스가 되고 전 세계에 전파를 쏘 보내는 시그널링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내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심위의 조치, 방통위의 조치들이 전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걸리거나 무효가 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2인 또는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 같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2인의 결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목에서 나는 사실 최민희 위원장을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7개월 동안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은 법제처장한테 따졌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왜 7개월 동안 국회가 표결한 것을 미루느냐,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 7개월은 잘못됐다 치자, 그러면 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국회가 3명의 몫을 추천하지 않느냐,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든 방송법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그래서 권한의 위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체를 통해서 적절한 최고의 인물로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제 이사회 구성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사회 구성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결국 또 방통위가 정하는데 그것도 예컨대 EBS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2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법정단체인 교총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숫자가 훨씬 많은 교사노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교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답을 못 내 놓

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다뤄져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둘러싸고 사실은 여야가 이 문제에서 크게 의견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탄핵 사태부터 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로 환원시켜서 탄핵을 해 놓으니, 우리도 참 항변할 방법도 없고 답답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더 올라갈까요? 공영방송의 수익 기반이 넓어질까요? 공영방송이 BBC처럼 그렇게, BBC 스튜디오처럼 4조가 넘는, 우리 KBS는 400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지난해에 콘텐츠로. 그런데 BBC는 4조 넘게 벌었어요, 30억 달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을 진실로 키우고 이 공영방송의 힘으로 갈라진 국론을 다시 통합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을 보면 최민희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피적인 거고요. 윤석열 정권이 독임제로 운영해서 KBS 이사 자르고 낙하산 박민 내려보내고요. MBC 방문진 이사장하고 이사 잘라서 안형준 사장 임기 걸어 내고 낙하산 인사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형두 위원 독임제?

○김현 위원 독임제로 운영한 거지요,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 2명?

○김현 위원 예, 독임제로 운영한 거지요, 2023년도 1년 내내. 그리고 2024년도에.....

○최형두 위원 3명을 추천 안 했잖아요, 국회가.

○위원장 최민희 독임제.....

○김현 위원 독임제로 운영해서 당근 다 하고 채찍 쓰고.....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위원장 최민희 이거 세워 주세요.

제가 끼어들어서 끼어들지 말라고, 독임제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 위원 독임제로 운영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앞서 얘기했던 파우치 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KBS 이사,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방문진 이사장 교체해서 안형준 사장 걸어 내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탄핵이라는 카드로 해서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정책이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최형두 간사님.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료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요.

○최형두 위원 저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까?

○김현 위원 마치 실패한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넘기지 마시고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우치 박이 있는 한 공영방송 신뢰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왜 파우치 박입니까, 박장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김현 위원 파우치 박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거는 제가 제지할 수 없는 게 최형두 간사님이……

○김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언론장악을 통해서 했던 것을 한번 보면……

죽 띄워 보십시오, 방송사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직원 2명을 구속시키려고 했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하고 이광복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1심 승소로 정리가 됐고, 김유진 심의위원회도 종결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KBS 공영방송,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영진, 윤석년…… 결국 윤석년, 남영진 잘라가지고 김의철 사장 자른 거고 박민 온 거고 박장범이 온 거예요. 2년 동안 한 짓입니다. 그리고 조숙현 이사 등 잘랐습니다. 박찬욱 감사도 잘랐는데 2인 구조여서 불법하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나마 박장범 사장 체제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기시지요.

EBS 유시춘 이사장 공판 진행 중이고 정미정 이사, TV조선 점수 조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해서 괴롭히고 있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방송장악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방통위는 변호사하고 직원을 늘려서 9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그립니다. 직원, 변호사가 일 못 하는 사람들입니까, 방통위원장님? 변호사들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일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김현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대응을 못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소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김현 위원 변호사가 소송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 위원 안 계실 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유능한 변호사들이 방통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대리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그 문제를 건건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거 계속 졌잖아요. 로펌에 해도 지고 사내 변호사가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이 모두가 결국은 아시다시피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부부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성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

송통신위원장하고 KBS 사장, 오늘 내란 혐의이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확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장범 사장께서는 대통령이 파면돼서 집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4월 4일 이후에 통과된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예.

○**김현 위원** 그 이전에 2월 달에 탄핵으로 직무정지 당하니까 시청자위원회에 성명서 내도록 조직한 것 같고 본인은 통합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그러면 왜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앵커 하시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거부권 행사는……

○**김현 위원** 대통령이 거부권 1차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앵커 하실 때 그러면 이거 보도하셨습니까, 통합징수해야 되는데 왜 거부권 행사했느냐고?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때 법안……

○**김현 위원**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김현 위원** 그렇지요?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당하니까 탄핵이 될 수도, 인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박장범 사장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박장범 사장의 신뢰도가 없는 거고요.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마치 통합징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역할을 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때는 제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김현 위원** 앵커요, 앵커. 주요한 클로징 멘트에 여러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앵커는.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그런데 앵커는 법안 통과 관련해서는……

○**김현 위원** 그런데 통합징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통합징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못 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류에 너무 편승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박찬욱 감사님 나와 주세요.

2024년 12월 5일 박찬욱 감사가 박장범 사장후보 호소인을 만났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위원장 최민희** 그때 박장범 사장후보 호소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적인 단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글썄, 그런데 제가 잠깐 제 메모를 봤는데요 당시 취임 전이고 해 가지고 만나서 회사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했던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격동기다,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소신대로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감사실 이중 보직 문제, 지금 그 문제는……

○**위원장 최민희**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박찬욱** 예, 제가 그때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민 사장이 일을 저지른 거지만 이것을 해결 안 하면 박장범 사장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직 제가 취임을 안 했으니까 취임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십시오.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신평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떠들었습니다. 이분은 김건희, 윤석열을 만나면서 저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측근을 통해 윤의 부당한 대우 종식 희망의사를 밝혀 왔다는 식의 헛소리했습니다.

다음 PPT, 그리고 문제의 도널드 트럼프의 저런 트윗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극우적 행동주의자들이 한국이고 미국 날뛰었습니다.

그다음, 그러자 여당 인사들이 묻지마로 흠집을 냅니다. 나경원, 김문수 저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기에 블레어 하우스에도 초청 못 받았더라는 얘기도 나오지요?

넘기세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어 투 미스언더스탠딩(sure to mis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넘기세요.

그러자 극우적 네티즌, 트위터들이 저렇게 합니다. 트럼프가 숙청 운운하니까 ‘트황 진짜 윤어게인이다. 울컥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저거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트럼프 CIA 신고 넣었다. 트럼프도 친중 좌파다. 울컥하다. 좌파네. 가짜 트럼프’로 바꿉니다. 이런 회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푸대접설, 홀대설.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숙박했다, 그런데 블레어 하우스는 지금 수리 중입니다. 진짜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신범철입니다. 채 해병 사망사태 때, 사망사건 때 연루된 자가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떠듭니다.

다음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결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당 국회의원이 ‘내가 실수했다’ 이런 SNS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그래서 저는 방송2소위에서 저런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유튜브와 유튜버들 그리고 저 댓글까지 어떻게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과방위 새내기인 이주희 위원님이 아까 마무리를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줄이고 2분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세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30초가 부족해서 못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다 이 자리에 출석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간 윤 정부하에서 여러 방송장악 시도 그리고 KBS 내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상당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허용되는 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강윤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PD협회장입니다.

저는 편성위원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1월 달에 PD협회장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편성위원회를 요구했었습니다. 부문별 편성위원회도 있지만 전체 편성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었고 편성규약에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기자협회와 PD협회가 전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네 번 박장범 사장께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 지금 부문별 편성위원회는 잘 열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TV편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열 번 개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딱 네 번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편성규약에 따라서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채택이 돼야 되고 긴급 TV위원회는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되는데 안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적 60분’ 결방사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임명동의제는 세 번, 그 외 여러 안건들이 사측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편성규약 위반이고요 사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처음부터 편성위원회 강화 그리고 이를 어길 때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현업단체에서는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송 3법에 편성위원회 강화가 반영된 것은 큰 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23년 차인데요. 돌이켜 보면 KBS의 황금기는 소통이 잘되고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고 임명동의제가 잘된 때였던 것 같습니다.

PD들을 대표해서 앞으로도 콘텐츠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가 박권상 사장과 정연주 사장으로 이어지는 그때……

○참고인 강윤기 예, 그때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너무나도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방송장악이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내리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참고인 김승준 우선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인협회장입니다.

기술인협회도 앞서 말씀하신 PD협회장님 따라서 지금 전체 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 방송법에 대해서 좋은 감시자와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KBS 다큐 인사이트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공대 출신 기술인협회장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한 진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생존전략 방향을 묻는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만 가지고 방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IP 전송, 제작 기술, AI, 로봇카메라,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제작까지 모든 게 방송기술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력 줄고 있고 투자도 줄고 영터리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기술 기반을 잃는 순간 그 방송은 더 이상 재난대응도 미래전략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KBS 헬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한 방송장비가 아닙니다. 재난 속에서 국민을 지켜보는 생명의 카메라입니다. 기술을 외면한 방송은 결국 국민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다시 띄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이승철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 편성위원회와 분야별 편성위원회를 편성규약에 따라 매달 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신뢰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것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박장범 사장과 윤석열·김건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 7000억, 광고 2000억, 프로그램 등 콘텐츠 판매수익 등 4000억, 매년 1조 3000억~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공영방송에 쓰도록 몰아줘서 그동안 만들어 왔던 신뢰와 권위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우리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내부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사와 조직을 다시 설계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던 제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편성규약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법에 명문화해 가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논의하고 문제를 고치고 하려고 합니다. 사장이 바뀐다고 공영방송의 미래가 장밋빛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누가 되든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자율적으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길 그게 대화의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최형두 위원, 이주희 위원, 이상희 위원, 이해민 위원, 김장겸 위원, 최민희 위원, 이훈기 위원, 최수진 위원,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은 서면질의 없습니까?

준비했는데 질의 못 하신 것 전달하시면 나중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남아 주신 여섯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조인철 위원, 이훈기 위원, 이주희 위원, 이정현 위원, 김현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실함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23분 산회)

### 참고인 명단

참고인(5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 이유
김의철	전 KBS 사장	2025. 8. 26.(화) 10:00	KBS 결산 승인안 관련 질의
강윤기	KBS PD협회장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이승철	KBS 기자협회장		

###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 ○청가 위원(1인)

박정훈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운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비상안전기획관 황의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해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장범  
감사 박찬욱  
전략기획실장 민필규  
보도시사본부장 이재환  
콘텐츠전략본부장 최성민  
방송인프라본부장 김민중  
경영본부장 정국진

라디오센터장 김병진  
 예산국장 유현성  
 대외협력국장 이재원  
 멀티플랫폼센터장 김윤환  
 수신료국장 박영춘  
 인력관리실장 최창영  
 노사협력주간 이선택  
 법무실장 조중호  
 경영관리국장 조재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  
 감사 최기화  
 부사장 김성동  
 방송제작본부장 남선숙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 유규오  
 융합기술본부장 박창홍  
 사업센터장 서동원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편성센터장 김광호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  
 영상아트센터장 정진성

#### ○출석 참고인

김의철(KBS 전 사장)  
 강윤기(KBS PD협회장)  
 김승준(KBS 방송기술인협회장)  
 이승철(KBS 기자협회장)  
 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 【보고사항】

####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교섭단체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심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 ○소위원장 개선

소위원회	사임	보임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심사	정동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2)

이상 3건 8월 2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0. 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8)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